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가평 법흥사 등
웰빙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1월 24일(음력10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501호

사회제도 국책사업

'문화영향평가' 실시된다

문광부 '삶의 질 개선'에 초점 기초연구 진행… 내년 입법 작업

불교계 의견 반영되도록 관심 가져야

"대입제도의 변화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생활패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이 수행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이 같은 사회제도나 국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특히 각종사업의 목적이 '개발'보다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불교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수행환경은 물론 불자들의 여법한 신행활동을 위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영향평가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각종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할 때 국민의 문화적 삶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02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청사진으로 제시한 이래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가 1차 연구를 끝냈고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광부는 2005년 1월 2차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정책이나 사업 진행 전후에 발생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역에 국한된 것에 비해 문화영향평가는 일상생활영역부터 거대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깊이 있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와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 박구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국민의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외국인의 한국문화 인식에 끼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책 전반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교계의 경우 '위락시설이 스님들의 수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형개발공사와 신도들의 신행활동과의 관계'와 같은 문제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이내에 시설을 건립할 때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규정도 문화영향평가의 적용으로 보다 엄격해져 사찰 주위의 난개발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문화가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사찰에서 진행하는 법회는 종교문화행사로, 각종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불교문화가 명확하게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제도마련과정에서부터 불교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제기했듯이 문화영향평가대상에 불교문화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불교문화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북한산과 천성산 문제에서 입증된 바 있다. 또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정부와 불교 관계자들의 '역사문화보존'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에서 불교문화가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문광부에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수행환경이나 신행환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세한 '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는 "문화적 삶 영위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는 중요하다"며 "불교계도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인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염불소리가 금정산을 타고 오르는 가운데 부산 범어사 보제루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석주 스님의 법구가 다비장으로 이운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만행보살이시여 다시 오소서!"

석주당 정일 대종사 14일 원적… 18일 원로회의葬 엄수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역임한 석주(昔珠)당 정일(正一) 대종사가 11월 14일 아산 보문사에서 원적했다. 세수 96세, 법랍 81세.

18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된 영결식에서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스님은 우리 종문(宗門)의 종장(宗匠)이었고 법시(法施)의 문을 넓히고 전등(傳燈)의 불꽃을 이어서 감로법문으로 중생의 마음을 비옥케 한 만행보살이셨다"며 애도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삼라만상이 노화상의 법신(法身)이요, 일체 음색이 노화상의 법음(法音)입니다. 이렇게 불사의(不思議)한 능력과 묘용을 갖춘 노화상의 면목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라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큰 스님의 업적은 극천(極天)하고 광대하여 우리 조계종단의 큰 기둥이셨으며 주인이셨다"라며 애석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서로 용서라고 화합하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값진 교훈으로 남아 있다"며 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금정산인' 석주 스님 법구는 범어사 다비장으로 이운돼 육신을 벗고 본래면목으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4면

부산=천미희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혜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대웅전에서 紫金光을 발하니…"

법전 스님, 北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법어 발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사진)이 11월 20일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봉행된 대웅보전 낙성식 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이제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청홍단청(靑紅丹靑) 팔작처마 대웅전에서 자금광(紫金光)을 발(發)하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을 비추고 동서로 뻗어 천하를 덮는구나"라고 말했다.

또 "대결과 갈등은 화해와 단결로 바뀌고 분단과 단절은 교류와 소통으로 변화하고 번뇌와 차별은 보리와 평등으로 승화되는구나. 무명인(無明人)은 유남북(有南北)이나 명안사(明眼師)는 무상하(無上下)로다. 어두운 사람에겐 남북이 있으나 눈 밝은 사람은 상하조차도 없도다"라며 민족의 화합과 평화, 교류와 소통, 깨달음과 평등의 세상을 설했다.

(신계사 대웅전 낙성법회 관련 현장기사 www.buddhanews.com, 다음호 상세보도)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2004 사회복지언론상' 수상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 주최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가 주최하는 '2004 사회복지언론상'에 선정됐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이춘성 부관장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불교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언론인상은 불교사회복지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언론사 및 언론인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2001년에는 EBS, 2002년 부산BBS, 2003년 부산일보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5시, 경주 하일라론도에서 열릴 계획이다. (051)628-6737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圓 曹溪宗 元老 昔珠堂 正一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昔珠堂 正一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48(2004)年 11月 14日(陰 10月 3日) 午後 4時경 충남 아산시 염치읍 普門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불기 2548(2004)년 11월 18일(陰 10月 7日) 오전 11시
■永訣式場 : 釜山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普濟樓
■茶毘場 : 釜山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蓮花臺

訃告

證明 : 법전
葬儀委員長 : 종산
葬儀副委員長 : 보성
葬儀委員 : 도견 법룡 도천 도원 수산 성우 활안 숭산 원담 녹원 원명 이무 정천 천운 동준 지관 진제 초우 혜정 지유
喪主 : 지혜
護持 : 법장
進行委員長 : 법능 월서 청화
進行副委員長 :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월운 정무 법정 도문 밀운 법흥 철응 봉주 정원 송월 종하 설정 홍교 오현 현호
進行委員 : 지백 도원 지원 선용 일미 대정 백운 정관 무진장 홍원 양익 법윤 창도 성현 선래 명선 지환 여현 휴정 향운 도근 혜운 혜관 담연 몽산 원두 성오 영환 반월 계전 현해 현성 종법 혜성 학능 능혜 인환 지안 혜총 혜인 무문 정태 정찬 성우 벽산 암도 성타 정련 천체 혜자 종철 무공 근일 벽봉 혜봉 무비 세민 지하 도법 수경 지선 원혜 법산 혁각 보광 종호 혜남 성우 보각 정락 마근 정념 도공 지각 법정 지성 법타 종상 현응 원정 현문 혜승 평상 명종 명성 영조 몽산 용주 법여 철안 명섭 영조 몽산 용주 법여 철안 성일 관조 일원 향국 덕륜 일석 광탄 광진 인걸 지정 지오 청강 혜원 지명 거해 고우 무여 적명 인각 혁기 명정 현산 합주 정용 원응 현묵 혜국 지환 의정 명진 진영 덕민 통광 혜남 융각 종욱 현진 진원 종진 성우 무관 철우 지현 혜능
哀 : 법전
都監 : 석공 원혜 묵하 성종
執行委員長 : 대성
法 : 원명 원공 지오
典 : 계전 반월 경선 범산 원정 상운 종훈 법안 명공 공운
儀 : 범산 화랑 해문 진홍 천산 공마 선원대중
知 : 정민 화랑 해문 진홍 천산 공마 선원대중
客 : 정산 김관태 길효동
務 : 원법 화봉
財 : 정산 김관태 길효동
報 : 혜수 선업 법장 은진
弘 : 혜수 선업 법장 은진
記 : 정한 용학 대혜 현암 보성 도공
書 : 정한 용학 대혜 현암 보성 도공
受 : 혜성 탁원 안도 적인
接 : 혜성 탁원 안도 적인
法 : 원범 혜거 법림
護 : 원범 혜거 법림
院 : 신묵
主 : 신묵
別 :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대중 중앙승가대학 학인대중
座 :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대중 중앙승가대학 학인대중
侍 : 대성암 대중 중앙승가대학 학인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者 :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대중 중앙승가대학 학인대중
茶 :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 중앙승가대학 학인
角 : 대성암 대중 중앙승가대학 학인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案 :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 중앙승가대학 학인
內 :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 중앙승가대학 학인
進 : 김포김길외 종무원 일동
行 : 중앙승가대학 학인 운물련 일동
車 : 중앙승가대학 학인 운물련 일동
駐 : 원호
門 : 월호
徒 : 혜관 송담 오철 오원 주인 정욱 보경 송암 법정 성림
代 : 성운
表 : 성운
恩 : 혜관 송담 오철 오원 주인 정욱 보경 송암 법정 성림
法 : 성암 법원 우성 덕산 보광
上 : 성암 법원 우성 덕산 보광
座 : 보성 보문 보화 수산 보견 보안 법운 도홍 도일 도성 광혜 혜광 보문
孫 : 지욱 법천
上 : 지욱 법천
座 : 보성 보문 보화 수산 보견 보안 법운 도홍 도일 도성 광혜 혜광 보문
在 : 정용목 하보리심 이종도 이성주 이건호
家 : 지욱 법천
弟 : 지욱 법천
子 : 법철 주현 현종 손대지월 오국근 강건기 오형근 전규태 김선근
在家弟子 : 법철 주현 현종 손대지월 오국근 강건기 오형근 전규태 김선근 정용목 하보리심 이종도 이성주 이건호

■問議및連絡處 : 釜山廣域市 金井區 靑龍洞 五四六番地 梵魚寺
☎ 051-508-3122~7, 508-3636
曹溪宗 元老 昔珠堂 正一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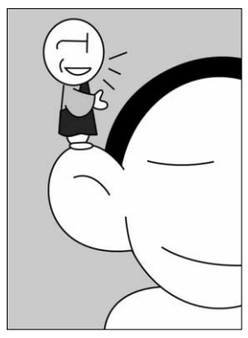


알아듣기 쉬운 법문이 필요하다

우리는 간간이 선 법문을 듣는다. 게송을 읊고 주장자를 쳐들어 "이것이 법에 합당한 것이다. 알겠는가?" 하면서 선의 종지를 부득이 드러낸다. 하지만 이내 "모르겠습니다"해도 그것으로 법문은 끝이다.

과연 대중들이 법문을 헤아려 알아차렸는지, 다른 궁금한 점은 없는지, 질문하는 이를 더듬어 어떤 촉매를 줄 것인지 하는 피드백 과정이 없다. 질문하면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도반이 공부의 전부라 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묻고 답하고 함께 끝까지 가자며 추동하는 탁마에 있을 것이다. 서로 그러한 담선(談禪)을 통해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혹 질문을 통해 제 3자가 어부지리를 얻는다 해도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모호한 '선문답'은 당혹감만 줘

"출가와 재가 서로 존중했으면"

그러나 한국불교에 그러한 담선 분위기는 드물다. 공부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했던 바, 결국 법에 대한 논의에 서로 열려 있어야 한다.

언젠가 천도재에 대해 혜안이 밝은 노스님에게 여쭈었다.

"스님 천도재를 왜 합니까? 천도가 되긴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 죽은 사람을 빌려 산 사람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노스님의 답은 본말이 전도된 듯한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었다. 왜 이런 방편은 화두 성성한 선방에서는 그 가치를 잃고, 선원만 떠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지 모를 일이다.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는 것일까.

49재가 많은 사찰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것 같은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방편이라는 천도재가 주가 된 듯한 현실을 볼때 점점 한국불교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사찰은 좀 더 간결해지고 긴박해져야 한다. 이런 방편은 길게 봐서 불교를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부대중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부대중 모두는 일체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생을 포함한 일체는 이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체의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에서 적어도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다. 공경하는 자와 공경 받는 자가 확연히 구분된다.

더 나아가 출가를 성취하였으니 존경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존경은 우러나오는 것이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솔직히 인내하며 들어야 하는 스님들의 반말과 하대가 싫다. 하지만 반말과 하대 또한 자성이 없기에 늘 나쁘지만도 않다. 그것은 하나의 친분의 척도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 대면했는데도 대뜸 날아드는 스님들의 반말과 하대에는 거부감이 든다.

출가와 재가는 서로가 존경해야 하는 관계다. 이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사부대중이 존재할 수 있다.

■ 손무수(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경복궁 뜰에 있는 석조문화재 되찾기 목소리 고조

"제 자리로…" "안돼…"

봉인사 등 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계기 반환 추진
"관리문제로 곤란·현 위치서 해체 보수 계획"


봉인사 신도들은 매달 음력 초하루면 경복궁 뜰에 있는 보물 제928호 봉인사부도암사리탑을 찾아 탑돌이를 하며 이 탑이 봉인사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경복궁 뜰에 있는 많은 국보·보물급 석조문화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체와 조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기회에 원 소재지로 돌려달라"는 요구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가 보물 제928호 봉인사부도암사리탑 반환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인사부도암사리탑(이하 사리탑)은 '기구한 유전(流轉)'으로 잘 알려진 탑. 광해군11년(1619년) 왕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 세워진 이 탑은 1927년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일본인 소장자 이와다센소 씨의 유언에 따라 1987년에야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반환된 데는 1979년 봉인사를 재건하고 이와다센소 씨에게 줄 기차게 반환을 요구했던 한길로 법사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리탑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온전하게 반환됐던 사리와 사리탑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에 따르면 정부는 1987년 사리탑과 사리장엄구를 보물 제928호에 지정하고 박물관이 소장케 하는 한편, 사리는 신앙의 대상이라 해서 사리와 사리를 담은 유리병만 봉인사에 돌려줬다.

그 후 봉인사는 문민정부 시절에도 반환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은 봉인사의 관리능력이 의심스러우며, 반환하게 되면 선례가 돼 다른 문화재들까지도 반환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반환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2년여 전부터 매달 초하루면 신도들과 함께 사리탑을 찾아 탑돌이를 하고 있는 적경 스님은 "사리와 사리탑이 따로 있어야 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사리탑은 봉인사의 역사인 만큼 반드시 봉인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봉인사의 관리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한편 남양주시와 함께 반환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봉인사 측의 반환 요구에 대해 박물관은 "이와다센소 씨는 봉인사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기증했다"며 "현 봉인사가 옛 봉인사 절터에 세운 절이라 해서 사리탑 조성 당시의 소유권이 그대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10여년 동안 원주문화재 반환운동을 벌여온 원주시 또한 최근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지광국사현묘탑, 보물 제190호 거돈사지원공국사승묘탑 등 원주에서 가져간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환 요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문에서 원주시는 "문화재란 제자리에서 원형 보존될 때 가치가 있다"며 "원주시민들의 정신적 뿌리이기도 한 해당 문화재들은 마땅히 원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화재들이 반환될 경우 원주시는 보존·관리를 위해 약 15억원을 들여 거돈사지에 관리소를 설치하고 관리원을 상주시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 뜰에 있는 석조문화재들을 내년 3~7월 용산 박물관으로 이전하되 훼손 상태가 심각해 이전 시 추가 손상이 우려되는 봉인사부도암사리탑과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은 이전을 유보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선 해체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종조원정기념관' 개관

총지종, 내달1일 총지사

총지종은 '종조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12월 2일 오후 1시 서울 총지사 2층에 기념관에서 갖는다.

'종조원정기념관'은 총지종 창종주인 원정 대종사의 유품과 서적, 불경 등을 전시, 종지종풍 선양과 종단내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전시되는 주요 유품은 창종 당시 사진을 비롯해 '<법불교> 편찬원고' '유지재단 정관 초안' '한일불교 한국대표 방일보고서' '사종수법용 사색건' '사종수법용 사색법의' '원경(圓鏡)' '준제관음상' '양계만다라' '아자(阿字)와 육합상(六合相)' 등이다.

한편 총지종은 원정 대종사의 사상과 교상을 연구하기 위해 종학연구실을 설립하는 한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구논문을 공모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기획부장 법안 스님
규정부장 효성 스님
태고종 총무원 인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1월 10일자로 총무원 부장에 대한 일부 개각인사를 단행, 기획부장에 법안 스님(논산 안심정사 주지)을, 규정부장에 효성 스님(중앙종회의원)을 새로 임명했다. 또 신설된 문화부장에는 묵원 스님(前 재경부장)을, 재경부장에는 경담 스님(前 규정부장)을 전보했다.

태고종은 "3년간 추진해온 각종 불사들이 종도들의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마무리해 종단이 한국불교계를 선도하는 선진종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진옥 스님 내년 초파일 목표

2005년 부처님오신날 달라이 라마 방한이 성사될까?

최근 여주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의사를 밝히자 법장 스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도 11월 16일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6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방한 허용에 대한 확답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김 의원은 또 달라이 라마 방한은 '문화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법장 스님도 당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았던 인연을 소개하며, 방한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총무원 한 관계자는 "종단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방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동북공정 등으로 사회 전반에 중국에 대한 반감이 흐르고 있어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만큼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499호 부록 '포교사 고시 실전 모의고사' 3회분 29번 문항이 방위와 지물의 잘못 연결로 인해 ①②③④ 모두가 정답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인가
태고종 "내년 3월 개교"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 개교인가를 받았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교육인적자원부가 11월 5일 동방대학원대학의 개교를 허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학원과정인 동방대학원대학을 개교할 수 있게 됐다.

태고종은 지난해 3월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의 운영권을 획득해 기존의 태고종 중앙불교회관과 동방불교대학 학사를 개조하는 공사를 마쳤다.

또한 종교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동방대학원대학 개교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돼 왔다.

박봉영 기자

불기2548년 불교성지순례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운항 - 양국 정부 운항허가 조건 -

불교성지순례
요금 ~~₩1,680,000~~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양곤-인천

문화탐방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GOLF 여행 ₩1,520,000
인천-양곤-파간-양곤-인천

한진관광 이기범 과장 TEL. 02-726-5788
바라밀투어 차명철 부장 TEL. 02-3452-8010
불교방송 권병훈 차장 TEL. 02-705-5303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9667	17:00 18:55 22:3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TRADERS OR NIKKO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공-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ARTHAWKA OR THARABAR GATE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민군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후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마하간디용수도원,만달레이힐 순례 전용 유람선으로 민군 향발, 민군 대탑, 민군종 순례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MANDALAY HILL RESORT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8:50 10:15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 로카찬다옥불사,차욱탓지파고다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한식
					석	한식
				HOTEL TRADERS OR NIKKO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9668	전일 23:50	아침공양후 쉐다곤파고다,마하시수도원, 쉐도 파고다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가사 불사 및 법회 (불교대학 대법당), 저녁 공양후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40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 십 시 요*	조	기내식
					중	
				HOTEL	석	

특전행사
1. 업장소멸 정대불사 (부처님진신사리, 사리불, 목련존자)
2. 탁발공양(희망자)
3. 수도원 위빠사나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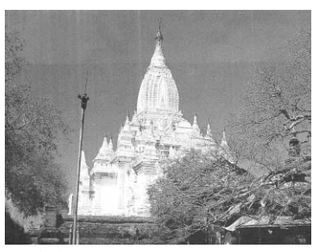
출발일(2004년)
1차 : 12월 5일~12월 10일(5박6일)
2차 : 12월 9일~12월 14일(5박6일)
3차 : 12월13일~12월18일(5박6일)
4차 : 12월17일~12월22일(5박6일)

미얀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자	출발/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9667	17:00 18:55 22:3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TRADERS OR NIKKO		
제02일	양곤 파간	HK909	06:30 07:50	호텔 조식후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순례-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ARTHAWKA OR THARABAR GATE		
제03일	파 간 해 호	국내선	09:15 09:45	호텔 조식후 해호 이동 소수 민족의 풍속지인 인네 호수 - 인따족의 수상시장, 수상 경작지, 외발 노젓는 모습 관광 - 팡도우 파고다 및 수상마을 관광 석식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HUPPIN RESORT		
제04일	해 호 양곤	국내선	10:05 11:35	호텔 조식후 양곤 이동 2전통 유리 공장, 로카찬다 파고다, 차욱탓지 파고다, 까바예 파고다, 아웅산 마켓 견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TRADERS OR NIKKO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9668	전일 23:50	호텔 조식 후 미얀마 불교 상징 쉐다곤 파고다 양옹산 추모탑 경유, 마하시 수도원 관광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40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기내식
					중	
				HOTEL	석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혜초여행 733-3900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포항시장 종교편향 규탄 집회 열기로

불교계, 면담 자리서 홀리클럽 탈퇴 요구…정 시장 거부

종교편향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는 정장식 시장이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을 탈퇴하라는 불교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 불교계가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종교간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1월 16일 포항사암연합회 종교편향대책위 관계자들이 정장식 시장에게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종교편향대책위(이하 종교편향대책위)는 11월 16일 홀리클럽 탈퇴를 요구하기 위해 정 포항시장과의 면담에 나섰으나 정 시장은 개인적 종교활동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포항불교계는 18일 정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키로 결정했다.

포항불교계는 먼저 11월 30일 시청 앞에서 불자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어 12월말에는 대구 경북 지역 불자 3천여 명이 동참하는 불교도대회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11월 17일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을 만나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중앙신도회 등 9개 단체도 11월 15일 정 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활동에 나서고 있다.

포항 불교계가 이처럼 발끈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준비과정에서 홀리클럽 발족을 준하던 정 시장과 마찰을 빚으면서부터다. 개신교쪽에서는 기존 홀리클럽을 기관장 모임 성격의 홀리클럽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전국적인 기관장 선교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고, 포항 홀리클럽이 그 첫 번째 모임이라는 사실이 포항 홀리클럽 홈페이지 창립 관련 글에 나와 있다고 포항 불교계는 말하고 있다.

포항사암연합회 총무 임대 스님은 "포항 홀리클럽은 정 시장의 정치적 야망과 기관장 홀리클럽을 결성해 공직사회를 이용한 선교활동을 해 보겠다는 개신교측의 계산이 만나 빚어진 사건"이라며 "성시화 운동 세계대회 준비안에 시 재정 1%를 선교자금으로 쓰겠다고 명시한 것은 위법이며, 정 시장이 명예대회장으로 있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항 일부 개신교계는 불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종교와 정치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포항 기독교 교회연합회와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일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유신 · 배지선 기자

천성산 문제 파국으로 가나

도롱뇽의 친구들, 법원 조정권고안 거부

"공사와 법원감정 동시 실시 말도 안돼"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은 부산고법 민사1부(담당 김종대 판사)가 '도롱뇽소송'과 관련해 11월 15일 제안한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속철 관통 터널공사 때문에 빚어진 '천성산 문제'는 더 이상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11월 16일 성명서에서 "사후 영향평가로 보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고속철도 공단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법원의 조정안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적법한 절차의 수순을 저버린 법정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산고법이 제안한 '고속철 공사와 6개월간 법원감정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조정안을 지율 스님 측에서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이어 "이 재판(도롱뇽소송)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기 전 법원의 권위로 공사를 허락하고 있으며, 6개월간의 공사피해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을 때 이것(법원 감정)은 사후 약방문처럼 무의미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불안한 미래에 우리는 조금씩 눈뜨고 있으며, 30만 도롱뇽의 친구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율 스님은 10월 27일 시작한 단식농성의 장소를 부산법원으로 옮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법원은 29일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문경에 명상웰빙타운 조성

5만1천여평에 529억원 투입 2008년 완공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조성되는 '문경 명상웰빙타운'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상북도는 11월 16일 문경시청에서 사업구상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5만1000평 부지에 약 5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명상웰빙타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요가와 명상음악, 참선, 선무도, 태극권 등을 수련할 수 있는 명상체험센터와 △기공과 물리치료, 향기요법, 경락, 약물탕, 음악요법, 한방치료, 수지침, 발마사지 등 웰빙클리닉 시설이 건립된다. 또 △건강차와 선식, 건강식, 건강음료, 지역특산품 등 웰빙푸드 시설과 △숲길, 황토산책로, 인공온천호수 반신욕, 삼림욕 등 주위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웰빙파크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자기 체험과 민속공예품 제작 △국악교실 △다도 · 서예 △농장체험(팜스테이) △웰빙전시관 등 주5일 시대 여가문화에 걸맞은 체험형 문화관광 시설도 들어선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사유지매입과 용도지역 변경 · 기본 실시설계 완료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08년까지 기반시설 정비와 민자유치를 통한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부터는 명상웰빙타운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신재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단법인 '실천불교'로

1992년 창립돼 교단 개혁과 사회 민주화에 기여해온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 성관, 이하 실천승가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실천불교'로 이름을 바꿨다. 실천승가회는 11월 22일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사단법인 '실천불교' 창립법회를 거행한다.

사단법인화는 2005년 초부터 본격화될 캄보디아 지원사원(BWC: Beautiful World of Cambodia)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 초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사단법인화를 통해 실천승가회는 지난 10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약서 교환 같은 공식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게 됐다. 또한 이번 일은 창립 12년 만에 공식적인 단체로 조직을 재정비했다는 의미도 띤다.

이사장은 지선 스님, 이사는 청화, 효림 · 성관 · 법안 · 장적 · 일문 스님 · 감사는 퇴휴 · 토진 스님 등이 맡는다. 실천승가회는 17일 홈페이지(www.silchun.org)를 재개통했다.

강유신 기자

군승의 날 기념법회 연다

30일 서울 하림각서

서른 여섯 번째 군승의 날을 기념하는 법회가 11월 30일 오후 6시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열린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법회는 군포교활동 보고, 군포교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 군법당 도서 증정식 등으로 진행된다. 표창은 김갑영 법사와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변상수 연천군청 주사, 이시찬 대전군불교진흥회장이 총무원장상을 받는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무원 장법장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 등을 비롯한 관계자 등 6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불교위원회는 앞서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현역 군승들의 총회격인 군승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24일 재소자 독경대회 선각종 주최 광주교도소서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1월 24일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독경대회를 개최한다. 2000년부터 재소자 교화를 위해 열려온 이 대회는 올해로 5회째. 이번 독경대회는 총 30여명의 재소자 불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선각종은 이번 대회를 위해 11월 초 광주 두암동 소재의 한 찻집에서 후원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열어 3백여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마련했다.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한 사람이라도 교화할 수 있다면 모든 재소자의 마음 속에 불교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독경대회를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재소자 불자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사찰로 알려진 개성 영통사에서 11월 16일 남북한 불자들이 의천 스님 903주기 열반재를 봉행하고 있다.

남북공동 의천 스님 열반재 봉행

16일 개성 영통사서

"남북 불자들의 가슴에 통일의 희망을 심는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903주기 열반재가 남북 불교계 공동으로 북측 사찰에서 열렸다.

남측 천태종 대표단(단장 무원)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영통사복원위원회는 11월 16일 대각국사의 출가사찰로 알려진 개성 영통사에서 열반재를 봉행했다.

이는 남북불교계의 교류영역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대북교류에 천태종의 위상을 확인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천태종 스님의 집전으로 전통의식으로 열린 이날 열반재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 조사 법어 봉독 △분향(남 · 북 대표) △추모사 △관음정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사회부장 무원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북녘의 사찰에서 남북 공동으로 대각국사의 열반재를 개최한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불교계가 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남북통일을 앞당겨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천태종은 이와 별도로 11월 16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대각국사를 기리는 열반재를 봉행했다.

박봉영 기자

황룡사 · 감은사 복원 청와대에 공식 건의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가 황룡사와 감은사 복원공사의 빠른 이행과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를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

불국사는 11월 15일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천만 불교도의 염원인 황룡사와 감은사 복원을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불교계의 의견을 모아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주의 역사성과 4개 공항 및 고속철도 등의 다양한 교통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할 때 경주가 태권도공원 입지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동국학원 학생 1천명 24일 합동수계식

동국학원 소속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11월 24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합동수계식을 한다.

동국학원 이사장 현해 스님을 계사로 개최되는 이날 수계식은 은석초등학교를 비롯해 동국학원 소속 8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10시부터 열리는 1부 수계식에는 동대부고, 명성여고 학생 500여명이, 2시부터 열리는 2부 수계식에는 은석초등학교, 동대부중, 명성여중, 홍제중, 금산중 · 고 학생 500여명이 수계한다.

강지연 기자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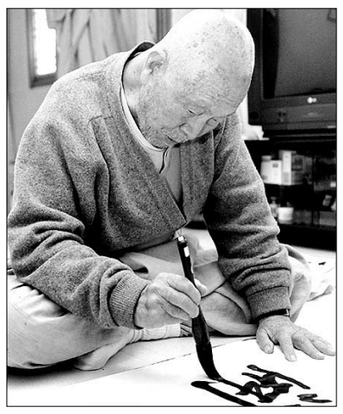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주지)—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웅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포교 · 역경에 온몸 바친 선지식

석주당 정일 대종사 행장



석주 스님은, 불사에 꼭 필요하다며 휘호를 부탁하면 밤을 새서라도 글씨를 모두 써 주곤 하실 정도로 포교에 열심이셨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현대 한국불교의 산 증인

석주(昔珠)당 정일(正一) 대종사는 1909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다. 23년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 33년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이후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사, 덕숭산 정혜사, 묘향산 보현사 등에서 효봉 · 해산 · 해암 스님 등과 안거를 성만했다.

석주 스님은 46년 6월 경봉 · 용담 · 대의 · 석기 스님등과 함께 민족불교개혁을 위한 불교혁신연맹을 조직해 불교개혁에 앞장섰다. 53년 10월에는 효봉 · 동산 · 금호 · 청담 · 자운 스님등과 불교정화운동을 위한 촉구 결의를 선학원에서 했으며, 54년 5월 대의 · 종익 · 재열 · 정열 스님들과 불교정화운동을 발기하기도 했다.

스님은 58년 경주 불국사 주지, 60년 불교정화 사태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6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등을 거쳐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총재(70년), 조계종 8대 총무원장(71년), 영천 은해사 주지(76년),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77년), 조계종 제15대 총무원장(78년), 중앙승가대학 초대학장(80년), 비상종단운영회의 부의장 겸 상임위원(83년), 조계종 23대 총무원장(84년), 중앙승가대학 명예학장(88년), 동국역경사업 진흥회 이사장(89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94년), 동국역경원 한글팔만대장경 역경사업 후원회 회장(94년)을 역임하는 등 현대 한국불교의 '산 증인'이었다.

석주 스님은 총무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지만 매번 임기가 끝나기 전 사표를 내는 등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행정을 잘 모르는 수행승일 뿐이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총무원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종정 후보로 여러번 추천되기도 했지만 "난 산중에 있지도 않고 다른 어른스님이 해야 한다"며 매번 사양하기도 했다.

"한글대장경 마쳐야 세상 하직하겠다"

"스님이 동국역경원 부원장직에 계셨을 때 10년 동안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안하고 출근했습니다. 스님 생신이라고 신도들이 보시한 돈을 전부 역경원 후원금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최철환 동국역경원 편집부장)

스님의 역경에 대한 원력은 남달랐다. 한글대장경이 완간될 수 있었던 것도 "한글대장경을 마쳐야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스님의 원력 덕분이었다.

석주 스님은 사재를 털어 1961년 5월 현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법보원을 설립했다. <열반경> <법화경> <유마경> <육조단경> <현우경> <선가귀감> 등을 번역 출판했고,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은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

64년 동국역경원을 설립한 이후 운허스님과 함께 한글대장경 편찬 작업에 착수, 37년만인 2002년 9월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했다.

스님의 역경불사 원력은 주석하던 칠보사 대웅전 현판을 손수 '큰법당'이라고 바꾼데에서 엿볼 수 있다.

수행자다움에서 한치 벗어남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생활 잘하는 것이냐고 여쭈면 '아침 예불에 빠지지 않는 것과 아침 공양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예불에 빠지는 것은 그 전날 늦게 절에 들어오거나 딴 짓을 한 것이고, 아침 공양에 불참하는 것은 그 전날 저녁에 밖에 나가서 딴 것을 먹은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연암 스님)

석주 스님은 아흔이 넘은 최근까지도 조석 예불을 철저히 하고, 예불 끝에는 으레 좌선 정진을 하거나 108참회를 꼭 했다. 이후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도량을 쓸었다.

이러한 엄격함은 前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언젠가 진관사 주지 진관 스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1975년에서 1976년 사이 비구, 비구니 이부승 계단이 구성될 때 일입니다. 그 때 계단에서 석주 스님을 존증아사리(證師)로 모시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말씀을 드리자 뜻밖에 단호히 거절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증사를 할 수 없소. 전복을 넣고 끓인 죽을 먹은 적이 있는데 내 어찌 증사를 할 수 있겠소.' 언젠가 스님께서 제주도에 가신 적이 있는데 누가 전복죽을 끓여 공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그것도 자신도 모르고 계율을 지키지 못한 일로 증사의 권유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석주 스님은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지만, 수행자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수행에 곤궁해진다"며 식탐을 제일 무겁게 경계했었다.

일평생 '오유지족'의 삶 견지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시절 어느 마을에 당도했을 때 해가 저물어 그 마을에서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처 절을 찾아 하루 묵기를 청했는데, 주지가 객실이 없다고 거절해서 마을에 가서 주무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객승이 총무원장이라는 걸 알고는 그 주지가 찾아와서 참회를 하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서울 칠보사 주지 선근 스님)

일평생 '오유지족(吾唯知足, 오직 만족함을 안다)'의 삶을 견지한 석주 스님. 스님은 종종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속옷과 양말 빨래를 손수 했던 것이다.

또 석주 스님은 양말이나 속옷에 구멍이나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불호령이 내렸다. 그리고 손수 구멍난 양말을 기웠다. 그렇게 해서 모은 옷이나 양말은 수해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내놓았다. 이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중앙승가대학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나 중앙승가대학 기숙사로 보내졌다.

시대와 더불어 호흡

석주 스님은 '산 속의 스승'만은 아니었다. 시대와 함께 숨쉬고 아파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11월 15일 '석주 스님 열반에 눈물흘리며'라는 글을 통해 "언젠가 만해 스님 후손이 있는 심우장에서 추모재를 올릴 때 조국을 위해 나투는 열사들의 정신을 우리 불교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생생합니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1980년 광주 민중들의 죽임을 목격하면서 인권이 마비됐을 때 조국의 민주화에 나서는 정치인들에게 힘을 주셨다"며 "당시 종교인으로 불교에서는 석주 스님이, 개신교의 문익환 목사,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과 더불어 사회 민주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스님의 이러한 생각은 노년에 접어들자 자연스럽게 노후복지 쪽으로 집중됐다. 아산 보문사에 '안양원'을 설립, 어려운 노인들과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진력을 다했다.

원적에 들기 사흘 전 지은 게송 발견

석주 스님은 평소 게송이나 휘호를 손수 써주기를 좋아했다. 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뜻이었다. 또 불사하는데 필요하다며 게송이나 휘호를 써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 없이 밤을 새서라도 모두 써주었다.

스님이 원적에 들기 사흘 전인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주련을 쓰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지은 게송이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96년의 세월 되돌아보니(廻顧九十六年事)
마치 왕자가 구걸 다니는 듯 했네(一似懷珠傭作擔)
오늘 아침 무거운 짐 내던지니(貧今朝放下煩重)
옛 모습 오롯이 본 고향이구나(本地風光古如今)

'자비원력보살'(서옹 스님) '천하를 사랑하는 이'(법룡 스님) '안과 밖이 여여하신 자비보살'(관응 스님) '삶 자체가 바로 법문이신 분'(도원 스님). 현대 한국 고승들이 석주 스님을 평한 것처럼,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부처님 열반경이 임종게이거늘 어찌 임종게를 남기겠는가. 사리도 수습하지 마라."

글=천미희 · 남동우 기자



일평생 '오유지족'의 삶을 견지한 석주 스님. 스님은 구멍난 양말이나 속옷을 직접 기웠다. 그렇게 모은 속옷가지들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일생동안 검약과 보시의 삶을 견지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어린이를 유난히 아끼셨던 '천진불'

대원행 보살이 회고하는 석주 스님



스님은 평소 "한국불교의 장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불자화하는 데 있다"고 늘 얘기할 정도로 어린이들을 유난히 아끼셨다. 칠보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한 석주 스님.

"어린이들을 워낙 아끼시는 분이셨어요. 아이들이 스님 방으로 찾아가면 과자나 초콜릿을 모아놓았다가 주시곤 하셨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칠보사 어린이법회에서 석주 스님을 처음 만난 대원행 보살(50)은 40여 년 동안 가까이서 모셔온 스님을 이렇게 회고했다.

어린이나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각별했던 스님은 학생회 수련회에도 빠짐없이 함께 했다. 취침 시간이면 수련에 지쳐 잠이 든 학생들이 깰까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이불을 덮어주실 정도로 자상했다. 또한 스님은 남몰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곤 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만 조용히 불러 장학금을 건네곤 하셨다.

늘 어린이들을 아끼고 보살폈던 스님 방엔 언제나 어린이들이 넘쳐났다. 스님을 시봉하시던 노보살이 버릇없는 어린이들을 야단치면 스님은 "저 어린이들이 자라서 불교의 미래를 이끌고 갈 사람이니 야단치지 말라"고 말씀했다.

평소 "한국불교의 장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불자화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던 '천진불' 석주 스님.

대원행 보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법명을 직접 지어 주시고 과자를 챙겨주시던 스님이 원적에 드셨다는 것을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천미희 기자

(재)선학원 중앙선리연구원 채용 공고

근현대 한국불교의 산실인
재단법인 선학원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학원의 21세기 도약을
이끌어 갈 인재(연구원)를
모집합니다.

▣ 자격
불교학(한국불교사) 박사과정 수료 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 1부

▣ 전형방법
1) 1차 : 서류 전형
• 제출기간 : 11월 17일(수) ~ 12월 4일(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개별접수, 우편에 한함
☞ 우편접수 및 서류제출처
재단법인 선학원 총무과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02)734-9654~6
2) 2차 : 면접

▣ 기타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6일까지 개별통보를 해 드립니다.
• 면접은 12월 15일 실시됩니다.

재단법인 선 학 원

개원법회를 시작으로 백일관음기도를 봉행합니다

영축선원 불교강좌 모집안내

참선대학강좌

기초반 (6개월) 11월 29일 오전 10시 개강
[매주 월] -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금강경, 참선실수

중급반 (6개월) 11월 30일 오전 10시 개강
[매주 화] - 금강경, 육조단경, 참선 실수

❊ 수강료 : 입회비 1만원, 월회비 1만원(수시입학가능)

BBS부산불교방송 (89.9MHz) 매일 오후 9:05~9:25까지 반산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방송중입니다.

대승불교강좌

기초반 12월 1일 오후 7시 00분 개강
[매주 수] - 기초교리,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중급반 12월 2일 오후 7시 00분 개강
[매주 목] - 부처님 일대기, 기초교리, 금강경, 법화경

❊ 수강료 : 입회비 1만원, 월회비 1만원(수시입학가능)

봉 11월 23일(화) 11시 봉불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합니다 행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포교원 靈鷲禪院 (영축선원) 원장 서봉 반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9동 469-15 대동레미안 B/D 401호 / TEL. 051)752-0108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불교를 만나니 확 달라졌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탁
특성화 · 과감한 투자로 주목
문화행사 · 연수장으로 인기

11월 18일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는 하동 관내 15개 중 · 고등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들만의 축제가 열렸다.

하동군청소년수련원(원장 효천) 주관으로 열린 '2004년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큰잔치'에는 2,500여 명의 읍 · 면 소재지 학교 학생들이 모두 참석해 흥과 끼를 발산했다. '젊음! 꿈과 희망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자두, 리치 등의 인기 가수 공연과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경호무술시범, 재즈댄스 등 우수동아리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진 이날 공연은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이번이 두 번째로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던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0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고 제 13교구 쌍계사 본 · 말사 연합회(회장 묘유)가 운영을 맡으면서부터다. 이후 전문가 투입을 통한 프로그램 특성화와 시설 개보수 및 생활관 증축 등 과감한 투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은 산, 바다, 계곡이 어우러진 입지적 조건을 십분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연 7천명에 그쳤던 수련인원을 3만 5천명으로 끌어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젊음! 꿈과 희망을 청소년에게'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에서 청소년들이 댄스 등 장기를 뽐내고 있다.

숙박 400명, 야영 600명 등 동시 1,000명의 수용이 가능한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은 이제 초 · 중 · 고등학교 위탁 수련활동뿐 아니라 기업체, 사회단체 연수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새해 해맞이 행사 때에는 무료 숙박 혜택과 떡국을 무료 제공하고 있어 새해맞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운영에 활기를 되찾자 곧바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무료로 열기 시작했고 18일 열린 청소년어울림 한마당도 그 중의 하나다. 이밖에도 연 2회 하동군 관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2만평의 대지위에 수영장, 야영장, 야외교육장, 생활관, 운동장 등을 갖춘 종합청소년수련시설인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은 연 수련생 4만 명 시대를 향해 뛰고 있다.

김동준 사무국장은 "갯벌체험, 금오산 등반, 천체관측 등 특화 프로그램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학교나 기업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055)883-5393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위상 확인 … 지역사회 발전 도모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의 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는 11월 27일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회의 밤'을 개최한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가 결성 이후 처음 추진하는 사업.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는 과거불퇴전의 신심으로 구도활동에 정진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한 동문들의 위상을 확인하며, 불교의 중추적 소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할 이날 행사에는 대불련 지회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의 2005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또 2부에는 대불련 대경지부의 장기자랑, 모리터 국악교실의 공연, 기수별, 동문별 장기자랑 등 회향의 마당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 임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을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대구 주요사찰 곳곳에 내 걸고 그동안 잊혀졌던 숨은 동문 찾기에 여념이 없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 임해수 회장(대구 곽병원 마취과장)은 "동문들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재학생들의 지부결성과 활동을 돕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25일 출범한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총동문회는 △대불련 재학생 지부 및 지회 활동의 활성화 지원 △불교사회복지활동 적극참여 △재가 신행활동의 모범적 전개 및 대중포교의 선구자적 역할 수행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 강화라는 주요사업목표아래 연간 세부추진일정을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53)755-8318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대구 교직원 명상 · 요가 연수

대구 초 · 중 · 고 교사 100여명이 하루 종일 산사에 머물면서 명상과 요가를 익히고 체험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신연섭 · 덕원중)가 11월 21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명상요가 연수를 개최한 것.

이번에는 제 1회 연수에 인원초과로 참석 못했던 교사들이 대거 동참해 사찰생활 안내부터 명상, 요가 강의와 실습, 사찰 문화재 관람까지 다양한 체험을 했다.

전통사찰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명상, 요가 수련을 통한 건강한 심신 수련, 교실에서 실시할 수 있는 명상 요가방법 등으로 진행된 연수는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배지선 기자

용주암, 산사문화예술제 개최

대구 팔공산 용주암(주지 성학)은 (사)대한불교일련종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경제난 극복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산사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11월 20일 갓바위 앞 용주암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불이종 종정 성공, 일련종 종정 경봉, 前 법화종 종정 금파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2부 통일기원 대법회, 3부 산사문화예술제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신중작법, 삼신이운, 점안, 권공 의식 순으로 이어졌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산사문화예술제는 육군삼사관 군악대를 비롯해 연예인 송해, 조항조, 오은주, 은방울자매 등이 출연했다. 배지선 기자

지혜정사, 낙태아 천도대법회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지혜정사(주지 지홍)가 낙태아 천도대법회를 49일간 봉행하고 11월 18일 회향했다.

10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봉행했던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대법회는 귀한 생명에 대한 자각없이 무심히 행해진 낙태(유산)로 인해 허공을 떠돌고 있는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지 지홍 스님의 원력으로 무료 봉행됐다.

지홍 스님은 "태아는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이라며 낙태(유산)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페인트 뿌려 대웅전 등 훼손
수도암, 지난 4일 괴한 침입

대구 도심 사찰에서 훼불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수도암에 11월 4일 밤 괴한이 침입해 절 입구인 사천왕전에 흰 페인트를 대량으로 뿌리고 경내 대웅전 단청에도 흰 페인트를 주입한 달걀을 던져 사천왕전 외부벽면전체와 내부 벽면 일부, 그리고 사천왕상이 완전 훼손되고, 대웅전 단청일부와 외부벽면의 불화일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암은 일주일째 단청 복원작업을 하고 있지만 훼손정도가 심해 완전복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량배나 이교도의 소행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펼치는 한편 절 주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도심서 선의 참맛 느끼세요

통도사 포교원 '영축선원' 개원

참선 실수를 위주로 하는 도심 포교원이 문을 열었다.

부산 연산동(대동 래미안 빌딩 401호)에 개원한 통도사포교원 영축선원(선원장 반산)은 11월 23일 오전 11시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불식 및 개원법회를 열고 '참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이게 된다.

영축선원은 11월 29일 참선 실수를 위주로 하는 '선으로 가는 길' 기초반을, 30일에는 중급반을 개강한다. 기초반은 <초발심자경문> <금강경>과 참선실수로 참선의 기초를 다져주며 중급반은 <금강경> <육조단경>과 참선실수로 선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기초 교리 위주로 진행되는 '대승불교' 강좌도 기초반과 중급반을 나눠 12월 1 · 2일 각각 개강한다.

반산 스님은 "경봉 스님이 주석하셨던 통도사 극락선원의 분위기를 도심에 옮겨와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참선의 세계를 맛보게 하는 실참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5)752-0108 천미희 기자

가야불교가 되살아 난다

28일, 김해불교문화원 개원

가야불교의 역사를 되살리고 불교문화 관련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사)가야불교문화원이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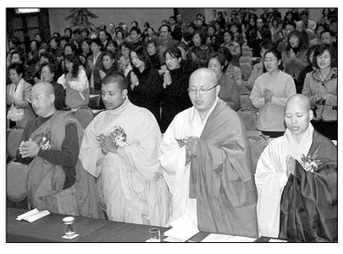
11월 28일 장유화상 칠불 후불 탱화 점안 및 문화원 개원법회를 열고 총 180평 규모의 가야불교문화원 시대를 개막한다. 김해지역 20만 불자들의 염원과 원력으로 건립된 가야불교문화원은 해로를 통해 인도불교가 최초로 전래됐다는 가야불교의 역사를 되살리는 중심 공간으로 불교문화 체험,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영남 전역을 향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의 거점이 될 가야불교문화원은 향후 김해 사학자들과 더불어 가야불교사 복원에 앞장서고, 포교지를 겸한 소식지를 발행, 김해지역 불교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이 밖에도 1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한 인성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055)322-0088

천미희 기자

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나길 …

울산불교신도회 · 초기불전연구원 공동 법회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손창길)와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11월 16일 울산 롯데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초기불전연구원의 울산 이전을 기념하며 '불법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손창길 신도회장은 "가을 대법회를 계기로 울산 불제자 모두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림 스님은 축사를 통해 "초기불전의 국역사업은 한국의 불자들이 신명을 다해 완수해야 할 소명"이라며 "신심깊은 울산불자들과 더불어 초기불경 국역 사업의 원력을 이루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불전연구원 법사인 각묵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대중의 서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은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사성제와 팔정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수심법을 챙기는 수행에 정진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초기불전연구원 황경환 상임연구원의 초기불전연구원 연혁보고와 영축사 합창단의 찬불가, 서연 스님의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감 사 의 말 씀

조계종 원로이신 석주당 정일 대종사의 원로회의장을 범어사에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종정 예하를 비롯한 원로 큰스님과 제방의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예를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러워하며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佛紀 2548年 11月 19日

석주당 정일대종사 추모재 일정

석주당 정일대종사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추모재	일 시	장 소	연 락 처	비 고
초재	11월 20일(음 10월 9일) 오전 10시	범어사	051)508-3122	부산 금정구 청룡동
2재	11월 27일(음 10월 16일) 오전 10시	보문사	041)545-6531	충남 아산시 염치읍
3재	12월 4일(음 10월 23일) 오전 10시	진관사	02)359-8410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재	12월 11일(음 10월 30일) 오전 10시	개운사	02)926-4069	서울 성북구 안암동
5재	12월 18일(음 11월 7일) 오전 10시	칠보사	02)732-1424	서울 종로구 삼청동
6재	12월 25일(음 11월 14일) 오전 10시	지상사	033)521-5139	강원도 동해시 지가동
막재	1월 1일(음 11월 21일) 오전 10시	봉은사	02)545-1448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문의 : 범어사 ☎ 051)508-3122

조계종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 조계종 원로 석주당 정일대종사 문도 일동

신임포교사 군포교 현장학습 하던 날

"선배들의 열정 배웠어요"

"장병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인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니 내가 있고 우리 포교사가 있으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우렁차게)"

11월 14일, 늦가을 찬 기운을 압도하는 장병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인천 강화도의 무애원 강당. 법문에 나선 이종호(61 · 현수) 포교사가 해병2사단 5연대 장병들과 신임 포교사들에게 '연기법'에 대해 법문하고 있다. 마침 성지순례차 무애원을 방문한 경기불교문화원 신도들도 자리를 함께 한 강당은 구법(求法)열기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노래를 부른다.

스님과 장병들이 법회 마지막 순서로 항상 열창한다는 군가를 들은 윤홍련(34 · 마하연) 포교사는 다소 당황해 하면서도 즐거운 듯 "이렇게 스님과 포교사, 장병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니 당장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무애원을 방문한 신임 포교사 중에는 군 포교와 뗄 수 없는 참가자도 있었다.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전역한 김태복(58 · 혜천) 장군. 김 포교사는 "상관이 아닌 포교사로 장병들을 만나니 느낌이 새롭다"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포

이론 · 실무교육 60시간 이수해야 활동

"처지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것" 중요

이날 법회는 '선배' 포교사들의 군 포교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후배' 포교사 40여명이 현장학습에 나서면서 마련된 자리. 신임 포교사는 이론교육 30시간과 실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군, 교도소, 어린이 · 청소년, 인터넷 등의 각분과 포교팀에 소속돼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법회는 △보례진언 △천수경 봉독 △진언 △정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법문 △사홍서원의 순서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30여 분간 계속된 이 포교사의 법문에 이어 무애원 주지 설봉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인사말 후 갑자기 시작된 해병대군가. 설봉 스님의 구령과 박수 소리에 장병들

교사 선배들의 열정을 따라 군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정택(21) 일병도 "김태복 장군님을 비롯한 여러 포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현장에 나오시니 반갑기만 하다"며 "동료들에게 불법을 더 열심히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임 포교사들의 현장학습은 법회와 점심공양이후 진행된 강화도 제적봉 격려방문을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현장학습을 마친 신임 포교사들의 표정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비구들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유행(遊行)하라"고 설한 포교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듯 뿌듯한 모습이었다.

강화=유철주 기자



인천 강화도 무애원에서 진행된 법회에서 포교사와 장병들이 '천수경'을 봉독하고 있다.

한국불교 포교·수행 거점 될 것

하와이 무량사, 내년 창건30주년 행사 다채

미국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무량사는 먼저 2005년 개산 30주년 기념법회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현지에서 봉행한다.

개산 30주년 기념법회는 14일 판화가 김경희 작품전시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개산 30주년 기념법회 및 대법당 부처님 점안식, 16일에는 20년 불사 회향법회 및 명원전통다실 개원식을 봉행한다. 기념법회는 17일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1월 13~17일 기념법회 거행
국제세미나 · 싯달타대학 개교식도
한인문화원 · 노인요양원 등 개원

이어 무량사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정병조(동국대) · 조성택 교수(고려대),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 등이 '한국불교와 선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9월 25일에는 무량사 문화원과 노인요양원 개원식, 하와이 싯달타대학 개교식이 열린다.

1986년 국회 정각회와 한국 불자기업인들의 화주, 당시 주지였던 대원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무량사 문화원은 포교와 수행의 종합도량으로 운영된다.

한인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평 3500여평 규모로 대법당, 태평선원, 전시관, 명원전통다실, 문화센터, 싯달타대학, 동서문화원 등이 들어선다.

대지 300평 지상 2층 건평 300평 규모의 노인요양원은 35개실에 35여명 수용 가능하다. 여기에는 현지 교포 뿐 아니라 노스님들의 노후복지시설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싯달타대학은 무량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03년 초 미국 서부사학연합회 실사를 거쳐 4년제 정규대학과 2년제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다. 무량사 문화원 건물에 설립되는 싯달타대학은 불교학과와 불교문화교양학과 등이 개설되며, 미국 현지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해 소수정예 형태로 운영된다. 무량사는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생들은 한국불교 포교사로 활동해야 한다. 또 대학원에는 한국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선학과도 개설해 4안거를 성만할 경우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하와이주립대학과 학점교환 등의 교류협정 체결도 추진 중이다.

도현 스님은 "싯달타대학 개원 등을 통해 무량사를 미국 내 한국불교 포교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학술연구·생활 격려금 전달

은정장학회, 소년가장 등 54명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11월 20일 서울 타워호텔 만복림에서 '제3회 은정장학 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수여식'을 거행했다.

올해 학술연구지원금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2000만원, 단체지원금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불교인권위원회에 각각 1100만원씩 지급됐으며, 장학금은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4명, 초 · 중등학생 9명에게 8400만원이 수여됐다. 소년소녀가장 11명, 독거노인 3명에게 생활격려금 2400만원도 전달돼 총 1억39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0월 효령대상을 수상한 자승 스님이 부상으로 받은 2000만원과 망해암 주지 성월 스님이 500만원, 삼막사 주지 성운 스님이 300만원을 각각 기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남동우 기자

강릉 휴휴암 수륙천도재 봉행



강원도 강릉 휴휴암(주지 홍법)은 11월 6~7일 이틀간 휴휴암 앞바다에서 3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영가 천도재(사진)를 봉행했다.

용왕 탱화와 위패를 실은 양양 인근 어촌 어민들의 배 33척이 휴휴암 앞바다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이날 천도재는 범패와 국악 살풀이, 중앙승가대 스님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홍법 스님은 "천도재를 계기로 선망부모와 유주 무주 고혼들을 인도하고, 모든 악업을 소멸해 청정한 마음으로 살자"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제천 송화사

지역 발전·인재양성의 산실



송화사 불교유치원 어린이들이 참선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제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송화사가 유일하다.

송화사는 제천 포교 1번지로서, 지역 불교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엔진과도 같은 곳이다. 송화사는 1973년 창건과 함께 곧바로 고등부 학생회를 만들어 청소년 포교에 뛰어들었고, 어린이와 중등부 학생회도 연이어 창립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학생회를 운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도회 거사회 합창단 등을 통해 지역 불심을 규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도 했다. 또 시내에 '진여원'이라는 포교당을 개설, 제천포교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천 유일의 불교유치원(법화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양성의 산실로 평가받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포교역량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수의 힘을 하나로 모을 총동문회 결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봄쯤이면 총동문회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유마거사회 정예화 사업도 송화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50여명으로 구성된 유마거사회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재교육시켜, 언제 어디서든 포교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교교리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불교사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마거사회를

31년 전통 학생회 '비리야' 총동문회 구성

거사회 정예화 · 전방위 포교사 능력 발휘

송화사는 지금, 국내 최고의 포교도량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송화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등부 학생회인 '비리야' 동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총회를 결성하고, 남자 신도들의 모임인 유마거사회를 정예화해 포교 동력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도와 휴식 공간을 만들어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수행에 몰두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창립된 지 올해로 31년이나 되는 '비리야'는 그동안 각 기수별로 모임을 가져왔다. 기관장, 병원장, 기업체 사장 등 제천에서 웬만큼 잘나간다(?)하는 유지들치고 비리야 동문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리야는 제천 인재

통해 생활불교운동을 벌일 생각이다. 또한 3~5년 계획으로 수행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수행 · 포교도량으로 자리 잡겠다는 각오다.

이런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송화사 회주 경암 스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제천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다. 88년부터 현재까지 불입종 총무원장을 연임하고 있을 정도로 종단에서의 신임도 두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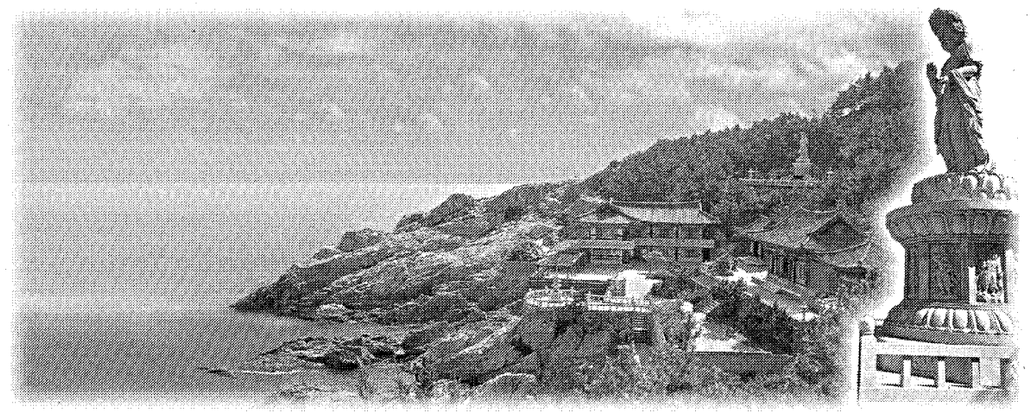
경암 스님은 "스님이 변해야 신도가 변하고, 그래야 불교가 변할 수 있다"며 "작은 힘이나마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 포교기반을 넓히는데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제천=한명우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제2회 침구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 교육목적 및 과정 ◆

평소 침구학에 관심이 많은 의료계종사자 및 재야 침구인들은 그동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간 제도운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교육원을 개설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능한 교육생을 배출함은 물론 침구교육사 양성제도를 확충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침구교육사 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수업시간
6개월과정 (2학기)	50명	자격기본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침구분야 종사자 2. 해당분야 국내외 사회교육원 및 교육학원에서 2년이상 교육이수자 3. 기타 위사항에 준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야 침구인	매주 1회 토요반 오전 9시~ 오후 6시
1년과정 (4학기)	50명	상기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일반인 및 건강분야에 자격이 있는자 2. 기타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성인 3. 대체의학분야 종사자	

2. 교육과정
• 한(중)의학기초이론, 해부생리학 • 침술내과학, 외과학, 위생법, 경혈학, 한방진단학, 침구처방학
• 대체의학관련과목 다수 • 사상의학(체질의학),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

3. 접수문의 · 02)393-5111(代) 서울 서대문 본교육원 교무처

4. 신청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진(3×4) 5매 • 이력서 • 각종자격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특 전 : 교육이수후 자격검정 합격자는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원할 수 있음
• 국내최초로 평생교육침술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재야 침술에 전문인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을 졸업후 중국연변대학교 증의학(한의학)과에 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졸업한후 외국대학(대체의학 및 한의학)편입학 가능
• 본 과정을 이수한후 개원설립시는 특별혜택 부여

■ 오시는 교통편 ※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나와 1미터 조흥빌딩 5층 ※ 버스 - 137번, 서대문 로터리 하차 충정로우체국 옆

문교부허가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침구교육원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조흥은행 5층
TEL. 02)393-5111(代) FAX . 02)312-5404

전북 전주·완주

사찰 100 교회 1300 "치솟는 불심 일당백"

경허, 만공, 한영, 용성, 탄허, 구산 스님 등 근,현대 한국불교에 있어 기라성 같은 선지식을 배출한 전북. 얼마나 깊은 불연(佛緣)이 쌓였기에 난세에 큰 스승들이 줄을 이었을까. 그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없이 지명에서 먼저 엿볼 수 있다.

전북의 고도 전주(全州), 완주(完州)는 이름이 말해주듯 '완전한 고을, 온 고을'을 뜻한다. 온 고을은 전쟁은 물론 천재지변에도 큰 탈 없이 천년을 이어왔다. 그래서 옛부터 산과 물을 보는 이들은 이곳을 일러 그대로 법당이요, 부처님 땅이라 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이 물음에 대해 지역불자들은 대답대신 고개를 떨군다. 전주, 완주지역에 사찰이 100여개인 반면 교회가 1300여개로 추정되는 숫자만이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천주교 200년, 기독교 100년 만에 호남불교가 고전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세월은 또 흘렀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불자'라고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던 것이 이 지역의 정서였다면, 이제는 '불교인'이라고 하면 왠지 심지가 깊고 지혜 있는 이로 추앙받는 추세이다.

시쳇말로 오늘의 전북불교는 '바닥치고 위로 치솟는 불교'라 하겠다. 그래서 더욱더 전북불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주

전북불교 포교 일번지는 단연 전북불교회관(원감 덕림 스님)이다. 전주의 관문 고속터미널 옆에 자리한 전북불교회관은 국내 최초의 도심포교당으로 1985년 준공됐다. 대지 362평, 건평 172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회관은 법당, 신행단체 사무실, 불교 어린이집 등이 자리해 있다. 화엄불교대학과 거사회, 청년회, 학생회 등 각종 신행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사회활동의 일환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노인들에게 5년째 무료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들에게 매일 도시락 80여개를 배달하고 있다.

대사회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전주 불교계는 전북불교회관의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시작으로 불교복지에 눈을 돌리게 된다. 3년 전, 금산사 복지원은 전주시로부터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우용호)을 위탁받아 시설복지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원복지관에는 취미, 여가, 건강 및 교육프로그램 60여개가 개설되어 매일 1000여 명의 지역노인이 복지관을 찾고 있다. 특히 일거리작업장을 개설해 80여명의 노인들이 단순작업을 통해 용돈벌이까지 하고 있다. 지역 사암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불교위상을 높이고 있는 서원복지관 (063-227-7483)은 지난해 전북 시민평가단으로부터 최우수복지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전주 지역의 대표사찰은 옛적부터 전주를 지켜온 비보(裨補)사찰로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남고사(주지 원혜)는 후백제 산성사찰로, 남고모종(南固暮鐘: 해질녘 남고사의 범종 소리)은 전주 8경중의 하나였다.

전주의 진산인 완산칠봉 주봉에 자리한 정혜사(주지 혜일)는 1998년 삼천동에 완산불교회관을 건립하고 전북불교대학에게 무상임대하는 등 도심포교 일선에 나섰다. 사찰경내에 전주유일의 불교유치원인 보문유치원이 있으며, 초파일에 앞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금년엔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편하게 찾는 지역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태고종은 부모에 이어 대를 이은 2~3세 스님들의 등장이 눈에 띈다. 전북 종무원장 향산 스님은 "얼마전만 해도 스님의 자제인 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당당하게 수행자 길을 걷는다"며 "부모밑에서 습의가 몸에 익은 젊은 스님들이 포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기대가 높다"는 설명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이같은 종단의 변화를 살려 수행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의식, 교리교육과 불교대학 개설로 신도교육은 물론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몇 년 전, 전주도심의 대표적 건물하나가 포교당으로 재출발했다. 70년전 일제때 세워진 동양척식회사 건물이 몇 차례 간판을 바꿔달았다가 도심포교당 '선각사(주지 선각)'가 됐다.

570여 평 규모의 선각사는 법당은 물론 불교문화원, 전통다원 등을 갖추고 있어 도심포교당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선각 스님은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의 상좌로 광주에도 도심포교당 관음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전주역 부근 대형빌딩에 자리한 '참 좋은 우리절'(주지 회일)도 도심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개원 5년째인 참 좋은 우리절은 새벽예불부터 밤늦게 까지 교리공부, 기도, 정진, 봉사활동 등으로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주 일요법회에만도 200여명의 신도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 도심포교당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주지 회일 스님은 "내년 준공되는 삼천동 법당은 2000여 평의 부지에 유치원,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교육,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도심사찰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전북불교에 있어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재가불교교육이다. 1988년 3월 개교한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17회에 거쳐 220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재가법사를 배출했다.

전북불교대학보다 한해 늦게 출범한 화엄불교대학(학장 평상 스님)도 현재까지 1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북불교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전주의 양대 불교대학은 해마다 200여명의 정예불자들을 배출해 내고 있어 전북불교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불교대학 학인들이 포교와 자비실천행을 펼쳐 지역불교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최근 전북불교계에 거사불자가 늘고 불자들의 연령이 낮아진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신행단체로는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를 비롯해 불교대학 졸업학인들의 각종 동문회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지역 신행단체로는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이 주목받고 있다. 전주에서 1999년 처음 출범한 천천클럽은 '천명이 매월 천원씩 후원해 이웃에게 봉사'하는 모임이다. 현재 1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천천클럽은 매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생활비 지원은 물론 소년원 법회(월 2회)운영, 경노식당 지원 및 봉사 등 지역의 사회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천천클럽(063-255-0108)의 활동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익산, 충주 등에서 천천클럽을 발족해 전국조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완주

완주는 지형적으로 전주시를 빙 둘러 에워싸고 있다. 지금은 도심지가 발전하면서 전주와 큰 구별이 없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완주는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불교적으로 완주는 유별나게 진묵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묵 스님의 출가본사 봉서사, 성도후 보림처 원등암, 젊어서 수행하던 대원사, 송광사 등 유서깊은 완주지역 사찰은 대부분 진묵 스님의 일화를 담고 있다.

완주의 대표가람인 송광사(주지 도영)는 순천의 승보종찰 송광사와 사명(寺名)이 같아 일반인들에게 많이 혼동되고 있지만 사격으로 보아 결코 순천 송광사에 뒤지지 않는다.

현 주지 도영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장을 맡아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으며, 국내최대 크기의 법당내 좌불이 새옷(개금불사)을 입고 다음달 일반에 선보인다. 또한 가족법회와 자원봉사단을 통해 포교와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송광사 주산인 추줄산 정상부근에 자리한 위봉사(주지 법중)는 일제 때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31본산의 하나였다. 1911년 당시만 해도 전북 일원의 46개 사찰을 관할하는 본사로 위상을 갖추고 있었으나 각종 화재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찰에 거주하는 이가 없어 지역대학생불교연합회원들이 상주하며 지켜냈다.

1988년 현주지 법중 스님이 부임 받아 왔을 때의 위봉사는 누울 자리 하나 없는 폐허였다. 스님은 "위봉사가 일어나야 전북불교가 산다"는 원력으로 백장청규에 따라 일과 수행을 병행해 오늘의 대가람을 일으켰다. 1990년 비구니 선원을 개설해 겨울, 여름 안거는 물론 봄, 가을 산철결제를 하며 선원을 일으켰다. 일요법회를 통해 신도교육에도 혼신을 쏟아 이제는 3000세대의 신도가 가람을 호위하고 있다.

완주불교의 신바람은 남서쪽 모악산도 만만치 않다. 모악산의 대표 등산로에 자리한 대원사(주지 석문)는 지난 4월 화전축제를 펼쳤다. 모악산 진달래를 매개체로 이 축제에 참석한 대중이 1만명이었으니 모악산 최대의 야단법석이라 할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원사는 모악산 주차장에서도 30여분을 걸어 올라야 하는 산중사찰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금년으로 4회째 열린 화전축제는 준비에서 진행까지 철저하게 지역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에서 주관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불교를 주창하는 석문 스님은 지난해에도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전교생은 물론 가족까지 초청해 법주사로 사찰순례를 떠나기도 했다. 버스 15대에 나눠 탄 순례객은 전북 최대규모의 시민사찰순례단으로 아직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11월 20일, 지역불자들의 문화공간으로 향적당을 건립해 준공법회를 가졌다.

고산에 자리한 홍련암(주지 대선)은 참선도량으로 눈 푸른 납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홍련암은 대선 스님의 생가로 30여 년 전 도량으로 개설해


대선 스님
완주 홍련암 주지


선각 스님
전주 선각사 주지


향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원혜 스님
전주 남고사 주지


덕림 스님
전북불교회관 원감


석문 스님
완주 대원사 주지


회일 스님
전주 '참좋은 우리절' 주지


혜일 스님
전주 정혜사 주지


법중 스님
완주 위봉사 주지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


오종근
전주 '천천클럽' 회장


우용호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장

전북불교회관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전북불교계의 대사회복지 활동을 리드하고 있다.



■ 전북불교를 말한다

도영스님(조계종 포교원장·송광사 주지)

"포교당서 법회하던 학생들 전북불교 꽃피우는 주역"



"70년대 초만 해도 전주시내 고등학교의 절반이 기독교계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타종교에 맡겨서는 안되었기에 시내에 금산사포교당을 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 전세로 법당을 꾸미고 학생회를 조직했던 것이 전북대불련의 시작입니다"

당시 금산사 총무였던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사중의 어려움 속에도 포교당을 낸 것이 오늘의 전북불교 발판을 이루었다"고 회고한다.

그렇지만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드나드는 법당은 이웃에게 귀찮은 존재였고 매년 이사하기를 반복해 10여 차례 옮겨다녀야 했다. 80년대 들어 스님들이 포교당에 상주하면서 학생회뿐 아니라 일반법회를 개설하게 되었고 전북불교가 꽃피기 시작했다.

"10여 년 간 전세법당을 전전하다가 1986년 전북불교회관을 준공했습니다. 전국에서 도심포교당으로는 처음이었고, 각처에서 포교당 견학차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다녀갔습니다."

도심포교당 운영의 모범을 보인 도영 스님은 "이제 전북불교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전문활동이 필요하고, 분야별 조직이 되어있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주

전북불교회관 지역포교·교육·봉사 원동력
천천클럽 1천여 회원 '이웃과 하나'된 삶

완주

송광사·위봉사·봉서사 등 고찰 '밝은 법등'
화전축제 등 주민 결속… 영산재 보존 '자랑'

전주 완주 = 이준엽 기자

완주 대원사가 매년 개최하는 회전축제. 이를 통해 지역민과 하나되는 불교를 실현한다.

마음공부와 생활은 하나입니다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1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 구룡사
3 능인선원
4 부산 삼광사
5 안국선원
6 한마음선원

사람들은 한마음선원을 두고 "대단하다"고 말한다. 무엇을 하든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때마다 연등축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곧잘 튼튼한 재정이나 막강한 조직력과 등식관계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숲만 볼 뿐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격이다. 한마음선원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최고의 수행·포교도량이 된 것은 바로 튼튼하게 자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참선수행도량 한마음선원. 대지 1033평에 연건평 3192평 규모로 외형상으로만 보면 그리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그 무엇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곳에서는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를 키우고 있다. 나무 한그루 한그루의 힘,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하는 저력의 원천인 것이다. (031)470-3100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방송국(www.hbtv.org)



청년회 · 학생회 · 어린이회는 활발한 활동으로 '전국 최고'라는 평을 듣는다. 한마음합창제에서 공연을 하고있는 어린이회원들.



매월 첫째 · 셋째 주 일요일 법회때면 3 · 4 · 5층 법당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는 불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법문을 듣고 정진법회나 안거에 참여하는 등 '마음공부'에 열중한다. 사진제공=한마음 선원



미국(4곳) · 캐나다(2곳) · 독일 · 태국 · 아르헨티나(2곳) 등 10개 해외지원은 국제포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독일지원의 현지인 포교 모습.

●내안에서 해답 찾기…주인의식 높아

지난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던 '간암 환자 돕기 제 2회 한마음 합창제'는 불교계 안팎으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마음선원의 1천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장엄한 무대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으로 그런 대규모 행사를 치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4개월 동안이나 진행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준비 때는 신도회, 청년회 할 것 없이 며칠씩 밤을 새가며 장엄물을 만들고 행사 때 입을 옷을 만든다. 모든 것이 신도들에 의해 기획되고 자체적으로 생산 · 진행된다. 일반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왜 사람들이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준다. 한마음선원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지시한다든지, 단합하자고 외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스님과 신도들은 어떤 일이든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 참여율도 높고 쉽게 지치지도 않는다. 자연스럽게 힘이 합쳐지고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모든 구성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 그 원동력을 문명진(55) 신도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활 자체를 공부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자신이 변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면 굳이 여기(한마음선원)에 왜 오겠습니까."



안거기간에 법당에서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신도들.

신도들은 매월 첫째 · 셋째 주 법회에서 대행스님이나 초청법사의 법문을 듣고, 금요일에는 좌선 법회에서 수행을 한다. 또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3일간 정진을 하며, 안거 때는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게다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법회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참석하는 등 항상 공부가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이 신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마음공부'다. 자기를 바로 보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도 자기에게 있고, 그 해답도 자기에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 신도들은 그 가르침대로 공부하면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인의식이 생긴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체험이 반복되면서 '마음공부'는 생활이 된다.

●개성과 자율성 중시…시대흐름 맞는 수행체계 갖춰

1971년 경기도 안양시에 대한불교회관을 설립하면서 출발한 한마음선원은 이제 전국 주요도시에 15개 지원과 해외에 10개 지원을 두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991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11개의 국내 지원과 9개의 해외 지원이 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4년 만에 모두 설립됐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중의 욕구에 부합하면서 시대흐름에 맞는 수행과 신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이나 신도들은 스스로 "우리 선원에는 질서가 없다"고 말한다. 지휘계통도 뚜렷하지 않고, 개인에 대한 어떤 간섭도 없다. 어떤 일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법도 없다. 한마음선원 주지 스님 외 3직 스님과 각 지원장 스님들로 구성된 '승단운영위원회'가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신도들과 각 지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이 더 크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사안이나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국한된다. 웬만한 것은 신도들에게 맡겨지고, 신도들은 언제든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낸다. 모든 것을 철저히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얼핏 보기에는 질서가 없어 보일 수밖에 없다.

"자유스럽죠.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개성을 억압하면 창의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창의적으로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죠. 시대흐름이 개성과 자율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마음선원 총무 혜솔 스님은, 신도들이 외형적인 무질서에서 내적인 질서를 찾아간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공부'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결정만 되면 출 · 재가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자타공인 전국 최고 거사회와 학생회

이렇게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열린 구조'는 자연스럽게 신도들을 사찰로 모이게 했다. 현재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의 신도수는 1만5천세대. 인원으로 환산하면 5만여 명 쯤 된다. 여기에 국내외 지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의 신도가 있는 셈이다.

신도회는 법형제회, 지역신행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로 구분된다. 이들의 신행자세와 활약상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사람들이 한마음선원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법형제회는 600여 명의 거사들로 구성된 한마음선원의 기둥 신행단체다. 이렇게 많은 거사들이 신행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드물다. 그 이유는 한마음선원의 신행기조가 이론과 관념보다는 실행과 체험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성적이고 맹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중시하는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들 거사들은 일차적으로 자기 수행에 몰두하면서 사찰 대소사를 챙기고, 어린이회와 학생회를 후원하기도 한다. 또 각자 직능과 취미에 따라 복지 · 봉사 · 섭외 · 기획 · 재무 · 조직 · 포교 · 교육 · 홍보 · 서클부 등에서 활동을 벌인다.

학생회와 어린이회 활동 역시 활발하다. 학생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200여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 학생 법회 때 모여 각자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250여 명에 이르는 어린이회는 연꽃법당 법회(7세~초등학교 2년)와 지혜법당 법회(초등학교 3년~초등학교6년)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활 속에서 불법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환경법회나 특별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신행회 활동도 독특하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구성돼 있는 지역신행회는 200여 개가 넘는 동 단위의 신행회가 모여 37개의 구 단위 신행회를 이루고, 구 단위 신행회들이 모여 지역신행회를 이루고 있다. 구별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정기법회를 갖는데, 담당 스님의 법문 위주가 아니라 각자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동 단위의 지역장들은 한달에 한 번 지역장 회의를 갖고 지역신행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중요사안을 논의한다.

이들 신행단체들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신도회는 봉축행사나 수계법회 등 연중행사를 기획 · 실행하고 봄 · 가을 바자회를 열어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다. 신도회 임원들이 거의 사찰에 상주할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다.

●해외 · 인터넷 포교 앞장…사회 각 분야 전문인으로 '인재 풀'

지난 10월 캐나다 밴쿠버 지원이 개원하면서 해외지원 수는 모두 10개로 늘었다. 1990~91년 미국 뉴욕, 워싱톤, LA, 시카고에 지원 개원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캐나다 토론토, 독일, 태국 등지에 계속해 해외 지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브라질 지원이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등 해외 지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일찍이 해외포교에 눈을 돌린 이유는 외국인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나눈다는 취지와 함께 불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에서였다. 그 예측은 적중했고, 현재 해외지원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 포교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사찰의 역할 외에 한마음 과학원, 한마음 국제문화원, 한마음 출판부, 한마음 미디어실을 운영하면서 인재육성과 포교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을 연구하는 한마음 과학원에는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의학 분야에서 90여명이 넘는 교수 · 학자 · 전문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 중에는 사회 각 분야의 인재가 고루 분포해 있어 '인재 풀'에 관한 한 어떤 단체도 부럽지 않은 수준을 자랑한다.

한마음 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의 법문 영역 외에 국내외 수행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한마음 미디어실은 불교자료 디자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면서 시대흐름에 맞는 포교에 나서고 있다. 또 한마음방송국은 불교상식과 교리에서부터 법문과 불교문화 등을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해 현장감 있게 포교활동을 펴는것으로 호평 받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나를 바로 보는 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인 터 뷰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한 신도와 대학생이 들어와 불쑥 주지 스님에게 "군대 다녀오겠습니다"하며 절을 하자, 스님은 "건강히 잘 다녀오시게"하며 웃음으로 답한다. 몇몇 신도들과는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권위 따위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국내외 25개의 지원을 총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까지 겸하고 있고, 찾아오는 신도들도 일일이 만나야 한다. 하루 해가 짧을 수밖에 없는 고된 하루하루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는 일이 없다며 겸손해 한다.

"너무 예뻐요. 무슨 일이든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알아서 척척 다 하는데 내가 뭐 힘들 게 있나요. 다 큰스님(대행 스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신도들이 잘 따라주는 덕분이죠."

혜원 스님은 언제나 공을 대행 스님과 신도들에게 돌린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스님은 "할 일이 많죠.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세계 구석구석에 해외 지원을 만들 겁니다. 이 좋은 부처님 법을 우리만 알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포교도 더 해야 하고, 인재도 더 길러야 하고…"라며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혜원 스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능력은 마음의 능력입니다"라면서 늘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파계사 비니정맥 전계의식 하던 날



"굳게 지켜 훼범치 않으리니…"

성우 · 철우 스님, 제자 6명에게 '비니정맥' 전계

"이제부터 이 몸이 불신(佛身)에 이르도록 금계(禁戒)를 굳게 지녀 훼범치 않으리니, 원컨대 모든 부처님은 증명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으리다."

11월 13일 대구 팔공산 파계사 설법전에는 한국불교의 바른 맥을 이어나갈 6명 스님들의 서원이 엄숙히 울려 퍼졌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통도사 전계화상 혜남 스님,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등 종단 율원 관계자와 사부대중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율의 정맥을 전수하는 '비니정맥(毘尼正脈) 전계의식(傳戒儀式)'이 거행됐다.

이날 전계식은 파계사 영산율원의 성우(파계사 주지) 스님이 제자 지운 · 경성 · 혜능 · 도관 스님에게, 철우(영산율원장) 스님이 제자 진목 · 해경 스님에게 자운 스님의 계맥을 각각 전하는 의식으로 치러졌다.

자운 스님은 1981년 단일계단을 창설하고 초대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조계종의 대표적 율사.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후에 계단위원장 보성 스님과 전계스승 성우, 철우 스님이 계단에 등단했다. 철우 스님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전해 내려온 의식절차는 없다"며 먼저 이날 전계식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임을 밝혔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옵고 삼가 아뢰옵니다" 성우 스님의 고불문이 이어졌다.

"전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지금 부처님의 정통계맥을 받으려 하옵니다. 청정한 계맥이 이어져 대열반에 이르도록 금생에 맹세코 부처님의 혜명을 잇도록 발심 정진할 것이오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전계제자 6명의 이력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이날 전계의식은 계맥 설명에 이어 전계 제자 서원, 전계첩과 의발 수여, 축사, 격려사, 법어, 전계율사 인사,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전계첩과 의발을 수여받은 율사들의 모습에는 목숨을 다해 부처님의 계맥을 잇겠다는 굳센 서원의 빛이 역력하다.

이날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종단의 크나큰 일꾼을 오늘 여기에서 출산하게 됐다. 영광스런 이 시간을 간직해 지구촌에 불교를 펼침에 부처님 제자로 부끄럼 없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0년간 자운 스님을 모셨던 혜총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6명의 율사가 탄생한 것은 바로 우리의 광명이 탄생한 것과 같다"고 기뻐했다.

혜남 스님 역시 "앞으로 전계를 주고 전계를 받는 분의 소임이 막중한 줄 알고 서로 탁마하면서 한국불교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며 이날 전계 제자들의 곧은 계행을 축원했다.

이날 계맥을 전해 받은 전계제자들은 "10여년 전의 자운 스님의 법은을 이은 은사 스님들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근본인 계율을 확립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불교의 근대계맥을 이은 것에 대해 감격스러워 했다.

대구 파계사 = 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계식을 마치고 전강 스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서 기념촬영. 아랫줄 왼쪽부터 혜남 · 종진 · 보성 · 철우 · 성우 · 혜총 스님. 윗줄 왼쪽부터 도관 · 진목 · 혜능 · 지운 · 경성 · 해경 스님.



전계첩은 후대 율사에게 대대로 전해져 정통계맥의 전수를 증명한다.



이날 전계제자들에게는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온 계맥을 정리한 전계첩과 의발이 수여됐다.

■ 파계사 비니정맥 전계식의 의미와 계맥 흐름

'비니'란 계율을 뜻하는 산스크리트 비나야(Vinaya)의 의역. 따라서 비니정맥 전계의식은 계율의 바른 맥을 전수하는 의식이라는 뜻이다. 전계식이 전강의식처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파계사에서 거행한 비니정맥 전계의식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전계의식은 신라말 심지 율사 이후 끊어졌던 계맥을 복원 정립하여 계단위원장 보성 전계대화상의 입회하에 한국불교의 정통 계맥을 공식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겸익-자장-숭제-진표-영심-심지 율사까지의 계맥은 밝혀져 있지만 그 후대에는 계맥이 온전히 정립돼 있지 않다.

성월-운봉-일봉-자운-성우 · 철우 스님 맥 이어져
신라말 심지 율사 계맥 이어가기 위한 공식적 시도

파계사는 이날 근래 비구계를 전수받은 스님들의 계맥을 살펴 만하 스님이 중국 창도 율사로부터 받은 계맥이 성월-운봉-일봉-자운 스님으로 이어져 오는 한국불교의 계맥을 정립한 계맥도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철우 스님은 계맥을 밝히기에 앞서 "이 계맥은 자운 율사의 계맥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이들이 전수 받은 계맥과 다를 수 있다"고 전제 하고, "중국의 <중화불학인명사전(1988년 刊)>, 범어사 <동계록>, 개인이 전수받은 계첩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맥도에 따르면 구한말 성월 스님의 계맥이 용성 · 운봉 · 한암 스님에게 이어지고, 용성 스님에게 이어진 맥은 다시 경하스님을 거쳐 동산 스님에게 이어졌다. 또 운봉스님의 맥은 자운 스님에서 종수 · 일타 · 지관 · 성우 · 철우 스님에게로 이어졌다. 한편,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창도 율사로부터 별도로 이어진 금강산 계맥을 잇고 있다.

철우 스님은 "중국에는 방장의 기록을 통해 그 계맥정립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계나 전법이 스승과 제자 사이 1대1로 이어져 그 맥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오늘 전계식 이후로 한국불교의 정확한 정통 계맥의 전수가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전계제자들은

지운 스님 : 운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교육원 교재편찬위원 송광사 강주 행자교육원 교수와 단일계단 구족계 산림 교수를 역임했다.

경성 스님 : 해인총림 대교과,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인총림 포교국장이며 현 조계종 소청심사위원이다.

혜능 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해인총림율원 영산율원을 졸업했다. 행자교육원 습의도감과 교수, 단일계단 교수를 역임하고 현 해인총림 율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도관 스님 : 해인총림 강원을 졸업하고 파계사 영산율원 율장을 공부했다. 제방 선원에서 여러 해 안거를 성만했으며 현재 직지사 삼성암에서 정진중이다.

진목 스님 : 통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파계사 영산율원을 1회로 졸업했다. 영산율원 비니원 연구 과정을 마치고, 파계사 강원 학감을 역임했다.

해경 스님 :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하여 해인총림 대교과, 율원을 졸업했다. 영산율원 비니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월정사 기획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www.drsaju.com
사주박사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학전문 프로사주 아카데미
운명 · 미래 · 삶 창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1.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안양시청불자회 38명 '초보딱지' 떼던 날

"배웠다기 보다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양불교대 야간기초교리반서 6개월간 '학구열'

"체계적으로 배우니 재미…직장생활도 원만"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야간기초교리반 마지막 수업. 안양시청 불자회원들이 강의내용을 하나라도 놓칠 새라 칠판과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불교란 인과의 법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내가 지은 업이 과를 만들고, 연에 의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즉 '자비'를 행함으로서 인과를 깨우치라 말씀하신 겁니다."

11월 17일 저녁 7시,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학개론' 강의 중간 중간 "아~!" "그런 뜻이었구나"하는 탄성이 터져 나온다. 이들은 바로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 6월 '불교 초자배기'를 자청하며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학장 현호)에 입학한 38명은 어느덧 기초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권 교수님과 현호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동안 불자라고 말하면서도 주위에 분들이 불교에 대해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었거든요." (김명자 · 46)

"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찰 예절도요. 가장 많이 변한 거요? 주말에 사찰을 찾으면, 주위 분들에게 절은 이렇게 하고, 스님의 법문이 이런 말씀이다 하고 훈수(?)둘 수 있게 된거요." (김현숙 · 48)

그동안 불교공부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들은 마지막까지 강의내용 하나라도 놓칠새라 칠판과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실 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직장불자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불교대학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안양시청 불자회원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한달에 한두 번 법회를 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원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퇴근 후 불교공부를 하자고 발심했고, 현호 스님(안양 지장선원 주지)의 도움으로 야간 기초교리반에 입학했다.

그 동안의 목마름 때문일까. 전체 회원 60명 중 절반이 입학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또 교리반 진행 중에도 몇몇 회원들이 속속 입학했다. 강의가 있는 수요일이면 마음이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회원부터 과중한 업무와 출장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날이면, 다음날 동료회원에게 밥을 사주며 강의내용을 전해 듣는다는 열성회원들까지. 이 같은 회원들의 열정은 불교공부라는 소기의 목적 외에도 회원들 간의 친목강화와 직장 내 불자회의 입지강화에도 크게 한몫했다.

"이곳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춰 남을 배려하니 직장생활이 원만해지고, 가정도 저절로 화목해지더라구요.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해덕(55)

"오늘 교수님께서 '무명'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모르면 계속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직장 내에서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권익철(52)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한달에 한차례 진행되는 법회와 사찰순례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직장불자들이 많은 요즘. 안양시청불자회는 깨달음을 위한 끊임없는 정진으로 다른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기초교리반의 원만회향을 자축하며 또 다른 정진을 위한 발심을 세우고 있는 회원들.

"직장불자회가 친목단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불자는 물론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탁마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안양시청불자회는 한 달간의 방학 후, 내년 1월부터 경전반을 통해 불교공부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글 · 사진/안양=김은경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제주불교산악회

자연을 법당 삼는 산악인들의 모임. 안녕하세요. 제주불교산악회입니다.

우리 불교회는 1999년 6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해 지난 11월 6일 창립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제주도 곳곳에 불씨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셋째 주 일요일 가까운 오름(작은 화산봉우리)을 올라 산상법회를 열고, 전 · 하반기 사찰순회법회 및 사찰순례를 진행하며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회는 법회이외에도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가전제품고치기, 집안정리하기 등의 노력봉사도 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 생활필수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제주시청이 운영하는 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께 무료점심공양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보다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어린 손길 하나가 더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불교산악회 회원들이 10월 24일 제주 사라악을 올라 산상법회를 보는 모습.

자연이 법당 … 산상법회 또 다른 포교

불우이웃 찾아 가전제품 고쳐 주기도

우리 불교회의 핵심적인 활동인 산상법회는 특히 일반인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제주불교산악회'라고 크게 적힌 45인승 대형버스를 타고 제주도 360여 곳의 오름에 올라 목탁을 두들이며 법회를 보는 모습. 낯선 광경이지만, 주말 혹은 휴가를 맞아 제주도 오름에 오른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무슨 단체냐고 묻고, 어떤 활동들을 하냐고 문의를 해가며 불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법회가 시작되면, 두 손을 고이 합장하고 법회에 참가해 목탁을 치고 반야심경을 외는 회원들의 목청과 활동에 힘을 실습니다. 오름 위에서 외는 반야심경이 메아리를 치며 산천 곳곳에 울려퍼질 때의 감동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불교회의 핵심적인 활동인 산상법회는 특히 일반인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제주불교산악회'라고 크게 적힌 45인승 대형버스를 타고 제주도 360여 곳의 오름에 올라 목탁을 두들이며 법회를 보는 모습. 낯선 광경이지만, 주말 혹은 휴가를 맞아 제주도 오름에 오른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무슨 단체냐고 묻고, 어떤 활동들을 하냐고 문의를 해가며 불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법회가 시작되면, 두 손을 고이 합장하고 법회에 참가해 목탁을 치고 반야심경을 외는 회원들의 목청과 활동에 힘을 실습니다. 오름 위에서 외는 반야심경이 메아리를 치며 산천 곳곳에 울려퍼질 때의 감동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불교회는 앞으로 제주지역 내 산악인들은 물론, 전국 산악인들과 연합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동반산행 등을 개최해 외국 불교산악회들과의 교류 · 협력을 통해 보다 넓은 세상에 불교메아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김만국 회장

11월 27일은 '사회봉사의 날'

공불련



한국공부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 · 사진)가 11월 27일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서울 · 경기지역 회원 50여명과 함께 서울 구로동 '브니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정신을 사회 곳곳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청소와 빨래 등 노력봉사와 함께 '장애우 친구들과의 나들이'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브니엘의 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임을 감안, 회원들로부터 쌀과 생필품 등을 보시 받아 전달할 계획이다. (02)739-1080

무료 중국어 강좌 열어

경찰청불교회



경찰청불교회(회장 박재진 · 사진)가 11월 15일부터 매주 월~수요일 오후 6시 경찰청 법당에서 무료 중국어(북경어) 강좌를 시작했다.

불교회 회원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어 강좌를 통해 경찰청 내 직원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김남규 선생의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교재는 <베이징중국어 40(기초합본)>가 사용되며, 경찰청 직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김남규 씨는 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지난 33년간 KBS에서 중국어 아나운서로 활동한 심신 있는 불자이다. (02)313-0815

갑신년 冬安居 결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야산 청운큰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수행 정진하실 갑신년 동안거 결재 동참 대중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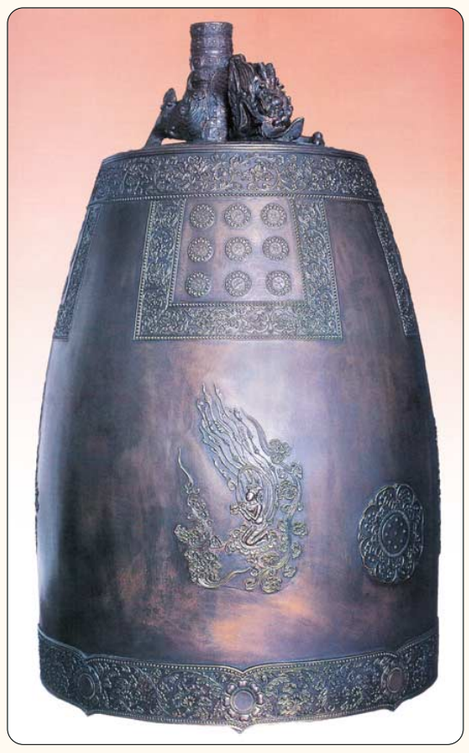
- **결 재 :** 불기 2548년 11월 26일(음 10월 15일)
- **해 제 :** 불기 2549년 2월 23일(음 1월 15일)
- **입방자격 :** 참선수행에 원을 세운 남녀, 누구나
- **신청기간 :** 불기 2548년 10월 부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접수
- **접수문의 :** 취운선원 종무소 055)383-6479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96

※ 자세한 내용은 취운선원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재기간 매주 특별 참선 법문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certificate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1.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불교 각종 행사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
010-4816-645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점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신묘한 구성학
사주없이 간단한 숫자만으로
래방객의 래정 및 처한
상황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성학을 개인지도함
(출장가능)
02)2274-0443
019-446-4755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충남 서천군 법정사 약사도량
우연 득병 누일 신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약사부처님의 가피로 의구태평하십시오
010-3953-3453

신축 사찰 함께 불사할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0-9657-9595
(24시간 상담)

가족을 찾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평생도반으로 탁마하며 수행하고 싶은 비구승입니다
(나이제한은 50~65세)
016-562-3533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첩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치 질 치 루
- 치열이 있는분
- 통증이 심한분
- 재발이 잦은분
- 한방비법과 운동요법으로 완전 정복함

(스님들께는 특별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054)336-0052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공양주보살님 및
행자스님
모십니다
▷동해사
033)672-2900

지장보살님의 가피받은 도량
한국전통계르마늄 황토집에서
60세이상 불심있는 평생 인연을
기다립니다. 석굴암 108평 지장보살
삼천불 불사도량 천하명당 지장
도량에서 여생을 보내십시요.
선착순 2명한정. 자세한 것은
전화 직접 방문 환영
054)751-4088

종무소 직원 및
교학처장(포교사가능)
숙식가능한 50세 전후의
남자 불자님을 모십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지역
010-9766-2220

수행 비구니스님 및
행자모십니다
▷나이 : 20 ~ 40세
부산 시내 포교원
018-801-2355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림사
011-416-9902
02)919-0480

50세이상
부전스님
구합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포항시 근교
011-825-6909

비구니스님초청
암자나 포교원을 자신있게
평생 운영할 비구니스님은
연락바랍니다
019-9108-0909

기도스님
모십니다
031)719-04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이후)
▷대구
010-4667-0715

대원불교대학
9기생은
연락바랍니다
문경 개운사 주지 손우옹
054)571-0582
054)571-5351

공양주보살님
행자모집
011-259-5989

탈종공고 정정안내
서대문구 현저동 **영천사**
주지 **나영식(羅永植)**으로
정정하여 탈종을 공고합니다
(등록번호 : 01-3234)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19-211-8533

화주보살 구합니다
02)952-7277

기도하시면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릉
033)661-5878

팔공산 운부암 신비한 맥반석 약수
37일 성취기도 도량 **(3일, 21일, 100일)**
사법고시생 환영. 온돌방 20개
1인 1실. 보시금 25만원(1달)
자동차(오토) 보시할 분
장애인 차량 불문
053)985-6630
011-9554-6900

상가안내
- 위치 : 제천시 신백동 극동아파트 상가 지하
- 평수 : 50평 (현재 비어있음)
- 시내 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6천 5백만원

011-9058-2264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예천 용문면 마을에 위치 시내에서 10분 거리
- 대지: 150평 임법당, 방3개, 목욕탕2, 부엌
- 가액: 3천7백만원

011-9581-9390

토굴터안내
- 위치: 용문에서 승용차로 5~10분 거리 산중턱
- 대지: 380평

019-691-0056

토굴안내
- 위치: 경주 영천 10분거리 교통매우편리, 공기청정, 지하수 조용함
- 대지 120평, 임법당 15평, 방4, 구옥1동
- 가액: 5천만원(전세도 가능)

011-9211-6385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대표 박천호 합장
016-258-6124 / 02-996-8830


부처님등불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1개월 완성반(주간, 월~금)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 (본학회 회장)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 (최고시설완비)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임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공 사 범 위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각분야의 전문 기능인들은 2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입니다.
생활속에 불편하신 모든 건축문제는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불심으로 모여 작은 일에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TEL. 02)476-8139
H · P 011-9720-1443
대표 윤재만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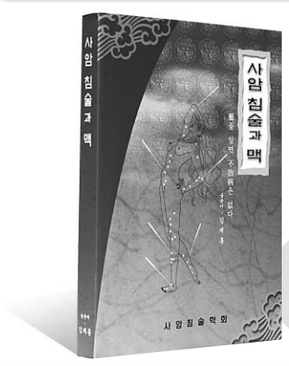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의 맥

침술인의 필독서(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김재홍 저
505쪽 신국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4. 12. 1.(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000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위치: 강원
- 임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원
- 공부하는 스님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3억 / 5억 / 10억
- 경기도 : 7천 / 8억 11억 / 13억
- 서울. 수도권사찰. 사찰터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부평동 롯데백화점 부평시장 2분거리
- 특징 : APT밀집, 포교최적지, 시설완전구비됨 (시설비 5천 무료보시)
- 평수 : 3층 – 법당 50평 2층–요사채 50평
- 가액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세 90만원

현대불사 018-267-0988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청 사거리 (지하철 4호선에 3분거리 대로변)
- 법당: 45평. 기본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3백만원에 월 60만원

02)996-5515
010-7197-7485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포 교 당 안 내

- 서울 140평 전세 1억 5천
- 인천 32평 전세 4700만원
- 시설비 없음
- 서울 80평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80만원
- 시설비 약간
- 요충지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암자안내(작은)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70평, 건평: 40평(무허가)
- 가액: 7천 5백만원
- 즉시입주가능

051)643-4109
055)323-2858
011-9542-5726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홍재 전철역 부근 10분거리 상가건물 1층
- 평수 : 약 50평
- 전세 : 3,206만원 시설완비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2)3216-1118
017-766-278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7천 5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시내 명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목재)
- 요사 : 100평(3동)
- 양도가 : 5억 5천
- 산세 및 계곡 절경임

- 위치 : 경기도 양평 용문
- 부지 : 5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6500만원
- 산세 및 교통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삼천포에서 5분거리
- 평수 : 종교부지 120평 기타 300평
- 산수좋고 경관수려한 30년된 암자
- 가액 1억 5천만원

011-564-901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포성동 20년된 사찰 시내중심가
- 1층 요사채 방2, 주방 약 20평 2층 법당. 약 18평
- 가액 : 5천(은행융자 3천 별도)
- 집기 일체 양도

018-502-808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4층 중 2층
- 방 3개 주방1, 화장실 1 총 70평(법당 3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011-822-61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 120평, 밭200평
- 법당 : 30평(삼존불,각단탱화)
- 건물 : 요사채 18평(방 4개)
- 특징 : 불심있는 지역임
- 가액 : 1억 7천만원 (답사 후 가액 조정 可)

011-9576-1648
054)832-164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치악산 하)
- 부지 : 880평, 대지 : 150평(합 : 1,030평)
- 법당 : 30평, 삼성각 7평(용왕당)
- 요사채 2동 (30평, 15평) (목조단청)
- 가액 : 3억 8천만원

※ 산자수려하고 치악의 산맥이 뻗어 분출하는 전통사찰입니다

033)731-6612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 인구 60만 대구달서구소재
- 건물 : 3층(70평)법당30평 방 4개
- 특징 : 8차선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교통)
- 가액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70만원(시설비 : 답사후 상의)

011-9366-892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로변
- 3~4층 (방8개) 총 135평 옥상 80평 (노상법가능)
- 특징 : 최고의 위치,시설(시민선방, 불교대학,대중포교당으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 5천만원(시설비(권리금)포함)

053)745-3334
017-501-73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 대지,법당30평 요사채50평, 텃밭
- 가액 : 1억 4천만원

054)372-8734
011-9382-4782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전철역 5분거리)
- 전세 1억, 월세 5천30만원
- 법당 25평, 산신각, 지장전 화장실 3개, 방 6개 공양간 15평, 대지 300평

02)939-0221
017-736-3567

지리산 깊은 산중 사찰

- 기운이 장하고 전망이 웅혼하며 맥반석계곡에 접한 동남향 명당터. 무문관 수행이 가능한 4개의 방사와 법당 외에도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황토방이 설치된 여러채의 건물에 총 15개의 방사와 1000여평이 넘는 부지. 만오천평의 임야, 아래마을까지 2.5키로, 일체의 소음없고 청정한 기도, 참선도량 ● 가액 : 5억원

010-6398-5730/011-9136-131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30평
- 금액 : 2억원(절충가능)

011-9543-022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서천면 태백산 줄기
- 건물(임법당) 30평
- 방3개, 삼야전기보일러 주위도로 포장되있음
- 전 : 4500평
- 가시오가피 1만주, 헛개나무 500주, 엄나무 600주
- 선방이나 기도처로 최적지 산수좋고 경관수려
- 가액 : 3억 5천만원

011-776-556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시내
- 평수 : 600평
- 법당 : 25평(전통목재)
- 요사채, 방 5개
- 지하수 및 주차장 완비
- 가액: 2억

011-563-0108
055)222-948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정 2동
- 평수 : 2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함께 쓰실 수 있음

055)672-2689
011-816-3289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청옥산 자락
- 평수 : 815평 ● 대지 ● 건물 : 조립식 주택 40평
- 가액 : 6,400만원
- 특징 : 솔밭 약 200평, 밭 약 400평 마당 및 가옥 약 200평, 해발 700m 경치 수려한, 암자 적지. 세속에 가까우나 세속을 떠난 신선감 넘치는 명당자리

011-9638-4462 / 011-361-0230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동 진주 I·C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법당목조 : 12평 요사 벽돌 : 25평
- 가액 : 8500만원

016-652-7547

암자안내

- 위치 :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 건물 : 30평 대지 : 109평
-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4천만원

017-371-232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 평수 : 총 1000평
- 법당 : 20평 (전통 목조, 단청 필)
- 종각, 탑, 석불

055)933-8290

사찰안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10평
- 가액 : 2천만원

043)534-335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사찰 (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비슬산 현풍 근교)
- 평수 : 120평(하천부지 500평)
- 건물 : 1층(요사채,큰방4, 목욕탕,창고,부엌(다용도실)
- 법당 : 23평(2층), 큰방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물이 좋음
- 가액 : 9천 5백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7163-196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땅 : 1000평(등기상) 과외로 3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2동 종교부지, 시설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3억(절충가능)

017-403-66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합천댐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암자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대로50m)
- 구조 : 단층 건물 독채(아파트 밀집지)
- 시설 : 법당(석가,관음,지장,후불탱화, 신중탱화,약사불탱화,인등설치,영가단)
- 승방, 거실, 주방, 창고 산신당, 세면장, 수세식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1-768-1355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신암 2동 칠성시장 근교
- 평수 : 42평
- 정통한옥, 즉시법회가능, 시설완비
- 가액 : 1억3천만원 (절충가능)

011-534-255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불교용품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어시장
- 평수 : 7평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절충

019-546-9614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 600평(대지 402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7층석탑, 삼성각 10평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143-0098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단구동
- 대지 : 51평 건물 3층, 요사채 30평
- 2층 법당 20평 3층 삼성각 10평 108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52)293-7025
019-292-702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3평, 전 : 33평, 법당 : 20평
- 법당내 108소불,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탱화 등 영가단 설치 최고시설(즉시법회가능)
- 요사채 : 1동,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내 2개, 옥외화장실 3개, 창고1개, 대형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817-402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송현동 월촌지하철역 1분거리
- 4층건물 4층
- 평수 : 53평
- 법당,방2개,공양간,다용도실,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 1천7백만원

011-503-1090
016-869-245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5)303-7477
011-9338-7447

사찰 (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덕: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왕진면
- 평수 : 2천평
- 앞이 트인 동남쪽 야산으로 맑은 계곡이 흐르고 마을에서 차량으로 3-4분 거리

※ 납골당, 기도원으로 적합

- 가액 : 1억 1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김해 한림정 토굴 및 포교원

- 주택단지, 방2, 주방, 창고방1
- 과수원(700평) 포함 전세 1천만원

016-9646-0578
064-784-3810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 상가주택 대지 8m×6m 코너 절
- 평수 : 113평, 건평 120평, 1층 상가 4개, 2층 사찰 대웅전 25평, 스님 방겸 큰방 3개, 후불순금탱화, 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 5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순금 4자 반, 삼신불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자신있게 갖춘 도량
- 가액 : 4억 8천중 잔금 2억 7천만원이며 등기완료
- 좋은조건 : 매월 상가, 임대료 1백 50만원 나옴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포교요충지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11-650-8481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최요지 포교당임)
- 대지(면적): 103평
- 건물(시설): 지하 1층(30평 공양간) 지상4층
  1층 44평 종무실 다실 상담실
  2층 45평 법당
  3층 45평 전불전
  4층 40평 요사채
- 주차장완비, 전기 냉,난방 심야
- 가액: 9억2천만원
- 기타: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1-526-2975
016-515-2369

별장식토굴(연산원)

- 위치: 경남 마산 시청에서 승용차로 30분거리
- 대지: 136평. 뒤 죽림가 산
- 건물: 법당1, 방6개, 주방2, 해우소, 욕실2개, 다용도실, 통나무 휴개실, 창고기타시설 완비
- 특징: 산세수려, 공기, 물 최상. 교통편리, 차진입 우량. 불심깊은 노부모를 모실분 또는 은사님 모시고 효도하며 사찰이나 생활불교 하실분 최적 온천 승용차로 10분 거리
- 환경: 별장식 정원 잔디
- 조건: 가재도구 침구 일체, 비품모두 제공 방문하면 충분히 만족함
- 가액: 1억3천

055)583-1418
011-578-1413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 평수 : 42평(4층 건물 중 4층)
- 법당 및 방 4개,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4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 1천8백만원

031)338-1356
017-372-896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상가주택 역세권
- 평수 : 약20평, 큰방2, 주방1
- 삼존불, 108 지장 소불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합 1천 8백만원 포교원 확장이사로 싸게 매매함
- 철학관 하실분 환영. 약간의 보시금으로 평생 절에서 함께 사실분 불사 운영할분 포교원 확장이사 불사중

016-261-2068

불교생태철학 기초 세울 총론 나왔다

김종욱 씨 '불교생태철학' 발간… 정의 · 구조정립 · 불교적 성찰 등 담아

"대승불교의 핵심인 연기 · 공 · 자비는 각각 상호의존성 · 비실체성 · 상호존중성으로 해석됩니다. 이 도식을 불교생태철학의 기본 구조로 삼아 불교생태철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타인은 물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불교를 환경위기 극복의 사상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면밀한 근거 찾기와 방법론 정립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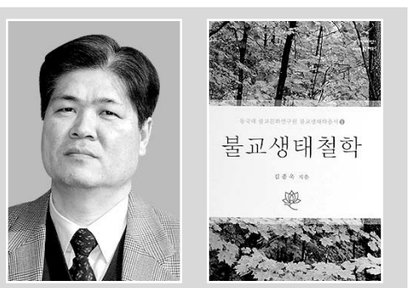
이런 시점에 나온 김종욱 박사(44 · 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생태철학>은 불교생태철학을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김 박사는 오랫동안 불교 현대화를 화두로 불교사상과 서양철학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고, 동국대 불교생태학 특성화추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

이 책은 김 박사가 최근 1년 동안 발표한 자신의 불교생태철학 관련 논문들을 묶고, 보충 집필한 것으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 기획한 불교생태학총서 첫 번째 책으로 나왔다.

불교생태철학의 기본 구조 정립과 아울러 생명의 불교생태학적 정의, 자연의 도덕적 지위,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불교적 성찰 등을 담아 불교생태철학의 총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각론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불교생태철학 연구 초기인 만큼 총론 마련이 시급했다"며 "불교학과 철학, 그리고 생태학의 학제간 연구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종욱 연구교수(왼쪽)의 저서 <불교생태철학>은 불교학 · 철학 · 생태학의 학제적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불교학과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를 전공한 그가 불교생태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5년 전. 모 대학에서 환경윤리 강의를 맡은 게 계기였다.

당시 환경윤리 분야에서 유명세를 타던 저술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해 있었던 것. 이때 불교적 관점을 도입한 불교생태철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후 동국대가 지난해부터 가동한 불교생태학 특성화 추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불교생태철학 연구를 본격화했다.

책은 5부로 구성됐다. 제 1부 '불교생태철학의 기초'에서는 생태계의 기본원리인 상호의존성, 순환성, 항상성을 연기성, 불생불멸성, 부증불감성으로 해석함으로써 기본적인 개념을 정초하고, 생태계의 문제와 해결 과정을 사성제로 풀어낸다.

또 제 2부 '불교생태철학의 전개'에서는 불교의 중생관에 담긴 상호의존성을 규명하는 한편, 동물해방론 · 생명중심주의 · 생태중심주의 등 서구의 다양한 환경윤리의 한계 극복에 불교사상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1 · 2부가 기존 논문을 모은 것이라면, 제 3부 '근대성의 성찰과 불교생태철학'은 저술의 완성도를 위해 보충집필한 부분이다. 저자는 과학 · 시민 · 산업혁명으로 형성된 서양 근대 사상의 실체적 사유와 합리성의 맹점을 불교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제 5부 '불교학자와 생태학자의 대화'는 앞의 논문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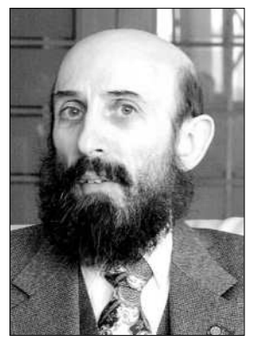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평이한 대화를 통해 불교생태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 박사는 "'상호의존성' '상호존중성' 등을 심도 깊게 다룬 각론 성격의 저술과 '생태계 존중을 위한 불자생활수칙'과 같은 세부 행동지침서를 개발해 불교생태철학이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죽음학 대가 칼베커 교수의 '죽음 교육'

"죽음을 잘 배워야 잘 산다"



현대교육 죽음 외면 범죄 · 인간 소외 증가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라고 말하던 이들조차도 그런 경험 후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자문하게 되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11월 12일 천안 선문대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 추계 학술대회에서 '현대문화와 학교에서의 죽음 교육과 종교'를 주제로 강연한 일본 교토대의 칼 베커 교수(사진)는 죽음학(Thanatology)의 대가답게, 죽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베커 교수는 "우리가 누군가를 잃고, 혹은 우리 스스로 죽음에 대비해야 하는 순간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지만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지 현대교육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죽음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죽음 교육의 효용에 대해 베커 교수는 "범죄 · 자살 방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 비용절감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죽음을 기다리며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베커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죽음 교육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2005년에 400만 달러 규모의 죽음 교육과정 개발 예산을 책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죽음교육이 높은 자살률, 범죄율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베커 교수는 "한국 또한 죽음교육이 필요하다"며 "한국문화에 입각한 한국적인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커 교수는 또한 "죽음 교육에 부처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된다"며 "불교는 원죄와 같은 말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윤회 사상으로 죽어가는 이에게 심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며,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1급으로 격상 · 기능 강화 시급"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상 올리기 나서
국제학술좌담회서 '국립문화유산원' 제안

1969년 문화재연구실로 출발, 35년 동안 국가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아온 국립문화재연구소. 하지만 역할에 걸맞지 않게 소장은 3급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침묵을 지키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위상 격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 이하 연구소)는 1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급 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를 1급 기관인 '국립문화유산원'으로 격상 △국립문화재종합병원 신설 △조직 확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 쉬인 '안'을 공개한 데 이어 12일에는 대전대덕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문화유산 연구기관의 연구기능 활성화와 효율적 체계수립'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좌담회에서는 그 '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학술좌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도시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가속화 △근대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유산 개념 확대 △비지정문화재 보존 요구 증대 △역사문화환경 보존 개념 등장 △문화유산보존 시민운동 활성화 △문화유산 조사 · 연구법인 증가 등을 주된 환경변화로 꼽았다. 이어 김 소장은 그에 따라 연구소는 △연구기능 강화 △문화권별 조사연구기능 활성화 △정책연구기능 신설 △연구소를 문화유산 보고(寶庫)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국제문화유산연구기관의 연구기능활성화와 효율적 체계수립' 주제의 국제학술좌담회 토론시간. 왼쪽부터 김봉건, 배기동, 신창수(사회) 안휘준(서울대) · 이강승(충남대).
사진제공=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와 관련, 김규호 공주대 교수는 "국내의 기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재 조사, 연구 및 보존 프로그램을 운용해야한다"며 "동아시아 문화재 공동연구 및 외국 소장 한국 문화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용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현행 보존처리실을 확대 개편해 문화재 보존 · 수리 · 복원 전문기관으로 육성시켜야한다"며 "국립문화재 종합병원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폭증하는 발굴조사 관련해서는 "발굴 기술 연구 및 보급 · 교육 기능을 갖춘 매장문화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발굴기관을 통합하고 지도감독하며 교육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1문화재 1지킴이' 본격화
문화재청, 신규모집 등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시행 의사를 밝힌 바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전운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본격 추진해갈 것임을 밝히고, 문화재지킴이 신규모집 및 활동 사례 수집에 들어갔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자격제한은 없다. 개인 · 가족 · 단체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 문화재를 지정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www.ocp.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상태 모니터링, 문화재주변 청소 등 정화 활동, 문화재 소개 등 홍보 활동, 문화재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박익순 기자

해외소장 한국전적 문화재
웹 서비스 개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최근 해외 소장 한국전적 문화재현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해외소장 한국전적문화재 자료관'(koreanbooks.nricp.go.kr)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되는 자료는 한국서지학회와 해외전적조사연구회가 1991부터 2001년까지 미국 · 일본 · 프랑스 등 3개국 10개소에 소장된 한국 전적문화재 6,500여종 26,700여 책을 조사한 결과로, 편저자 · 판종 · 간행년도 · 서발(序跋) 등의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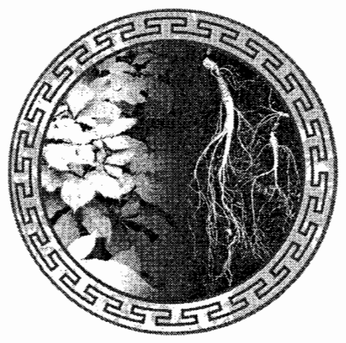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외 소장처와 협의해 중요자료에 대한 원문자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기사 넘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은 쉽니다.

공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오가피 묘목분양 오가피 묘목분양 상담 공장 및 농장견학회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

장유화상 칠불 후불 탱화 점안 및 문화원 개원 법회

卍 함께하는 법회 卍

귀의 삼보하옵고
만등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최초로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고 칠불을 탄생시킨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지인 김해
20만 불자들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사)가야불교문화원이 완공되어 보옥국사 장유화상과
칠불 후불탱화점안 및 문화원의 개원법회를 다음 일시에
봉행하오니 일생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뜻 깊은 법회에
동참하여 행복이 넘치는 법회가 되게 하소서

불기 2548년 11월 일
(사)가야불교문화원 사부대중 일동 합장

■ 법회일시 : 불기2548년 11월 28일(음력 10월 17일)
일요일 점안식 오전 10시
■ 법회장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사)가야불교문화원



(사)가야불교문화원 055)322-0088, 322-1675

일주문



동국대 경주 정각원 정기법회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은 12월 1일 경주 정각원에서 '현대생활에서 보살사상의 재조명'을 법제로 정기 법회를 개최한다. (054)770-2016



금오종학사회복지관 무료진료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장 법등 스님은 순천향병원과 공동으로 11일 20일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건강진료와 경로잔치를 실시했다.



동림회 제 7대 회장에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1월 9일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동림회 정기 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 승보회장 새 회장 선출

광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은 11월 14일 광주지역 조계종 사암 주지스님들의 모임인 승보회 차기 회장으로 재임됐다.



불교대학 학장연합회장

창원 불지사 불지수다라불교대학장 정인 스님은 11월 15일 전국 불교대학 학장연합회장 회의에서 임기 2년의 협회회장에 재선임 됐다.



한국종교교육학과 5대 회장에

동국대 불교대 김용표 교수는 11월 12일 선문대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불청 서울지구 회장 선출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는 11월 16일 제27차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14대 회장에 현일환 씨를 선출했다.

전각가 안광석 씨 별세



전각가 안광석 옹(사진)이 11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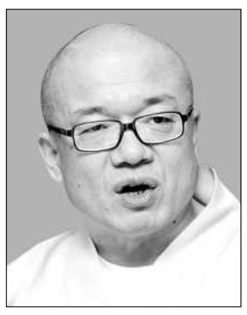
경남 김해가 고향인 안광석 옹은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중 한 명인 오세창 선생의 문하에서 금석문과 전각을 사사했다.

194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수지하기도 했던 안광석 옹은 <화엄연기>를 비롯해 금석학과 중국 갑골학에도 능통해 <중국 문자의 기원> 등 저서 9권을 남겼다.

또한 <범자 반야심경> <의상대사 창건 십찰고증> 등 9편의 논문을 냈다.

"교육불사로 한국불교 세계화 견인"

경기 화성·美 뉴욕에 정규대학 설립 지광 스님



"능인선원의 국내외 정규대학 설립은 인재를 통한 교육 불사만이 한국불교를 세계 속에 꽃피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대작불사입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사진)은 11월 15일, 경기도 화성시와 미국 뉴욕주 턱시도 인근에 정규 불교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는 능인선원이 설립한 한국불교학원의 '능인국제불교대학원대학(가칭)'이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부지매입과 시설 설계 용역 등을 끝마친 상태. 올해 말 부지사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공식을 치를 계획이다.

"미국에 알려진 한국불교는 흔히 선이나 명상이 대부분입니다. 교학체계를 갖춘 학문적 측면에서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미국 뉴욕주 턱시도인근의 스터링 호수가에 2600평 규모의 연구소 건물을 새로 매입 했다.

이곳에는 2009년 경 학부과정을 가르치는 '세계불교대학(World buddhist college)'이 문을 연다.

지광 스님은 "이미 티베트(하와이대), 대만 (LA서부대), 일본(샌프란시스코 불교학 연구소) 등 다른 불교권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미국에 자국의 불교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불교는 이러한 불교교육기관이 없다"며 앞으로 세워질 대학이 한국불교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되기를 서원했다.

경기도 화성에 설립되는 대학원 대학은 본관, 도서관, 수련원, 강의동, 기숙사, 100만불전 등이 모두 갖춰지면 한국불교문화센터와 능인불교대학을 졸업한 전문 포교사 양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100만 불전은 태국과 미얀마 등의 백만불사원에서 착안한 것으로 총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대작불사의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지광 스님은 이 같은 계획을 27일 잠실시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25만 능인선원 신도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02)577-5800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조계종 포교대상 동춘 스님

특별상 좋은벗풍경소리·손안식 씨



동춘 스님



성행 스님



손안식 씨

제 16회 포교대상에 부산 내원정사 조실 동춘 스님(원로의원)이 선정됐다.

포교대상(종정상) 수상자인 동춘 스님은 투명한 재정 운영, 공사가 분명한 사찰 경영, 선원 운영에 필요한 불사 등에 매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효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밥톨이와 얼짱이의 효도 뚝딱> 등의 책 60여만부 발행, 전국 초등학교 및 불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군법당에 무료 배포한 공적이 인정됐다.

동춘 스님은 1956년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71년 선암사 봉암사 각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밖에 공로상에는 '좋은벗풍경소리(회장 성행)'와 손안식(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씨가, 원력상에는 법일 스님(향적사 주지) 배영진(대한불교청년회) 김순경(제 25교구 봉선사 신도회장) 장현재(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총장) 조홍인(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이차환(포교사단 환경특별위원장) 김윤봉(제 17교구 금산사 신도) 씨 등이, 특별상에는 철우 스님(통도사 아르헨티나 포교당 고려사 주지)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3시 조계사.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산하학교 전체 발전 노력"

회당학원 새 이사장 휴명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19대 이사장에 휴명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회당학원은 11월 18일 제33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12월 18일 자로 임기가 끝나는 진당 정사 후임에 휴명 정사를 선출했다. 휴명정사는 자신의 이사 잔류임기 2년 1개월 동안 회당학원 이사장을 맡는다.

휴명 정사는 1981년 득도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교화활동을 시작한 이래 응화심인당 주교, 유가심인당 주교, 혜원심인당 주교를 거쳐 97년부터 현재까지 신덕심인당 주교 겸 대전교구청장으로 있다. 또한 진각종 교육원 교육부장, 통리원 재무부장, 교육원 교법부장, 총인 사서실장을 역임하고 89년부터 7, 8, 9, 10, 11대 종의회 의원, 89년 제10대 종의회 의장, 97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 2002년 31대 사감원장을 지내는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범국민직지회 명예총재 추대

박병선 박사



'직지심체요절'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임을 밝혀내는데 큰 공헌한 박병선 박사가 11월 15일 직지 찾기 모임인 범국민직지회(회장 박충일)의 명예총재로 추대됐다.

박병선 박사(사진)는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를 나온 후 55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직지와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내 고증함으로써 세계 인쇄사의 역사를 뒤바꿔놓았다.

22회 불교아동문학상 수상

동시작가 최만조 씨



원로 동시작가 최만조(70·사진) 씨가 제22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1988년 부산불교문인협회를 창립하는데 앞장 선 최 씨는 95년 부산아동문학인협회 회장, 98년 부산사하문인협회 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99년 부산 신촌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했으며 그동안 동시집 <을숙도 아이들> <농악소리> <아파트에 내리는 비> 등을 통해 서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동시를 발표해 왔다. 시상식은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유심' 신인문학상 당선

현대불교 임연태 편집부장



"가장 훌륭한 시인은 바로 부처님이죠."

본지 임연태 편집부장(사진)이 2004 유심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목련을 화사한 감각으로 묘사한 '목련'을 비롯한 5편.

심사를 맡은 오세영 시인(서울대 교수)은 "사물을 통해 인생론적 진실을 깊이 있게 통찰한 '일주문'과 '배롱나무 속 소나무' 등의 시가 특히 눈길을 끈다"며 "우리 시단의 좋은 재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1989년 불교계 언론사에 발을 들인 후 시업(詩業)과 생업을 병행하며 시심(詩心)을 키워왔다. 가끔 아침 일찍 출근해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어록을 즐겨 읽는다는 그는 "시의 최종지향점이 부처님 가르침과 닿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교시라고 생각한다"며 "감동만 주는 시가 아닌, 깨우침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시를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2회 대원상 시상식 열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11월 19일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 2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스님과 김연호(제천 진주동물병원장) 씨 등을 비롯 수상자들과 축하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동산반야회 창립 22주년 기념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창립 22주년 기념법회 및 '동산불교한마당'을 11월 13일 동산불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옥부처님 점안법회와 미술전, 바자회 등을 겸한 이날, 학장 무진장 스님을 비롯해 붓다클럽 안동일 총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형상에 붙어있지 않고 대 자연에 감춰진 부처찾아 견성도통하는 법

지구촌에 천지 개벽시대가 오고 있다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UR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天用眞人·泰日大師 作品

앞서가는 도통군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2005년 UR시대에 도전 학력·경력·남녀노소, 연령 초월 유망직종 사명자 대법회

선촌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미륵달마도법으로시작되는 양 12月6이 자시와 7일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가 바뀌는 종교시대에 새로운 미륵달마 진법으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경신입문한 공덕으로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큰 힘을 얻는 대용맹정진 수행인 이 상서로운 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며 동참한 모든이들에게 특별 돈부 달마 선물을 드립니다. (부자되는 돈부달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만병의 치매,중풍,관절,당뇨병,혈압,비만 질병을 이기는 사혈침법 으로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는 의통능력 직강

2005년 을유년 UR 지구촌 개벽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하여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의통능력과 퇴치능력법만이 삼시구충을 제도하므로 육경신 도통회로 모든 종교법이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어다. 이 법은 역대도인들과 복희로부터 요, 순, 우, 탕, 선천, 후천, 진시왕, 황무제, 관운장, 원효, 의상, 도선, 진묵, 서산, 사명, 방한암, 탄허, 윤고암선사들께서도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종주도 된 것이며 오늘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만이 살아남을 것이요, 하늘빛 庚자와 귀신우두머리 申자에 귀의하여 중생들에게 기근에 맞는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잡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노라.

경신도통과 무극대도란 무엇인가

1)천안통 2)천이통 3)타심통 4)신족통 5)숙명통 6)누진통 등이고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60년에 환갑이 돌아오는 것과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생명이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자리는 천주교, 기독교, 유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수마만이기면 득도하는 수행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여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일경 즉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알아 들을 수 있는 기도중의 기도가 용명정진 경신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신비의 기도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 민족의 만고에 역적인 반고에 사용하였던 신장기졸의 위계를 몰수하고 황천의 길을 틀어막는 태을경과 옥추경을 갑신년 제6회경신일 정오에 폐기한다. 당신은 이기회에 견성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침식무료 제공 .•당일 교제대 : 평생연구재료 일금 5만원

특별상담 학업, 성명, 직장, 결혼 특별 운명상담

● 입제 : 양력 2004년 12월 6일 월요일 음.10. 25 (해시)

● 해제 : 양력 2004년 12월 7일 화요일 음.10. 26 (해시)

02)821-6622 /821-7767~8 1박 2일

016)239-3110 / 010-3292-3110 / Fax 02)821-7768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동작구 약사회 골목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불자 세상보기

정 병 모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오래된 마루

종묘에는 왕이 다니기 위해 깔아놓은 어도가 있다. 그것은 얇고 넓적한 박석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종묘 안에 관리사무소를 새로 만든다고 크레인으로 이들을 짓밟아 50여장이나 깨뜨려 놓았다.

이 일이 신문에 보도되자 문화재청에서는 이들 박석이 1984년에 보수하면서 새로 놓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종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경주생활 중에 즐겨 찾던 곳이 있다. 바로 기림사의 대적광전이다. 이 전각에는 모셔진 삼신불의 위용이 사람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배경으로 삼은 탱화도 일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이곳으로 자주 이끄는 것은 신발을 벗고 디딜 때 느껴지는 마루의 생생한 감촉이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짜릿함. 그것은 조선시대, 그것도 후기의 건축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촉이다.

거칠지만 생동감이 강렬하고 울퉁불퉁 투박해 보이지만 빈틈없이 짜여진 그러한 마루였다. 그런데 7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해체수리를 하면서 옛 마루를 새 마루로 바꾸었다. 강렬한 역사의 에너지를 내뿜는 마루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 거실처럼 말끔한 마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낭패인가? 종묘의 깨진 박석 소식을 접하자 기림사의 아물어 가는 상처가 다시 도진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불국사 대웅전의 마루는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는데 여념이 없지만, 나는 슬며시 대웅전에 들어가 마루를 온몸으로 느껴본다.

이것은 분명 조선시대 후기의 거칠고 생명감이 넘치는 감각이다. 이 짜릿한 전율은 나로 하여금 줄곧 우리 미술에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다.

오래된 마루를 밟으며 즐길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다. 중국도 목조건축이 많지만 의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마루 위를 걸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 일본의 오래된 사찰을 방문하면 마루를 밟는 색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은 무언가 깔끔하면서 달콤한 느낌이다. 조선후기 사찰의 마루에서 경험하는 투박하면서 강렬한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 발끝으로도 충분히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질감, 그것은 문화재를 보수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나무를 자귀로 거칠지만 멋있게 다듬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솜씨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쉽게 공사를 끝낼 심사인지 거친 것을 아무런 고민 없이 손쉽게 고운 것으로 뒤바꾼다. 그러니 옛 맛이 살아날 리 만무하다.

돌도 마찬가지이다. 경주에 있는 나원리5층석탑을 보자. 이 탑은 8세기 전반의 준수한 석탑이다. 신라시대에서 보기 드문 5층탑에다 그 규모도 제법 크다.

그런데 이 탑도 언제가 보수를 한다고 헌 부재를 빼내고 새 부재를 끼어 넣었는데, 이 역시 정성스런 손길은 찾을 길이 없다. 그 옛날 신라의 석공처럼 한없는 시간동안 정으로 하나하나 쪼는 것이 아니라 그라인더로 순식간에 갈아버린 것이다.

보수한 탑에는 신라다운 정취보다는 세월을 잃은 기계냄새가 탑 주의를 진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구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우리들은 위에만 관심을 쏟고 바닥에는 무심할까? 왜 우리들은 쉽사리 새 것으로 바꾸고 질감에는 그토록 무신경할까?

발끝에 전해지는 전율이 점점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바뀌어 간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해외에 세우는 한국불교대학

한국불교가 해외에 불교대학을 설립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능인선원과 하와이 무량사로부터 들려온 이 소식은 그 동안 많은 불교국가들 중에서도 내로라하는 교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라 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불교의 발전에 큰 전기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한국불교로서만 독야청청 길이 남을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세계와의 공감 속에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결국 한국불교도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이념을 제공하는 종교들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불교 또한 세계화의 길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한 노정 가운데서도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이 학문과 지식의 전당인 대학의 해외설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불교대학의 설립을 단지 한국불교의 수출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해외 불교대학은 세계의 여러 사상 조류와 종교, 다른 나라의 불교의 흐름을 그 현지에서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의 산실이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해외 포교가 한계를 지녔던 것도 한국불교의 독특성만을 고집해온 점에 큰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시금석 삼아, 한국불교의 독창성을 세계적인 보편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학의 설계를 짜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능인선원의 예를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점에 대한 우려를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국내 포교사에 일대 전환을 이룬 지광 스님의 혜안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이 세계의 미래에 밝은 빛을 던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출발, 거기에 거는 천만 불자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원만한 성취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수능은 끝났지만…

한 수행자가 경청 화상에게 물었다. "저는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와 같으니 부디 화상께서는 밖에서 껍질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잘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 제가 밖으로 잘나오지 못하면 스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그러자 화상이 그를 질책했다. "예끼, 이 멍청한 놈!"

〈벽암록〉

이 이야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일러주는 선사들의 '줄탁동시' 화두다. 줄탁은 스스로 깨치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목숨을 잃고 마는 병아리처럼 공부도 스스로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 즉, 부모나 스승은 안에서 치열하게 공부(수행)하는 병아리를 격려할 뿐 부모와 스승을 위한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11월 17일 고3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치러졌다. 12년 동안의 공부를 평가받는 결정적 순간이었을 것이다. '공부(工夫)'라는 말은 원래 중국 선종의 '묵묵히 수행을 쉬지 않고 쉼 없이 정진하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 마찬가지로 수능시험을 보았다고해서 이들의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다시 대학진학을 통해 보다 큰 공부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인천의 큰 스승인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일러주기 위해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공부를 하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은 공부하되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부를 하라고 가르쳤다.

자신에게 이로우면서 남에게도 이로운 '원력'을 가진 공부를 말씀하신 것이다. 단지 대학가서 출세하고 잘 살기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그 깨우침으로 세상을 밝히는 '참다운 공부'에 원력을 세우기를 바란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신행증'이 남발되면…

IMF 한파가 몰아쳤을 때보다 더 심각한 불황이라고 한다. 좋은 대학성적과 영어성적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의 보도를 볼 때면 불자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취업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지극정성으로 자식과 친지의 취업을 기원하는 불자들도 있지만, 무턱대고 "취업하게 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도를 앞세워 낯선 아주머니 한분이 찾아왔다. 내년 2월이면 딸이 간호대학을 졸업하는데,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동국대 불교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다. 문제는 단순한 추천서가 아닌 점이었다. 아주머니는 수계년도, 재적사찰, 신도번호 등을 게재해야 하는 '신행증'을 요구했다. 그래서 나는 써주기 힘들다고 했다. 사찰법회에 한번도 참석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다른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잘 써주는데 너무한다며 절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과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한다. 위장서류를 만들어서 병원에 취업한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겠는가?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겠는가?

어려운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의 발전과 불법 홍포를 위해서는 일선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좀더 냉정하게 처신해야 한다.

온정주의에 휩쓸려 '추천서'를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불교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포교 문제다. 갈수록 줄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불자의 현실이 사이비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포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건강해진다.

이제부터라도 튼실한 어린이, 청소년 불자를 키워내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제대로 배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베풀도록 하자. 이렇게 할 때, 여법(如法)한 종교행정과 불법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운 스님(보령 세원사 주지)

사찰별 호스피스 활성화돼야

주변에서 불자들이 임종 직전 개종을 하는 사례를 적잖게 접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때마다 불교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최근에도 내가 다니는 절에서 임종직전 다른 종교로 개종한 불자의 소식을 접했다.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당사자의 왜곡된 신앙이나 잘못된 신도교육 · 관리 등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사찰의 호스피스 활동이 부족한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사찰의 호스피스 활동은 거의 없다. 일부 사찰에서 배출하고 있는 호스피스 봉사인력은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찰에서는 호스피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바로 시니어 계층이다.

요즘처럼 가족의 개념이 약화된 사회구조에서 호스피스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족간 종교가 각기 다른 경우도 많아 더욱 그렇다. 가족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 임종직전 개종할 확률이 높은 것은 이를 반증한다. 이는 곧 사찰의 호스피스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찰별 호스피스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도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관심을 주는 불교야말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순영(경기도 광주시 직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한밤의 포근한 쿠션"

MUSIC N 유영석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음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뮤직 N 유영석입니다>음악과 웃음을 꽃 피웁니다.

매일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푸른하늘의 유영석씨가 푸른 하늘 같은 청명하고
향기로운 2시간을 열어갑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97.7 Mhz / 포항 105.5 Mhz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낙성법회와 만등관등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4부대중 7중 불자 제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갑신년 음력 8월 29일(양력 10월 12일) 용성 진종조사 오도(悟道) 제 118회의 날에 용성 진종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龍城教育館) 낙성법회시 만등 관등불사에 수희동참하신 전국의 4부대중 7중불자 제위님께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하여 간절한 감사의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귀의삼보(歸依三寶)하여 공경(恭敬) 공양(供養) 예배(禮拜) 찬탄(讚歎) 참회(懺悔) 발원(發願)하옵이다.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백두대간 중심지 장안산하 죽림정사 용성조사전인 용성교육관(龍城教育館) 낙성법회를 지난 갑신년 음력 8월 29일(양력 10월 12일) 용성 진종조사 오도(悟道) 제118회의 날에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건립 후원과 불타성도성지 보리수원 성지가꾸기 후원을 위한 만등 관등불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 법회 참례대중 1천2백 여명과 함께 식순에 따라서 개식, 국민의례, 3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봉독, 보현행원의 노래 합창, 용성 진종조사 작시? 불심 도문법사 정리, 최영섭 선생의 작곡인 온겨레의 노래와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장엄하였습니다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 법신스님에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한수승행 회장님이 대표가 되어 만등 관등불사 성금중 2억원을 증정하였고 신도대표 등이 개인적 보시를 부산 해운대 룸비니포교원에서와 같이 두 번째로 증정을 하고 네팔 문화관광부 쟈키반자 문화국장에게도 금일봉을 증정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대광 유종혁 이사장님의 경과보고,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수승행 한명옥 회장님의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간략보고, 합천 가야산 해인사 해인총림 율원장 일장 혜능스님의 용성 진종조사 행장 봉독을 하고 축사에 장수군 장재영 군수님, 장수군 군의회 양해도 의장님, 영천 은혜사 주지 법타 대선사님, 미국령 괌 관해정사 회주 반월 대선사님, 인천 법명사 주지 미광당 선일 대선사님, 국가보훈처 목포지청 황주선 지청장님,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초대 회장 덕산 노옥섭 감사원 감사위원님, 네팔 문화관광부 쟈키반자 문화국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설법은 불심 도문법사가 등단하여 용성 진종조사의 견도송(見道頌)을 읊고 말하되 용성 진종조사께서는 견도(見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의 경지에서 용맹결사 정진하여 진실(眞實)의 지견(知見)이 열리어 보리도(菩提道)를 증오(證悟)한 오도(悟道)를 하신 뒤, 보림정진하고 입전수수(入廛垂手)의 경지에서 중생교화에 이바지하신 육신보살(肉身菩薩)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지공화상 십사과송(誌公和尙十四科頌)인 보디(菩提)와 번뇌(煩惱)가 불이(不二)이다. 지계(持戒)와 범계(犯戒)가 불이(不二)이다. 불여(佛與)와 중생(衆生)이 불이(不二)이다. 이理)와 사(事)가 불이(不二)이다. 적정(寂靜)과 산란(散亂)이 불이(不二)이다. 선(善)과 악(惡)이 불이(不二)이다. 색(色)과 공(空)이 불이(不二)이다. 생(生)과 사(死)가 불이(不二)이다.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이 불이(不二)이다. 진제(眞諦)와 속제(俗諦)가 불이(不二)이다. 해탈(解脫)과 속박(束縛)이 불이(不二)이다. 경(境)과 조(照)가 불이(不二)이다. 운(運)과 용(用)이 불이(不二)이다. 미(迷)와 오(悟)가 불이(不二)이다 라고 해설해 주셨습니다. 법회에 참례한 승려는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 법신스님, 총무 금강스님을 위시로 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정화위원장을 역임하신 대흥지유스님, 미국 국제포교사이신 화덕사 회주 소요스님, 영천 은혜사 주지 중화 법타스님, 미국령 괌 관해정사 회주 반월스님, 인천 법명사 주지 미광당 선일스님, 교육원 전 교육부장 정산스님, 해인총림 율원 율원장 일장 혜능스님, 율원 지원스님, 평택 명법사 주지 순형스님, 혜철스님, 인천 보국사 주지 지원스님, 중앙승가대학 혜력스님,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주지 진상 정국생 법사님, 광주 31사단 호국 관음사 주지 보현 신용호 법사님, 가평 연광사 주지 무주 법조스님, 시흥 영각사 회주 대몽 현법스님, 선효스님, 경주 남산중 고위산 천룡사 주지 환희스님, 부산 해운대 룸비니 포교원 총무 법장스님, 장수 죽림정사 노전 무언스님, 부전 법찬스님, 부전 법화스님을 위시로 한 1백여명의 승려와 참례하신 내외 귀빈은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초대회장 덕산 노옥섭 감사원 감사위원님, 초대 사무국장 도광 안홍부 감사원 과장님, 구미시 시민복지회관 대덕 신영근 관장님, 장수군 장재영 군수님, 김재석 부군수님, 자치행정과 신봉수 과장님, 문화관광과 황원하 과장님, 문화관광과 한국희 문화재계장님, 장수군의회 양해도 의장님, 김종열 부의장님, 정대현 의원님, 류기홍 사무과장님, 장수군 번암면 최춘석 면장님, 대상그룹 법연 임명호 부장님, 국가보훈처 황주선 목포지청장님, 세계청소년 대각사상 교육교화후원회 복덕심 최명진 회장님은 부산 북구출신 국회의원 정형근의원님의 부인으로 어머니 도정순 여사님의 계대를 이어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장수 죽림정사 성역화불사에 동참하고 이바지하여 설판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영천 3사관학교 충성대 호국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강원도 고성 제 22사단 율곡부대 호국 운학사, 파주 육군 제1보병사단 호국 전진사, 성남 육군종합행정학교내 호국 남성사, 서울 국방부 호국원광사, 논산 계룡대 호국사,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호국 충정사에 불심 도문 지도법사가 설법시에 항상 동행하시어 후원하시거나 동행하지 못하실 때는 3귀의 5계 수계법회시의 음료수 간식대를 계속 지원하여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어 60만 대군의 정신진력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문명대 박사님과 보리안 왕준자 회장님 내외분은 서울 서초동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진원지 우면산 대성사 복원불사에 이바지하신 공로는 백용성조사 유훈실현의 역사와 한국 불교사에 길이 빛나시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연구소 소장 홍광표 박사님은 가야불교 초전법륜성지이고 신라불교 5교 9산 선문중 제8 봉림산 선문인 창원 봉림산 봉림사지, 백제불교 초전법륜성지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 진원지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이고 백용성조사 오도성지인 구미 선산 도개동 모례샘(毛禮井) 아도모례원, 호국 호법도량인 경주 남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백두대간 중심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등 성역화 불사를 위한 기초설계를 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갑술년 서기1994년도에는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지도법사 불심 도문법사와 초대 회장이신 대성자 최사달님과 초대 부회장이신 대각심 임태순님과 수승행 한명옥 제4대 현회장님과 삼부토건과 네팔 마헨드라 국왕의 비서실장과 문화부장관과 룸비니개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신 룸비니개발위원회 녹다 산 고문님과 룸비니개발위원회 사케야 부위원장님과 함께 홍광표 박사님의 성심성의의 노력으로 불타 탄생성지 네



◇조실 불심 도문 법사설법 및 법회 참례 대중



◇용성교육관 낙성법회 만등불사



◇죽림정사 전경



◇불심 문도회에 참석한 상좌, 제자, 손상좌 스님들



◇단군 국태조 개천 이래 4337년동안의 유주 무주 일체 영가천도법회

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 대성석가사 건립을 위한 부지 WA-3 180m×180m(7744평)를 99년간 임차하는 조인을 성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홍광표 교수님께서는 사찰조경연구소 연구팀 제자 등과 함께 동국대 총장님께 사유를 말씀드리고 2년간 휴직을 하고 삼부토건과 계약직전에 각현 법신스님이 승려인 자기가 룸비니에 한국사원을 짓겠노라고 억지를 부리고 도에 지나친 언사와 행동을 함으로써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초대 회장이신 대성자 최사달 불심 도문 법사의 자당님과 제4대 현 회장이신 수승행 한명옥 회장님의 백용성조사 유훈10사목 중 제9사목, 제10사목을 말씀함으로써 할 수 없이 불심 도문 지도법사는 효순한 마음으로 홍광표 박사님을 룸비니로 떠나시도록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각현 법신 스님의 손을 들어주어서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 대성석가사 주지로 발령을 내어 당시에 1만달러 이상은 외국에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법광 양진교 거사님을 동행해서 미화 1만 2천달러를 가지고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 대성석가사 건립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홍광표 박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동국대학교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과 한국불교계와 한국재벌 13인 등 힘있는 이들과 함께 불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불타탄생성지 룸비니 대성석가사 건립불사는 2~3년 내에 끝내고 국내 유훈 실현불사와 인도 불타성도성지 보리수원 불사도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동국대학교 홍광표 박사님의 손을 들어 드리지 못함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산 연등사 주지스님이시고 미국령 괌 관해정사 회주이신 반월 대선사님과 법연 임명호 법사님과 인천 법명사 주지 미광당 선일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출신 아홉 분의 결의 형제 중 세 분으로서 관등불사에 성심성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인천 법명사 주지 미광당 선일스님은 대형버스로 신도등과 함께 만등관등불사에 동참해 주셨고, 법회시에 불심 도문법사에게 건립 입당하여 법호를 미광단으로 받았습니다. 용성 진종조사의 제자이신 동산 혜일 대종사님의 마지막 상좌 겸 제자 반월 대선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큰 시주도 하여 주시고, 부산 연등사 동참신도를 대형버스 3대로 함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만등 관등불사 도량에 참례하시어 많은 관등불사금을 헌금하여 주셨으며, 축사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시어서 참례대중 1천 2백명의 심금을 울리도록 사자후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연 임명호 법사님은 개인적으로 특별시주를 하여주시고 이 관등불사 동참에 각곳 인연 닿는 대로 권선 활동을 하시어 이 법회를 빛내 주시었고, 인천 보국사 주지 지원스님은 그 신도들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고 합창단이 2대의 대형버스로 함께 오시어 합창은 물론이요 6법공양을 불보살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인연을 지으셨으며, 경기도 평택시 명법사 법장당 화정 선지식 큰스님은 그동안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건립에 있어서 물심양면의 심혈을 기울여 수년간 연속적으로 후원하여 주셨으며 130여명의 육군, 해군, 공군 군법사님들께 한국대장경 1질씩을 무주상 법보시하여 간경수행 혜안통투 하고 교화의 지침서가 되게 향도 해주신 공덕으로 한국불교중흥에 이바지하여 주셨습니다.

금번에도 법장당 화정 큰스님께서는 큰 시주를 하여 주시고 만등 관등불사에도 성의를 다하여 은사이신 순형 주지큰스님, 혜철큰스님을 위시로 하여 많은 신도 등이 대형 버스로 관등불사에 참례하여 법회를 빛내도록 향도하여 주선해주셨습니다.

대덕 신영근 구미시 시민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선산군 공보실장 재직시로부터, 그 뒤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병한 뒤 구미시 공보담당관으로 등단하시고 현재에 이르도록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이고 백용성조사 오도성지인 구미 선산 도개동 아도모례원 성역화불사와, 신라불교 초전기념관 건립 모례샘(毛禮井) 정화사업과 모례샘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확장포장 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이신 덕산 노옥섭 감사원 감사위원님과 초대 사무국장 도광 안홍부 감사원 과장님은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창립하여 전국 공무원 불자화운동에 큰 획을 그어 주시어 한국불교 중흥에 이바지 하신 공덕은 천세에 길이 빛나시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부산 감로사 회주이신 혜총 대선사님, 서울 법안정사 회주이신 효경 대선사님, 성남 개원사 회주이신 선효 대선사님, 평택 명법사 주지 순형 큰스님, 총무 법장당 화정 대선지식스님, 충주 미륵사 주지 강월 대선사님, 무주 향산사 주지 성본 대선사님, 괌 관해정사 회주이신 반월 대선사님, 성남 정토사 주지 무심 보광대선사님과 시흥 영각사 주지 대몽 현법 대선사님, 진해 해군사관학교 진상 정국생 대법사님, 안성 성불사 주지 정묵 대선사님, 대구 보금사 주지 진노 대선사님, 정읍 용화사 주지 큰스님, 광주 호국 관음사 주지 보현 군법사님, 부산 연등사, 복전원, 법왕사, 화성 신흥사 남해 백련암, 금산 안양암, 당진 복덕사, 여산 백련암, 대흥사 주지스님을 위시로 한 대중스님과 신도회장님을 위시로 한 신도대표 등께서 이 관등불사에 동참 송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계시는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고문진 회장단 화주진 뜻 있는 회원 등이 화주가 되시고 시주가 되시어 회향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갑신년 11월 5일 오전 11시 불심 도문지도법사의 요청으로 그 동안 한번도 불심 도문문도회를 소집하지 않았지만 죽림정사 전체 낙성회향법회 봉행시 문도가 아닌 스님네와 전국적으로 4부대중 7중불자를 위시로 하여 정부요인, 국회의원, 전라북도 도의회의원, 장수군 군수님을 위시로한 공무원 제위 등이 참례하는데 불심 도문문도가 참례를 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면서 상좌겸 제자인 무심 보광스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원장)에게 당부하기를 문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부탁하여 상좌겸 제자, 상좌, 제자, 손상좌 37명이 참례를 하고 장수 죽림정사 대웅보전에서 여법하게 예불을 드리고 식순에 따라 국방부 군종실장 육군대령 혜명 김말환 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및 대각사상 연구원장 무심 보광스님, 정토회 회주 지광 법륜스님, 해인총림 율원 율원장 일장 혜능스님,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주지 묘성 법안스님, 경산 팔공산 불굴사 주지 심산 법정스님, 정토회 대표 유수스님, 선원에서 정진중인 법진스님, 선법스님, 무진스님, 월암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법미스님, 인천 법명사 주지 미광 선일스님, 9군단 군종법사 대위 혜덕 김정제 법사님, 가평 연광사 주지 무주 법조스님, 태고종 심인 탄오스님, 경주 천룡사 주지 환희스님, 아도모례원 주지 보승스님, 군종감실 법천 정상경법사님, 제천 대각사 주지 경조 백운스님, 곡성 태안사 한주 법주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재학중인 혜력스님, 장수 죽림정사 노전 무언스님, 무심 보광스님 상좌 지원스님, 대원법사, 법원스님, 공군 3여단소속 군법사, 진원법사, 부산 내원암 원주 장원스님과 각현 법신스님 상좌 보현법사와 군법사후보 법장스님, 법찬스님, 법화스님, 대상 재벌그룹 부장 법연 임명호 법사 등 37명이 차례로 본인 소개를 하고 불심 도문법사의 설법으로 주장자 3번치고 설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무심 보광스님의 주선에 의하여 불심 문도회가 처음으로 소집되었음을 알리고 지난 갑신년 음력 8월 29일 양력 10월 12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낙성법회 만등관등불사시 무주상 법보시용으로 불심 도문지도법사가 직접 정리하고 천룡사 주지 환희스님, 부산 해운대 룸비니포교원 총무 법장스님, 죽림정사 부전 법찬스님, 법화스님 등이 원고를 정리하여 교정하고 재교정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수승행 한명옥 제4대 현 회장님께서 최종원고 정리한 용성조사 연보 부록 불타조사원류 합본 331쪽을 9번씩 읽어야 용성조사전인 교육관의 주련판이 모두 조사 전법계로 이어졌으니 해설할 수 있다고 일러주고 용성 진종조사 진영을 잘 모시도록 하라고 증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성 진종조사 수법제자 등헌 완규조사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과 심즉시불(心卽是佛) 붓글씨를 족자로 모시라 일러주고 국내 국외불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용성조사 유훈10사목 실현 간략보고를 나누어주고 죽림정사 대웅보전 주련판은 순치황제 출가시로 이어졌으니 이 순치황제 출가시를 염송하고 대방광불화엄경 야마궁중게찬품 10대보살의 찬불게를 염송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위대한 스님이 되라고 일러주면서 불타 탄생성지 룸비니 근처에서 나온 소형 사라수 108염주와 부처님이 성도하신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원 부근에서 나온 중형 보리수 108염주와 보리수 잎을 증정하였다. 그리고 결론을 지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용성 진종, 동헌 완규, 불심 도문 3대스님은 어린 시절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등을 다 읽고 한문에 문리가 난 바탕 위에 출가를 하였고, 특히 불심 도문법사는 고려대장경 원문과 대정신수대장경 원문을 간경수행 하였음은 물론이고 참선수행 의단독로하여 준비가 완료된 뒤 30세 가까이 이르러 대중교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시절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 출가하여 상좌가 되었기에 본색을 감추고 형편과 수준에 따라 대하게 되었으나 이제에 이르러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을 훌륭히 하고 한국 불교계를 이끄는 주인공의 위치에서 존경받는 스님이 되어 잘하고 있으니 인증하여 주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참례한 상좌겸 제자, 상좌와 제자, 손상좌 등이 경책을 놓고 유화한 모습을 나툰 불심 도문문도회를 결성하여 1년 1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초대회장 대성자 최사달 불심 도문법사 자당님의 기일인 음력 3월 20일에 참례하는 문도회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오전 11시경에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백두대간 중심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에서 조실 불심 도문법사는 단군국태조 개천이래 기자조선 건국이래로부터 4337년 동안의 유주무주 일체영가 천도법회를 세계청소년 대각사상 교육교화후원회 복덕심 최명진 회장님과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법사단, 고문진, 회장단, 화주진 대표 부산, 서울, 경주, 마산, 대구, 구미, 인천 등지에서 300여명이 참례하여 성대히 봉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5000등 관등을 밝혀 일체 유주 무주 유형 무형 유연 무연 유정 무정 침혼체백 일체 애혼등중 각각등 영가와 8열지옥 8한지옥 무간지옥 16유증지옥 136지옥 고독지옥 수고함령 등 일체 각각등 영가가 무명을 타파하여 아미타불의 십념왕생원을 따라 왕생정토를 발원하고 대한민국 국운융창으로 남북통일성취, 동서평화달성, 일체중생 성불인연 짓는 발원이 일체 영가천도의 목적으로 잘 회향하여 마쳤음을 불보살님께 고하옵나이다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 2005년 행사안내

1. 계유년 서기2005년 음력 2월 24일 (양력 2005년 4월 2일) 백용성조사 제65주기 기일
   - 죽림정사 대웅보전 내포벽 32여래도 외포벽 36여래도 점안법회
   - 내벽벽화 : 난타빈녀 일등 공양도, 아쇼카대왕 전생도,아난다존자 미래도 점안법회
   - 외벽벽화 : 상단-여래10상도, 하단-10심우도 점안법회
   - 죽림정사 용성교육관 내포벽 48조사도, 외포벽 56조사도 점안법회
2. 서기2005년 음력 5월 8일(양력 6월 14일) 백용성조사 탄생 제142회의 날
   - 용성교육관 내부에 게타송을 모신 7여래도, 서역 인도, 동토 중국, 해동 한국의 역대전등 전법안장의 전법게를 모신 68조사도,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 진안조사의 순교로 인하여 그후 계대를 이은 7대사도 점안법회
3. 조국광복 제60주년의 기념과 서기2005년 음력 8월 29일 (양력 10월 2일 일요일) 백용성 조사 오도 제119회의 날
   - 백두대간 중심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 전체 낙성회향법회

※ 용성진종조사 연보가 필요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송부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광 합장 (죽림정사 063-353-0108)

83갑자 남방불교 불멸기원 2548년 서기2004년 음력 9월 25일 일체영가 천도법회의 날에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일대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백두대간 중심지 장안산하 죽림정사
- 조실 불심 도문, 노전 무언, 부전 법찬, 부전 법화, 사무국장 정광 김규준 합장
- 경주 남산중 고위산 천룡사 주지 환희 합장
-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한국 부산 해운대 포교원 총무 법장, 사무장 감로심 이광미 합장
- 구미 선산 도개동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 백용성조사 오도성지 아도모례원 주지 보승, 원주 지명화 정인순, 관리장 선주 김시용 합장
-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제2대 회장 원일화 김금화, 제3대 회장 정혜월 백옥순, 제4대 현 회장 수승행 한명옥, 부회장 관음주 김희자, 사무국장 정광 박상록 합장

‘뛰뛰 빵빵~’

희망의 그림책 왔어요

그림책 버스 도서관 ‘뚜뚜’ 조준영 씨





버스로 전국 돌며 아이들에 꿈 심어줘
부천 일대서는 ‘한국의 안델센’으로 통해
소외 받는이 위해 ‘평화앞치마부대’ 계획

조준영 씨가 ‘그림책 버스 도서관 뚜뚜’ 앞에서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보고 싶은 뚜뚜야!”

크리스마스에 산타할아버지랑 꼭 같이 와서 그림책이랑 선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림책 버스 뚜뚜의 조준영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해진입니다. 소록도 또 언제 오세요? 빨리 와서 선생님이랑 그림책도 읽고 재미난 놀이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학교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막 놀려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빨리 와서 또 책읽어주세요….”

또박또박 꼭꼭 눌러 쓴 아이들의 편지뭉치가 라면 박스에 가득하다. 모두다 ‘그림책 버스 도서관 뚜뚜’를 운영하는 조준영(40) 씨에게 5~8살 아이들이 보내 온 팬레터(?)들이다.

소록도를 비롯해 전국의 낙도(落島) · 산골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조준영 씨는 ‘한국의 안델센’으로 통한다. 예닐곱살 철부지들을 한 두 명도 아닌 수 십 명을 상대하다 보면 짜증도 날 성 싶지만 그의 목소리와 얼굴은 언제나 ‘맑음’이다.

자신이 읽어 주는 그림책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조준영 씨.

그는 매주 화요일이면 부천 중앙공원에 나가 유모차를 미는 엄마들과 자전거를 탄 꼬마들에게 ‘어서 빨리 와’하며 함께 그림책을 보자고 손짓한다. 그러면 아이들과 엄마들은 냉큼 신발을 벗고 ‘뚜뚜’ 속으로 뛰어든다. 조 씨와 함께 ‘뚜뚜’를 타고 떠나는 신기하고 재미난 그림책 여행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메운다.

조준영 씨가 ‘그림책 버스 뚜뚜’를 정식 개관한 것은 2003년 9월. 동화 기획가인 그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1993년 ‘어린이 작은 극장 파란나라’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집에서 동네 어린이들에게 그림책 슬라이드를 보여준 것이 계기가 됐다.

“10년 전엔 단행본으로 된 그림책이 거의 없었어요. 뜻있는 동네 주부들과 ‘가정 도서관’을 운영해봤는데, 널리 확산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사 다닐 때마다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움직이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림책 버스 뚜뚜’였죠.”

이름을 ‘그림책 버스 뚜뚜’로 지은 이유는 ‘아기공룡 둘리’ 나 ‘꼬마자동차 붕붕’처럼 아이들의 친구이자 생명력 있는 캐릭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2천 만 원을 들여 중고 버스를 사고 내부를 개조해 ‘가정 도서관’시절의 그림책 500여권을 채워 넣었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전기사를 따로 둘 수 없어 1종 대형운전면허도 땄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뚜뚜’는 곧바로 도서관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버스 도서관 건립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어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3년 동안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버스 도서관을 허락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없던 법조항까지 새로 만들어가며 ‘도서관 버스’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삽화가들의 도움으로 단조로웠던 버스가 동화 속 숲이 되고 500여 권이던 그림책이 1500여 권으로 늘면서, 마침내 2003년 9월, 쓸모없던 중고 버스가 희망과 행복의 도서관 ‘뚜뚜’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도서관을 운영할 돈이 문제였다. 기름 값과 무료로 아이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준비하는 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만 둘 순 없었다. 하루 3시간씩 자며 중학생 과외를 시작했다. 이렇게 2년 동안 낮에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밤에는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다. 오직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 주겠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에게 피곤함은 장애가 되지 않았다.

‘뚜뚜’를 향한 어린이와 엄마들의 관심과 사랑도 기대 이상이었다. 숲속의 동물 친구들을 그려 넣은 버스 외관도, 의자를 떼고 거실처럼 꾸며놓은 내부도 무척 재밌어 했다. 아이들과 엄마들은 ‘뚜뚜’를 친구로 생각했다. 아이들은 ‘뚜뚜’가 오는 화요일 오후 2시를 손꼽아 기다리게 됐고, 자발적으로 사서(司書) 일을 돕는 엄마들도 생겨났다.



한 자원봉사자가 ‘그림책 버스 뚜뚜’를 찾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를 들려주고 있다.

“폐차된 버스를 이용하면 한결 저렴한 돈으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어요. 기업들과 지자체가 폐차와 책을 후원해 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뚜뚜’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겨나 우리 아이들에게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라졌던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 살린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또 조준영 씨는 주부가 주축이 되는 ‘평화 앞치마 부대’ 창설이라는 야무진 계획도 세우고 있다. “평화라는 말은 비단 ‘전쟁과 평화’에서의 한정된 의미가 아닙니다. 인종차별, 기근, 왕따, 빈부차이,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가는 앞치마를 두른 우리 주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그는 직접 앞치마를 제작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 ‘무기 장난감 화형식’도 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폭력적인 무기는 위험한 장난감이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무기장난감을 태우게 하고 있다.

<산골 총각>과 최초의 남북합작 그림동화<령리한 너구리>를 기획한 그는 내년 5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각 시도를 순회하며 ‘그림책으로 여는 희망과 평화’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평화와 공동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버스 도서관이 지역마다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껏 전국을 돌며 ‘뚜뚜’를 통해 얻은 가능성을 남김없이 알릴 계획이다.

‘희망과 평화 프로젝트’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이 되어 탈북어린이들을 ‘뚜뚜’에 태우고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을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 주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한다. 오늘도 조준영 씨는 이런 희망을 ‘뚜뚜’에 가득 싣고서 동심의 길을 통해 행복의 나라를 ‘씽씽’ 달린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4>



아미타 염불선

아미타 염불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하고 수행법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리불아, 너의 뜻에는 어떠하느냐? 저 부처님을 무슨 이유로 아미타라 부르는가?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 없어서 시방의 세계를 비추어도 막힘이 없느니라. 이러한 때문에 아미타라 부르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수명 및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도 한량이 없고 가없는 아승지겁인 까닭에 아미타라 이름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이 <경>은 곧바로 삼계를 뛰어넘는 두 가지 청정(淸淨)으로 그 근본을 삼고, 모든 중생으로 하

염불수행의 깊은 뜻 '아미타 관찰'
자연과 생명, 지혜로운 눈으로 보기

여금 위없는 도에서 능히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지향점을 삼는다.

어떤 것을 이름하여 두 가지 청정이라 하는가? 저 <논>에서 말하기를 '이 청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기세간청정(器世間淸淨)이요, 둘째는 중생세간청정(衆生世間淸淨)이다' 하고 내지 널리 설하였기 때문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미타(阿彌陀: Amita)는 참다운 덕(德)을 머금고 있음을 세운 것으로 만겁에도 다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경>을 설하신 주인과 말씀하신 법(法)을 함께 들어 제목에 나타냈기 때문에 <불설아미타경>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설하자면,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이 원행(願行)을 일으켜 청정으로 장엄한 국토입니다. 정토는 청정이 근본입니다. 의보(依報 자연)와 정보(正報 생명)가 청정 광명으로 빛나는 아미타의 세계입니다. 아미타는 무량수명(無量壽命)과 무량광명(無量光明)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은 무량수명과 무량광명의 덕성(德性)을 소유한 부처입니다. 정토는 자비광명의 덕상(德相)입니다. 정토는 일심의 바다입니다.

정토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성취하는 세계가 아니라, 아미타불이 성취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이 이미 성취한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본원력(本願力)에 힘입고 자비광명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염불수행의 법은 아미타입니다. 아미타는 관찰할 법입니다. 여기에 의보(依報)인 자연과 정보(正報)인 생명이 있습니다. 염불수행의 깊은 뜻은 아미타를 관찰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과 생명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염불은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이며 "유념유상(有念有相)의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문의 염불수행은 칭명염불(稱名念佛)과 관상염불(觀相念佛)로 구별합니다. 칭명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름으로써 믿음을 성취하는 방편이며, 관상은 지관(止觀)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염불선입니다.

아미타 염불선은 바로 법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진여문과 생멸문 가운데 생멸문에 해당하는 자비광명 곧 자연과 생명의 청정광명을 관찰합니다. 아미타와 관찰할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타→청정(본체)→번뇌없음, 무아, 무량수→광명(작용)→의보→자연의 청정광명→보신→별상→정보→생명의 청정광명→보신→화신.

■ 양산 정토원 원장

동화사 담선대법회 회향

종합토론

오늘의 간화선 희망적인가?



간화선 수행을 놓고 11주간 펼쳐졌던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가 11월13일 막을 내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간화선과 제3수행법과의 차이 등 간화선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종합토론 논사들인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성본(동국대 선학과 교수), 월암 스님(칠불암 주지).

"한국간화선의 현실은 절망도 희망도 아니다. 문제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간화선에 대한 준비단계(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경전어록을 이해하고 공부한 상태)를 거치고 들어간다면 틀림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동화사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근세 보기 드문 대법회다. 불가에서 꼭 짚어야 할 점을 필요한 시기에 토론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호평과 함께 '선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혹평이 엇갈리는 담선법회였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없다면 담선법회는 무의미하다. 말꼬리만 쫓으면 혼란할 것이나 의미를 본다면, 간화선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설 것이다."(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간화선 수행법을 놓고 11주간 펼쳐졌던 동화사 담선대법회가 11월 13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펼쳐진 이날 담선대법회 종합토론에는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고우(봉화 각화사 선덕)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성본(동국대 선학과 교수), 월암(경주 칠불암 주지) 지운(前 송광사 강주) 스님 등이 논사로 참가해 간화선 수행법 전체를 아우르는 열띤 토론으로 논강을 진행했다.

이번 마지막 논강에서는 간화선 수행법과 화두 참구법, 간화선병과 선수행의 제문제,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 선지식의 부족 문제와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간화선과 제3수행법과의 차이는?

먼저 지환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화두참구를 통해 본래 깨달음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힘이 있는 수행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처음 접근은 쉬우나 구경(究竟)에 도달하기 어려운 아바타, 위빠사나 등의 제 3수행법과는 차별을 두었다.

월암 스님은 한국불교를 간경, 염불 등의 수행법을 회통한 통불교적 개념으로 보고, 간화선이 주된 수행법이라면 염불 간경 위빠사나는 보조수행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무조건 간화선을 하라기 보다는 보조수행을 통해 화두를 들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운 스님은 위빠사나, 아바타등의 제 3수행법을 간화선과 동등히 봐서는 안 되며, 불심하나 들고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의 이면에는 재조명돼야 하는 엄청난 교리적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간화선 수행에는 근기의 문제가 있는데 간화선을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월암 스님의 제안에 동의했다.

고우 스님은 "나와 너,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의 양변을 초월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교를 막론하고 어떤 불교든 모두 같다. 양변을 여의면 세계의 전쟁도 없을 것이다. 이원적인 논리도 사라질 것"이라며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없다는 것만 알고 행위를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두 참구는 어떻게?

간화선의 화두 참구법에 대해 성본 스님은 "간화선의 본질은 생멸문을 진여문으로 바로 되돌리는 것이며 그 방편은 무자 화두 참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무자 화두 외의 화두를 의심하는 것은 본래 불성임을 무시하고 중생심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 모든 스님들로부터 반박을 받았다.

성본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라는 번역은 '있고 없다'의 상대에 떨어지는 잘못된 번역이며, '무'는 '있다 없다'를 초월한 근원적인 무로, 진여불 불심을 자각하는 언어 즉 '법음'이라고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성본 스님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모든 논의단계는 허구이며, 사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바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구절구절 예시를 들어가면서 "<서장> <선요>에 한결같이 의심하라고 적혀있다"며 '화두 참구가 중생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성본 스님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스님은 화두참구를 통해 주관과 객관이 무너져야 무심과 대용이 동시에 일어나 진공묘유에 들어가고, 이것이 달마선 이후 내려온 정통 간화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어두운 밤 새끼를 뱀으로 알고 여러 조치를 취하나 새끼가 뱀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화두참구의 이유는 착각한 사람에게 착각을 깨주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물과 진흙에 빠졌다고 착각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 물과 진흙을 묻히고 들어가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환 스님도 "깨닫기 전에 어떻게 중생심이 아닌 무념, 무상, 불심을 알수 있는가"라며 성본 스님의 주장에 반박하고 간화선에서 화두심(부처를 알고자 하는 의심)은 중생심으로 이것저것을 의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운 스님은 주관과 객관을 해체하는 방법이 화두선이라고 말했고, 월암 스님은 화두선은 자기와 인간, 우주에 대한 궁극적 물음을 자신에게 간절히 대물어 들어가는 현성공안(現成公案;눈밖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화두다)이라고 주장했다.

#의심하지 않는 참선이 가장 큰 선병(禪病)

간화선의 선병, 선수행의 제문제에 대해서 지환 스님은 "의심하지 않는 참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병(禪病)"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간절하게 의심을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제대로 기초수행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본원리도 모르고 바로 간화선에 들어갈 경우 선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운 스님은 몸을 구성하는 5대 요소인 흙, 물, 불, 바람, 허공으로 인해 자만과 성냄, 탐욕, 질투, 무지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절과 기도' 등을 통해 몸의 조복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우 스님은 선병 극복의 방안으로 정견을 내세웠다.

#돈오돈수냐 돈오점수냐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서 고우 스님은 '법에는 돈점이 없다'는 <육조단경>의 구절을 강조하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돈오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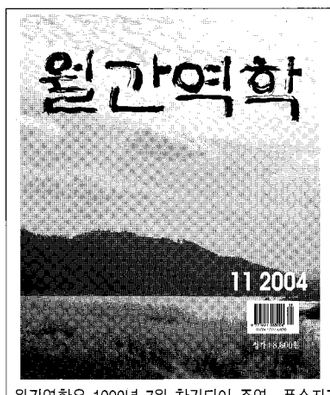
지운 스님은 초지에서의 돈오돈수와 불지에서의 돈오돈수는 다른 것이며, 초지의 돈오돈수는 다시 돈오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오는 불성사상을 토대로 봐야 하며 돈(불성)에 수를 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돼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식 부족' 대책은?

지환 스님은 선지식 부족에 대해 "초보자가 공부해 나갈 때 꼭 대학원 교수를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며, 자신 내면의 선지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경전어록과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본 스님은 "선병 문제를 진단할 능력이 없고 부처님의 혜명으로 바르게 이끌 선지식이 없다면 한국 간화선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운 스님은 선지식 부족 문제에 대해 "선지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문답식 강원교육을 통해 선문답을 할 수 있는 토론문화가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 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학원 졸업생에 대한 혜택-

-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 재택 상담사로 100% 취업 보장
- 인터넷(www.kbs.cc) 수강자도 동일한 혜택 전국어디서나 저렴한 비용 (3개월분 10만원)

역학 수강생 모집

과 목: 사주학, 관상학, 수상학
- 사 주: 월간역학 주필 이재운 박사 직강 <성공하는 운 실패하는 운> 저자 기초부터 실전까지 완벽한 지도. 4개월 완성. 12월 6일 개강. 주 2회(월 · 목 오후 5시 30분)
- 관상, 수상: 화요일 오후5시.

위치:동대문운동장역 1번 출구. 경동교회 뒷편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 손으로 확인 하세요.

관룡자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지리서인 <금낭경(錦囊經)>에 의하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던 옥척(玉尺)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이 옥척을 현대 과학적 형태로 개발 한 것이 관룡자입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랫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전문가 등 500여 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며, 풍수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면이 TV에 여러 차례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룡자는 88만 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8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관룡자 휴대용 주머니+월간역학 1년분+수맥탐지기 1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우리은행: 064-301374-13-001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 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관룡자와 수맥탐지봉은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 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 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 월간역학 1 년분 구독료는 105,600 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 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지난호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면 과월호 12 권을 선착순 100 분에 한하여 7만 5천 원에 드립니다. ('99년1월호~2003년 12월호까지)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 · 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당신의 궁금한 모든 것!

월간역학 필진 · 월간역학교육원 교수들과
직접 상담하세요.060)800-2424

이 름	통화번호	이 름	통화번호	이 름	통화번호
이재운주필	02	박일봉원장	09	김옥주원장	18
박인산원장	03	김애영원장	11	최정미원장	19
전종효원장	04	마정만원장	12	전주범원장	21
홍진보원장	05	이정호원장	13	김영순원장	22
신갑용원장	06	경태우원장	15	김순양원장	23
백명길원장	07	조성애원장	16		
김태현원장	08	김정석원장	17		

한 마디로 격이 다릅니다!

월간역학에는 어중이 떠중이 역술인이나 힛소리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역술인들을 교육하는 교수 · 필진등 학계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시외전화 요금 없이 3분간 무료통화. 이후 30 초당 900 원. 15 분에 1사람 상담하면 2만1천6백 원, 30 분에 3 사람 상담하면 4만 8천 6백 원이므로 역술원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며 정확합니다. 불편신고 (02) 2264-0258

불교 · 개신교 · 천주교가 보는 명상과 치유

명상 치유가 치료의 한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명상과 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려 화제다.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회장 송정아)는 11월 13일 백범기념관에서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등 3대 종교에서 바라본 명상과 치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황용식(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학) 교수, 방성규(한영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조규식(온양성당) 신부 등이 참여해 명상치유에 관한 담론의 장을 펼쳤다. 세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온전성 회복하는 명상 자체가 치유과정"

불교-황용식 교수

연기(緣起)에 의해 그물처럼 얽혀있는 세계는 그 전체로 온전하다. '불교에서 본 명상과 치유'의 발표를 맡은 황용식 교수는 "치유란 곧 '온전한 전체성'의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불교 명상 자체'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교수는 메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명상과 자기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 존 카밧진 교수의 견해를 빌어 "명상수행을 통해 자신의 전체성 · 온전성과 만날 수 있으며 이는 곧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발현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본래의 전일(全一)한 상태를 회복하는 명상은 사람의 실존 자체를 최적의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일체 존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는(如實知見)' 지혜는 명상으로 얻어지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펼쳐진 '존재 그물망' 전체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위빠사나 명상'을 예로 들었다. 몸의 변화를 비롯해 느낌이나 감각, 마음의 상태까지 관찰하는 위빠사나 명상은 전 세계 심리치료 관련 기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찰하는 대상이 고정된 모습없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근본 성격을 통찰하게 된다면, 자신과 삶과 세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사자에게 치유로 작용한다는 것이 황 교수의 판단이다.



"나를 드러내 자신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것"

개신교-방성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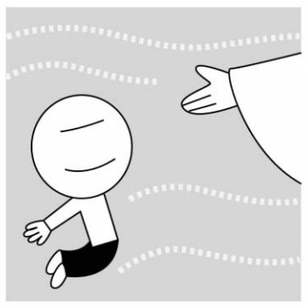
"하나님의 초월적 현현 앞에 자신을 드러냄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명상과 치유다."

'개신교에서 본 명상과 치유'를 발표한 방성규 교수는 개신교 명상의 경우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명상을 위해 고안한 특별한 호흡법 혹은 신체를 이용한 수행법 등은 필요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명상의 근본 목적이고 동시에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치유와 어떻게 연결될까. 방 교수는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묵상(명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고, 이 경험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와 의사의 공감대에 기초한 인격치료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차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치유받는 자, 치유하는 자 모두에게 전제돼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입장이다.

개신교측에서는 명상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은 거부한다. 방 교수는 "침묵의 기도인 묵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묵상자 내면에서 절대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즉,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이어지는 묵상의 동기를 부여하게 될 뿐이지, 치유를 위한 의식적인 방편이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개신교에서는 그 같은 명상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정하고 있다. 방 교수는 "묵상을 통한 치유법들이 사람 안에 내재한 '잠재력의 발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개신교에서 말하는 묵상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묵상이라는 치유의 방법이 설사 호르몬 분비나 뇌파 발생의 해부의학적 작용법을 규명해서 과학적인 치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학의 영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치유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와의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신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완전한 인격적 공동체성 이뤄야"

천주교-조규식 신부

천주교의 명상 역시 개신교와 상당 부분 그 맥을 같이 한다. 묵상과 관상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명상'은 최근 천주교 신앙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진다.

조규식 신부는 '천주교에서 본 명상과 치유'를 통해 "그리스도교적 묵상의 목표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개체로서의 존재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공동체성을 완전히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상을 통한 치유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절대적 권능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신부는 그리스도교 명상을 제외한 비(非)그리스도교적 명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비그리스도교적 명상 방법은 현대인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을 되찾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교 명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상태를 갖추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그리스도교적 명상은 자신의 존재를 포기한 채 절대적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적 삶의 고유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구차원에서 요가나 기수련 등의 수행법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천주교계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선의 세계 60

돈수(頓修)와 점수(漸修)-1

지금까지 선종에서 말하는 돈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해보았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오란 한 개인이 깨달음을 체험하는 사건이 앞뒤 없고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본래 이미 깨친 부처님이라는 원리를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제 이야기를 선종의 수행론으로 이어가기로 한다.

앞의 글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돈오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다. 여기에서 깨달음은 물론 본각을 말한다. 모든 중생이 이미 깨달은 부처님이라는 이치는 누군가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있게 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은 그런 뜻이다.

돈수는 특정 수행법을 말하는게 아니라 점차 닦아 깨닫는다는 상식 부인하는 것

돈수(頓修), 즉 단박에 닦는다는 말과 점수(漸修), 즉 점차 닦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돈오돈수론과 돈오점수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수증론을 대비시키는 이야기는 <육조단경(六祖壇經)>에도 나오고 규봉종밀(圭峰 宗密)이 여러 가지 선종 계보의 교의를 분류하고 분석하면서 언급한 이후로 선종의 담론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점차 닦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지만 단박에 닦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아리송하다. 수행이란 것이 어떻게 단박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돈수는 실제의 어떤 특정 수행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점차 닦아서 그 결과로 깨달음을 이룬다는 우리의 상식적인 관념을 부인하는 말일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돈수란 본각으로서의 돈오의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개념이다. 수(修)자를 쓰긴 했어도 기실은 수행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에 관한 개념이다. 돈오나 돈수나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수와 점수는 말로만 보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수행방법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다. 돈수란 수행을 부인하는 말이고, 점수는 수행을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는 정반대의 이론이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정반대되는 구도는 아니다. 각자 서로 다른 맥락에서 깨달음과 닦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돈오돈수란 위에서도 말했듯이 본각이라는 이치는 개인이 수행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깨달음은 얻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불가득(不可得)의 교의, 깨달음은 수행이니 뭐니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무소의(無所依)의 교의, 그리고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이루겠거니 기대하고 수행하는 대오(待悟)의 태도를 경계하는 것 등이 모두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 수행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논하는 맥락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점차 닦아나가며 발전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으로 돈오점수는 개개인은 열심히 수행하라는 처방이다. 돈오점수라고 해서 꼭 본각을 부인하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본각을 부인하고서는 선의 종지가 서지를 않는다. 돈오점수에서도 돈오가 앞에 나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수돈오가 아닌 것이다. 즉, 점차 닦아나가 그 결과로 돈오를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무슨 소리인지 차차 가늠해보기로 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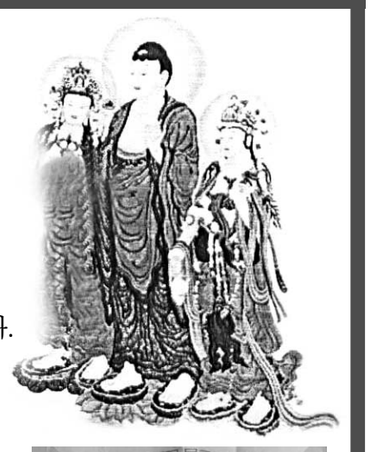
봉행

제2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재 천도 대법회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 입니다.
이것은 홍당무도 토끼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반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홍 합장



❖ 일시 : ● 제2회입재 - 12월 9일 (음)10월 28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은 수자연가기도일 입니다.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 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 스님이 직접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정법수행 정진도량 팔공산 지 혜 정 사

불자를 위한 보험①

49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만약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보면,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입예시 1
● 계 약 자 : 현수 스님(45세, 비구)
● 피보험자 : 현수 스님(45세, 비구)
● 주보험료 : 1,000 만원(월보험료 : 44,500원. 10년납)
● 가입이유 : 다비 비용

가입예시 2
● 계 약 자 : 김미자 (59세, 보살)
● 피보험자 : 김미자 (59세, 보살)
● 주보험료 : 1,000 만원(월보험료 : 53,500원. 10년납)
● 사망시 수익자 : 관음사
● 가입이유 : 주지스님에게 시다림과 49재 부탁

가입예시 3
● 계 약 자 : 지장암
● 피보험자 : 혜광 스님(64세, 비구니)
● 주보험료 : 1,000만원(월보험료 : 112,300원. 5년납)
● 사망시 수익자 : 지장암
● 가입이유 : 은사스님 다비와 49재 준비
※ 현재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다비

문의 : 1544-0108 야단법석 흥국생명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렉(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객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선, 마이크선, 연결짹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김태완 편저
소나무 | 2만원

왕과 조선시대 청년 지식인

목숨 걸고 세상을 논하다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외척의 교만과 횡포를 제재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궁녀들이 규정에서 벗어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금해 나랏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1611년, 서른다섯 살 유생 임숙영이 조선의 군주 광해군에게 책문을 받는 현장. 광해군은 임진왜란 직후 피폐해진 백성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 하지만 임숙영은 왕에게 되묻는다.

"왜 스스로의 실책과 국가의 허물은 거론하지 않으십니까? 곧바로 남김없이 지적하겠습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원인은 모두 전하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찬 반문은 계속된다. 언로(言路)가 막혀있고, 인사가 엉터리라는 직언까지 토해낸다.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策問). 대과(大科) 최종합격자 33명의 등수를 가리기 위해 임금이 직접 출제한 국가현안에 대해 응시자가 대책을 제시하는 시험인 책문은 이처럼 국가를 책임전 통치자의 현실적 고뇌와 예비 관료들의 치열함이 묻어 있다.

<책문-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는 조선조 500년사의 유명한 책문 15개를 뽑아 정리했다. 세종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등 다섯 임금과 신숙주, 성삼문, 조광조 등 대과 합격자 13명이 주고받은 책문을 한글로 풀고,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해설을 곁들였다.

때문에 이 책에는 왕과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국가경영책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왕은 당대의 고질병을 질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고백했고, 예비관료들은 '시대적 물음'에 대한 정치적 포부와 구상을 당차게 밝혔다.

우선 왕의 질문들에서는 처절한 위기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명종)'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세종)' '정벌이냐 화친이냐(선조)' 등에서 당시 절실했던 국가적 난제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젊은 인재들은 대놓고 임금의 폐부를 찌른다. 광해군이 1609년 증광문과에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는 방법'을 묻자, 조위한(1567~1649)은 '겉만 번지르르한 10가지 시책들을 개혁하라'고 과감하게 대답한다. 중종 2년(1507년) 문과시험에서 권벌(1478~1548)의 대답은 흐지부지한 당시 개혁정치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를 묻는 질문에 '시작을 잘했으면 끝마무리도 잘 해야 한다'며 왕의 우유부단함을 꼬집었다.

흥미를 끄는 책문도 있다. 사육신이 된 성삼문, 그와 반대로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가담해 영의정까지 오른 신숙주, 정치적 다툼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당대 문장가 이석형. 이 셋은 젊은 시절 세종 임금 앞에서 책문을 함께 보았다.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을 묻는 세종의 책문에 세 명은 각기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 성삼문은 '마음이 정치의 근본이고 법은 정치의 도구'라며 '군주가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답한다. 한편 신숙주는 '법에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그것은 마치 오묘한 선율에도 음탕한 음악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며 언로의 개방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석형 또한 중국 북송의 시인 소식의 말을 인용,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책문은 이처럼 앞으로 관료가 될 청년 지식인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나라를 위해 활약할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이 그리는 국가의 청사진에서 나라사랑도 읽을 수도 있다.

지은이 김태완 씨는 책문과 고서들을 일일이 파헤치며, '과거'를 '현재'의 문제로 옮겨놓는다. 지금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책문 속의 절박한 문답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박광전(1526~1597)이 정벌과 화친 사이에서 국가의 존립위기와 대의명분을 고뇌하는 선조에게 명쾌한 해답을 던진 대목이 그렇다. '정벌은 힘, 화친은 형세에 달려 있다'고 전제, '덕을 쌓아 적이 저절로 귀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진언한 박광전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대미관계나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곱씹어 볼 부분이다. 또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를 묻는 중종의 질문에 김의정(1495~1548)은 '재능보다 덕을 우선해야 한다'며 사신의 능력은 '덕행'에 달려있다고 말한 대답도 마찬가지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세종 -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삼문 - 군주가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신숙주 - 언로를 열어 직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석형 - 깃털처럼 보잘것 없는 의견도 들으소서



조선조 500년사의 유명한 책문들이 담긴 고서들. 젊은 인재들이 쏟아낸 '나라사랑'이 이 책들속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사진제공=소나무

전문가 서평



따뜻한 카리스마-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이종선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1만2천원

강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아직도 강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가? 온유하고 차분하면서 인간적이면 성공하기는커녕 사람들 사이에서 치인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시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따뜻한 카리스마>의 저자 이종선 씨는 책의 서문에서부터 독자들에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스스로 답을 하고 나섰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13년 동안 객관적인 이미지의 힘을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컨설팅하면서 수많은 CEO와 유명인사들을 만났다. 그 속에서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시대 새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이미지 요소들을 분석했다. 그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필자는 해병대 장교로 제대한 후 약 35년간 금융계에서 종사하며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 창출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CEO의 유형으로 군대의 용어를 빌어 용장(勇將), 지장(智將)과 덕장(德將)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저자 이종선 씨의 <따뜻한 카리스마>는 '덕장(德將)'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최고경영자들의 머리에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나 대내외의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카리스마'의 개념은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새로운 개념이며 필요함이다.

저자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들은 자신을 개방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자기 표현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고 기술하고, 이러한 '따뜻한 카리스마'의 구성 요소로서 10가지를 얘기한다.

자기 표현력, 공감능력, 신뢰, 설득력, 겸손, 거절의 기술, 자기극복, 유머, 인연, 비전 등이다. 이상 10가지의 구성요소와 함께 저자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소유하는 법으로 3단계의 지침을 제시한다. 1단계로 긍정적인 심상화(心象畵)를 만들어라. 2단계, 매력 있는 태도와 화술을 갖춰라. 3단계, 성공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라 등이다.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세 가지 질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작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노력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능력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인관관계와 정보의 다원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CEO의 덕목으로 꼽고 그 구성요소와 단계적인 소유법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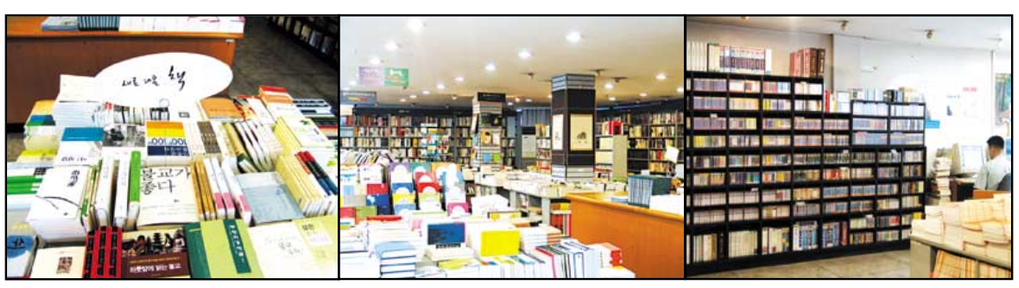
선불교(禪佛敎)에서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마음으로, 병아리가 태어날 때 껍질 속의 병아리와 어미 닭이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 깨는 경지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생활화한다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주장과 갈등과 이로 인한 이해의 충돌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종선 씨의 <따뜻한 카리스마>를 이 시대의 CEO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경영자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성부** (삼흥컨설팅 회장)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21세기 자연건강시리즈>
지 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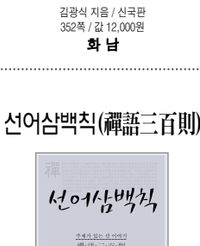
폴 런드버그 저 / 이의영 역
46배판 변형 / 192쪽 / 값15,000원
하남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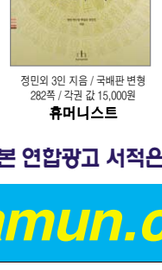
명상수행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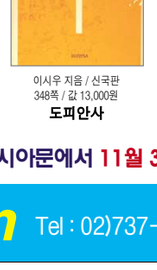
전재성 역 / 신국판 / 635쪽 /값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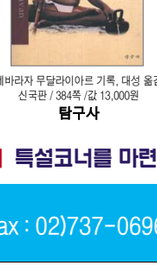
행복하게 사는법 아름답게 죽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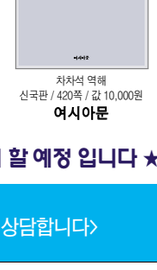
정재 지음
신국판 / 240쪽 / 값8,000원
행복한세상

아! 청담

김광식 지음 / 신국판
352쪽 / 값 12,000원
화 남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1, 2

정민외 3인 지음 / 국배판 변형
282쪽 / 각권 값 15,000원
휴머니스트

천문학자가 풀어 낸
금강경의 비밀

이시우 지음 / 신국판
348쪽 / 값 13,000원
도피안사

바가반과 함께 한 나날

데바라자 무달라이아르 기록, 대성 옮김
신국판 / 384쪽 /값 13,000원
탐구사

선어삼백칙(禪語三百則)

차차석 역해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여시아문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 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검사가 복원한 수월 스님의 올곧은 삶



근세의 고승 수월 스님(1855~1928)의 행적을 좇은 책 <물 속을 걸어가는 달>이 나왔다. 이 책은 지난 1996년 출간된 <달을 듣는 강물>의 개정판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수월 스님의 생애를 춘천지방검찰청 김진태 강릉지청장(사진)이 고증, 복원한 것이다.

이번 책에서는 스님이 일제시대 초기 중국 투먼(圖們)시와 만주, 러시아 등에서 소먹이꾼으로 일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펴 준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수월 스님은 근대 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스님의 제자로 만공 · 혜월 스님과 더불어 '경허의 세 달'로 일컬어지던 고승이다. 그러나 스님의 고향이나 속성(俗性)은 물론 그 행적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73년 사찰에서 수월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김 지청장은 이때부터 수월 스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후 스님의 자취를 찾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내 도문시와 지리산 오대산 충남 홍성군 일대 등을 직접 답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 검사가 복원한 스님의 생애는 이렇다. 수월 스님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머슴살이를 하다 스물 아홉 살에 충남 홍성 천장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천수다라니'를 지속적으로 암송하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평생을 스스로 노동해 얻은 곡식으로 밥을 짓고 짚신을 삼아 중생들에게 베푸는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스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928년 여름안거를 마친 후 지리산 화엄사 옆 개울에서 짚신을 머리에 얹고 열반에 들었다는 것이다.

김 지청장은 "남을 위해 살다 간 수월 스님의 삶을 통해 이 사회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지음
학고재 | 1만원

한국불교 현주소, '화엄경'에 비추니…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스님 지음
정신세계원출판국
1만1천원

"하나 가운데서 한량없음을 알고 한량없는 가운데서 하나를 알아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남을 알면 마땅히 두려울 바 없음을 이루리라"는 '문수사리 보살의 게송'으로 우주 창조에 관한 '빅뱅(Big Bang)' 이론과 '프랙탈(Fractal,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구조를 가진 도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터넷 불교 홈페이지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을 운영하는 성법 스님(용화사 주지)이 <화엄경>의 45개 게송을 쉽게 풀이한 <이판사판 화엄경>을 펴냈다. 이미 시중에 <화엄경>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음에도 성법 스님의 책이 주목을 끄는 것은 무아(無我), 공(空),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오늘날의 사회와 불교계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막다른 궁지'라는 뜻으로 쓰는 '이판사판(理判事判)'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이판이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을 뜻한다. 각 장의 소제목인 '욕심이 불심인 양 착각하지 말라' '종교가 상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나는 중이고 너는 신도라는 분별심도 버려라' 등에서도 '이판사판'이 되어버린 한국불교계와 혼동에 빠진 현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세찬 죽비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형편없는 꼴찌"라고 지적하는 스님은 보시바라밀을 강조하는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기부에 인색하다거나, 법문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자랑삼는 현실을 꼬집는다. 또한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을 일컫는 '방편'이라는 말이 절의 시주금을 모으고 대형 불사를 일으키는 명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솔직히 신도들을 탓하기에 앞서 그들을 바른 불법의 세계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승가의 일원인 저도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천년 전 대승 불교 사상이 태동되었듯,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불교를 위한 또 다른 사상적 불교 개혁이 일어나야할 시기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상이어야 한다고 정확히 제시할 순 없지만, 책에서는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펼쳐 보이고자 했습니다."

책 끝 부분에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강정진 거사의 책 <영원한 대자유인>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세존'에 연재됐던 글로, 스님은 "이 책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행의 경계까지 무시하고 냉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어린이 불서 3권



손오공의 보물
천추스 글 | 짱관니엔 · 띵샤오팡 그림 | 원순 스님 옮김 | 법공양 | 8천원



행복해지는 거울 이한중 글 · 그림 | 바우솔 | 8천원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 이슬기 글 | 전병준 그림 | 해와나무 | 8천원

화를 잘 내거나,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는 아이에게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할까?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아기자기한 동화, 절에 얽힌 설화 등을 엮은 불교 어린이 책 세 권이 새로 나왔다.

<손오공의 보물>은 대만 동화작가 천추스(陳處世)가 쓴 '어린이와 함께 보는 이야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어떻게 하면 화내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가르침을 받아 나쁜 성질을 고치고 마침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터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를 잘 내는 아이라면 손오공의 고민과 그 해결책에 충분히 공감하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는 거울>은 깊은 산 속 암자에서 노스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자승의 이야기다. 어느 차가운 겨울날, 동자승은 "부처님께 하늘도, 달도, 별도 보여 드렸으면…"이라고 생각한다. 동자승의 깜찍한 생각 덕분에 산새들, 동물들, 사람들까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에 걸린다. 월간 <꿈나라>, <새소년> 편집장을 지내고 초 · 중 · 고 국어 교과서에 삽화를 그린 이한중 씨가 겨울 산사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냈다. 동자승의 시선으로 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따뜻해진다.

불교 동화작가인 이슬기 씨는 보문사 신륵사 내소사 낙산사 부석사 불국사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 여덟 군데에 얽힌 재미있는 설화를 골라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을 엮었다. 추운 겨울날 돌부처가 불씨를 구해 와 스님들이 목숨을 구한 이야기(보문사)와 구렁이에게 물려 죽을 뻔한 젊은이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아난 이야기(신륵사)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각 이야기 뒤에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첨성대, 강화산성 등 절과 관련된 문화재와 유적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중도의 불학' 길을 내다



우리 불학의 길
고영섭 지음
정우서적
1만2천원

불교생태학, 불교심리학, 비교종교학…. 하나의 틀 속에 갇혀 있던 학문들이 '불교'를 매개로 그 답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 불교학과 응용학의 조화와 융화인 '중도(中道)의 불학'을 추구해 온 동국대 고영섭 교수(불교학과)가 그동안 학술지와 불교계 언론에 기고한 글 13편을 묶은 책 <우리 불학의 길>을 펴냈다.

최근 조계종 생명윤리위원회와 동국대 불교생태학 프로젝트에도 참가하고 있는 고 교수는 "불교가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현실 상황을 진단하고 그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불교학은 씨줄인 불학 및 순수학과 날줄인 불교학 및 응용학이 건강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건강한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중도의 불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늘날의 현실고를 치유해줄 사상인 불교와 불학이 우리 사회의 주요담론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 교수는 그 내적 요인으로 불자들간에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한다. 상대방과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대화함으로써 불학과 불교학이 '중도 지혜의 길'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佛 문단의 찬사 쏟아진 한국인이 쓴 구도소설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 강은자(38 · 사진)씨의 데뷔작이자 '2003 부르고뉴 신인작가상'을 수상한 소설 <그 스님의 여자>가 한국어로 출간됐다. 원제가 '스님, 그리고 동사 직전의 여인(Le Bonze et la femme transie)'인 이 소설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간돼 언론과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소설은 전형적인 '구도소설'의 형식을 띄고 있다. 호구지책으로 스님 행세를 하던 주인공 '태만'이 동사(凍死) 직전의 한 여인을 통해 진정한 구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자칫 상투적일 수 있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갖는 매력은 적지 않다. 애써 꾸미지 않은 간결한 문체에서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주제가 선연히 드러난다. 프랑스 문단 역시 "프랑스어의 순수성과 간단하고 적확한 단어를 사용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높이 사 강 씨를 '한국의 진주'로 평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남자 태만은 먹고 살기 위해 아내를 떠나 행운사로 향한다. 행운사에서 '봉(鳳)'이라는 법명을 받고 사찰의 주지를 맡게 된다. 신도들의 시주로 호의호식하던 태만은 어느 겨울, 길에 쓰러져 얼어 죽게 된 여자를 살려내게 되고, 이를 계기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선다.

선택과 우연, 인연 그리고 내면의 불성(佛性)을 깨닫게 되는 그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불교 총무원' '싯다르타 오신날' 등의 오역이 글 읽기를 방해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스님의 여자
강은자 지음 | 해와달 |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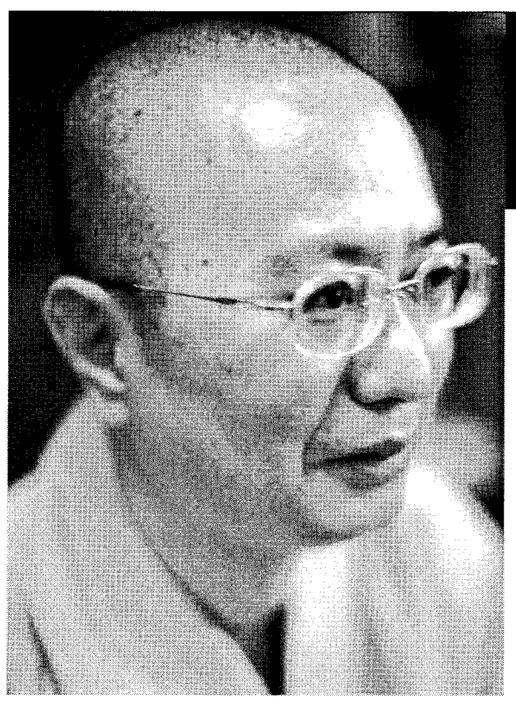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2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3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4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5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아침
6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7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철	불교시대사
8	해탈의 길	성철 스님	장경각
9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10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림

도서 안내:(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출간 2주 만에 교보 베스트 10위권 진입(종교 부문)!

이판사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쏙쏙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난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헤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쟁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 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 1957년 태어나 중동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골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佛事「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게송 풀이
성법스님 지음/신국판/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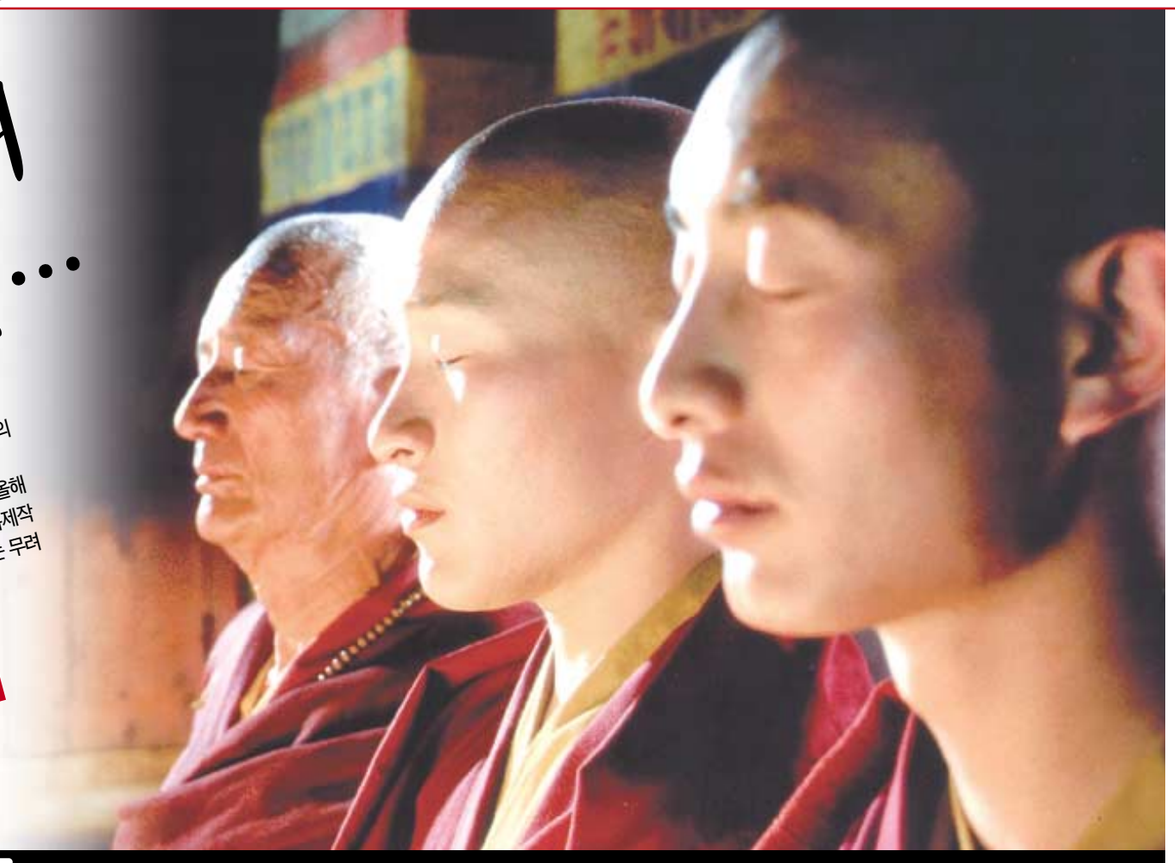
이판사판理判事判 :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fax.02-747-7034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는 것…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번뇌 그리고 구도의 갈림속에서 갈등하는 내용의 외국 영화 '삼사라'가 국내에서 11월 26일 개봉된다. 독일 · 이탈리아 · 인도 · 프랑스 등 4개국 합작 영화인 '삼사라'는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관객과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화제작이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보통 20~30분 인데 비해 '삼사라'는 무려 5시간이나 불꽃 튀는 대화를 가지는 듯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獨·伊·印·佛 합작 불교 영화 '삼사라' 개봉





번뇌로 방황하는 페마가 타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장면.

▲제목 '삼사라(SAMSARA)' 의미는?

산스크리트어로 '생과 사의 순환'이라는 뜻이다. 원래 의미는 '옮겨진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윤회의 전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것이 쌓은 업보(카르마:Karma)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사라'는 시작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끝도 없다. 또한 '삼사라'는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다.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윤회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이므로, 순환하는 그 모든 것을 세상 즉 '삼사라'라 한다.

▲주요 줄거리는?

다섯 살 어린 나이에 불교에 귀의해 훌륭한 수도승으로 자란 타쉬(숀 쿠 分)는 3년 3개월 3일간의 고된 수행을 마친다. 하지만 마을에서 만난 아름다운 페마(종려시 分)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결국 세속을 알아야 포기도 하는 법이라며 절을 떠난다.

농부의 아름다운 딸 페마는 자신을 사랑한다며 절을 떠나온 타쉬가 당황스럽다. 정숙함을 강요하는 집에서 자랐고 결혼할 남자도 있었지만 운명적으로 이끌린 타쉬와 결혼해 아들 카르마를 낳는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믿으며 타고난 현명함으로 항상 놀랄 만큼 바른 판단을 하지만 그녀의 슬픔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은 쾌락과 환희의 연속이지만 세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 작은 마을도 질투와 슬픔, 유혹과 시련, 부조리와 외압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였다. 세속의 복잡 다양한 가치를 모두 경험한 타쉬는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한다는 내용.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구도 사이의 갈등 라다크의 빼어난 풍광 배경으로 연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욕망과 운명의 결과 즉 업(業)에 의해서 결정된다. 감독은 주인공 타쉬가 처음에는 수행 생활을 잘하지만 페마에게 빠져 환속을 하고 다시 그 속에서 겪는 갈등이 결국은 타쉬의 업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타쉬가 다시 예전 모습인 수도승으로 되돌아 가고픈 인간 군상의 모습 즉 순환적인(삼사라) 삶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다.

▲색의 조화 고려한 아름다운 영상미 탁월

영화를 압도하는 아름다운 영상은 모든 색의 조화를 고려해 제작됐다. '라다크'의 독특한 자연 요소들은 영상과 화면, 그리고 의상 디자인의 직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절의 변화에도 맞추어 진행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려한 산맥이 펼쳐지는 도입부에서는 승복이 배경 화면의 색과 대조적으로 또는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 됐다. 승복은 배경의 흰 눈과 대조적으로 생동감을 주고, 흙이나 바위와 조화를 이루고 파란 하늘을 도드라지게 한다. 자연의 색을 따라 제작했을 정도로 영상미에 신경을 많이 썼다.

▲제작사가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다는데?

영화 '삼사라'의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촬영까지 참여한 판도라 필름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공동 제작사다. 올해초 판도라 필름의 대표인 칼 바움가르트너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의 제작 발표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티베트 같고, 인도 같기도 한 영화 속 장소는 어디인가?

라다크다. 그 곳은 '포스코' 광고 '실타래' '깡통' 편의 촬영지이자 몇 권의 책과 사진집만으로 알려진 미지의 장소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는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해발 3505m에 달하는 고산 사막지대에 건설된 인구 15만의 불교 왕국이다.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 1년 중 4개월이 여름이고 8개월이 겨울인 이 척박한 땅을 불심으로 일궈내 한때 실크로드를 지나던 상인들이 쉬어가던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번성하기도 했으나 근대에는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외부의 접근이 통제되었다. 덕분에 1975년 외부 세계에 개방될 때까지 1천 여년이 넘는 고유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독특한 문화와 위대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수도승들이 이동하고 있는 장면. 척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신선한 라다크 전경이 화면 뒤로 펼쳐진다.



홍경민

내달 18~19일 전역 기념 콘서트

"다른 국군장병들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너무 요란스럽게 제대하는 것 같아 민망스럽습니다."

불자가수 홍경민(28)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 국방부에서 전역신고를 마친 뒤 일반인으로 돌아온 홍경민은 전역소감을 밝힐때 가수로서 전성기에 입대한 것을 한 차례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해 최근 일부 톱스타들의 병역비리와 대비돼 더욱 돋보였다.

2002년 10월에 입대한 홍경민은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단 소속으로 최전방에서 후방까지 100여 차례의 위문 공연을 다녔으며, 국군방송 DJ, 국방홍보영화 출연 등 보직인 '연예병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그는 "군 입대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군생활에서 얻은 '자신감과 패기'로 가수활동에 전념을 다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선 다하는 불자가수 될터"

홍경민은 12월 18~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더 플레이(The Play: 재생)'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연다. 입대 2일전까지 '일시정지'라는 이름을 달고 콘서트를 열었던 그는 당시 "제대하면 콘서트를 준비해 팬 여러분께 전역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잠깐 동안 눌러뒀던 '일시정지'버튼을 풀고, 가수로서 새롭게 '재생(Play)'되어진 그의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홍경민은 지난 2001년 본사가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개통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홍경민이 띄우는 지혜의 말씀'에 동참해 모든 핸드폰과 붓다뉴스를 통해 경전말씀을 전해준 인연이 있다. 그는 당시,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던 독실한 불자다.

노병철 기자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자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품질 검증 보증서 아주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氣)측정 연구팀 지도교수 오흥국 박사

한국경제 2004년 9월 14일 화요일
신뢰받는 성장 기업… 한국경제를 이끄는 CEO리뷰
수면병 '맥반석 건강 침대'로 다스린다

서울신문 2004년 8월 24일 화요일
건강생활 부문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 '화제 집중'
충주산 맥반석-춘천산 연옥 결합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촉진, 근육통-어깨 결림 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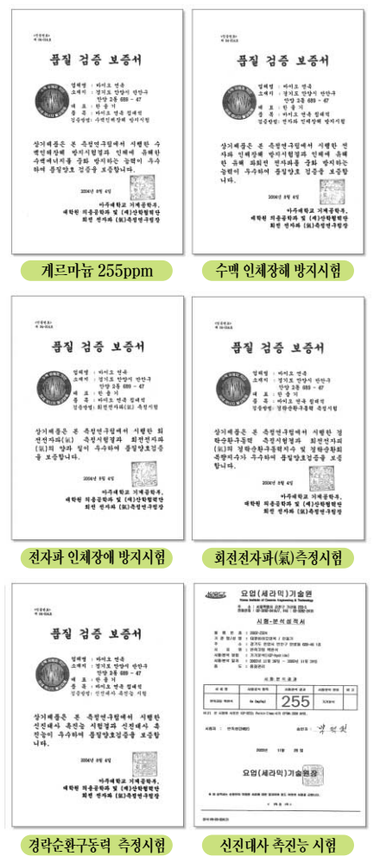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맥인체 장애 방지시험'.'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전국대리점 본사 031)444-0005 서울 02)777-0105 부산 051)557-1958 청주 043)257-8929 속초 033)635-8323 강릉 033)646-3656 분당오리역(한국까르프) 2층 031)728-6250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



고3 수험생 부모님께

부처님과 승단에 기원정사를 보시한 급고독 장자에게 깔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집에 오실 때면 항상 멀리 가 있거나 집안 어딘가에 숨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급고독 장자는 아들의 이런 행동이 영 마땅치 않았고 혹여 이러다가 아들이 다음 생에 천한 세계에 태어나게 될까 언제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궁리하다 결국 돈으로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기로 했습니다.

장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초하루나 보름날 저녁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에 가 하룻밤을 새고 오면 돈을 얼마 주겠다. 내가 약속하마."

돈을 주겠다는 말에 아들 깔라는 제타바나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법문은 듣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내다 왔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온 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버지는 먼저 대문을 들어서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 아침 죽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괜찮아요. 그보다 먼저 약속하신 돈이나 주세요." 아들은 꽤 두둑한 용돈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장자는 아들에게 또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부처님에게서 좋은 말씀 한 구절을 배워 오지 않으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천 냥의 돈을 주겠다." 깔라는 다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생전 하지 않던 인사를 부처님께 올리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좋은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부처님은 깔라에게 짧은 시 한 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 한 수를 받은 깔라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이깟 몇 줄짜리 시구쯤이야….'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한 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줄도 외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깔라가 그 시를 욀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시 한 수를 읊고 또 읊었지만 외우지 못한 깔라.

그는 앞 구절을 외운 뒤에 뒤 구절을 기억하려고 뒤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뒤 구절이 생각나면 앞 구절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깔라는 그 시를 다 외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깔라는 깊은 삼매에 들어 그 의미를 터득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의 첫 번째 경지인 수다원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깊은 삼매 속에서 보낸 다음날 아침, 깔라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따라 아침 공양을 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깔라는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지? 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들통 나면…. 제발 아버지가 부처님 앞에서 돈을 내놓지 마셔야 할 텐데….'

깔라의 이런 간절한 바람도 눈치 채지 못하고 아버지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아침 공양을 올린 뒤에 아들에게도 아침죽을 내주었다. 아들이 그릇을 비워가자 아버지는 약속한 돈 일천 냥을 내놓았다. 그러자 아들은 부끄러워하며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서 받으렴. 약속했지 않았니?"

장자는 아들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거듭 권하였지만 깔라는 아주 겸손하게 돈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본 장자는 부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을 신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자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수도원에서 지내도록 했는지를 자세하게 고하였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난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아들 깔라는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성왕보다 그리고 천상의 브라흐마 천왕보다 더 큰 보배를 갖게 되었구나." (<법구경> 제178게송의 인연이야기)

11월 17일에는 대입수능시험이 있었지요. 각 사찰과 교회, 성당에서 수험생의 어머니는 시험시간에 맞추어 아이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반의 반이라도 헤아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부모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는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이라는 재물 보다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는 조건들을 착실히 다져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가 줄 수 있는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려야겠지요.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급고독 장자처럼 정말 중요한 보물을 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긴장이 풀려 자칫 평상의 마음을 잃기 쉬운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 한 자락을 들려주고 외우게 하는 일말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돈받으려고 부처님만나 깨달음 얻은 깔라…
평상심 잃기 쉬운 자녀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혜정 스님은 출 · 재가자들이 산을 오르며 호연지기를 키우라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물러섬이 없는 원력을 굳건히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것이 어디있어? '업' 말고…"

지상 백고좌

혜정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힘겹게 다다른 문수사는 삼각산 정상에 있었다. 20년 넘게 이 길을 오르내린 세수 일흔 셋의 노스님은 뒷짐 지고, 헉헉대는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40분이면 올라올 거리를 말이야. 쯔쯔쯧!"

혜정 스님은 안타깝다는 듯 혀부터 찼다. 20년 전만 해도 달랑 작은 법당 한 칸이 전부였던 문수사를 나한전, 삼성각 등 1천여 평 큰 규모의 도량으로 일궈낸 스님의 말에서 힘이 묻어났다.

"산 오르는 일이 간단해 보이지? 산을 오르는 일도 원력이 필요해. 무슨 일이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뭐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원력말이야. 원력이 없으면 뭐든 성취할 수 없어요. 원력은 모든 일의 목적이 된다는 말이지."

스님은 누구나 원력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력은 불자들의 필수 사항이다.

"모든 힘을 모아 쌓은 공덕을 원력으로 회향해야 됩니다. 성불도 마찬가지야. 원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어. 단박에 깨치기 어려우니까 원력을 세워 수행하는 거지. 무엇보다도 '고통 받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대원력을 곧추 세워야 해. 이것이 중요해요."

스님은 '원이 없는 수행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력 없는 수행은 '허구'라고 말했다. 원력은 수행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다.

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의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시, 지계 등의 육바라밀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실천해야 할 생활덕목이지만, 스님은 인욕바라밀을 특히 강조했다.

"인욕은 나를 버릴 때, 모든 이타심이 확실한 가치관으로 정립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어. 억지로 참는 척하는 것은 인욕이 아니야. 감정을 자제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인욕입니다. '저 새끼' 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는 참는다면 그건 인욕이 아니야. 피차(彼此)와 시비(是非)가 없고 선악이 끊어진 그 자체가 인욕이야."

예를 하나 드셨다. "테이프에서 주력이든 명상음악이든 <법구경>이든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 그런데 테이프를 끄면 소리가 안 들리겠지. 그럼 안 들리는 테이프 소리와 들렸던 소리는 둘일까? 둘이 아니야. 이처럼 인욕은 '이거다 저거다'를 따지는 상대성을 초월한 경지에 있어요. 때문에 인욕바라밀을 성취하려면, 우선 '나'라는 아상을 버려야 해. 인욕을 못하는 이유는 아상 때문이야. 나라는 존재를 앞세워서 그렇지. 나란 존재를 완전히 버렸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내 몸뚱아리까지도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할 때가 참된 인욕입니다."

원력없는 수행은 허구…크게 세워라
피차-시비-선악 넘어선 인욕 실천을

스님은 '중생놀음'에 물든 중생심을 거둬내라는 경책으로 말을 이었다. 재물(財) 색욕(色) 식욕(食) 명예(名) 수면(睡) 등의 오욕락(五欲樂)에 물든 존재가 바로 중생이다. 이런 '오욕락'이 중생의 실체라면서 스님은 "중생은 오욕락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덧없는 생을 사는 셈이지. 중생놀음에서 벗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대학원학생모집

Ⅰ. 모집학과 및 과정

개설학과	전 공	수여학위	
		석 사	박 사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학석사	불교학박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명상학	명상학석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상담학석사	상담학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Ⅱ. 모집인원
· **모집과정 :**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명 · 연구과정 0명

Ⅲ.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Ⅳ.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2004. 12. 1(수) ~ 12. 15(수)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 일시 : 2004. 12. 18 (토) 9:00
3. 전형 방법 : · **석사과정 -** 면접 및 구술고사
· **박사과정 -** 영어시험 및 면접, 구술고사

Ⅴ. 특 전
1. 관련 전공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전공 : 응용불교 맞춤식 교육실시, 우수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박사학위 취득자 연구원 채용

※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유 수익용기본재산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초빙교수를 모십니다

Ⅰ. 초빙분야

전 공	초빙인원	직 급	임용예정일	비 고
자아초월상담학	1명	초빙교수	2005. 3. 1	계약제 임용
요가치료학	1명	초빙교수	2005. 3. 1	〃

Ⅱ. 지원자격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Ⅲ. 제출서류 : ① 이력서
②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③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 대학원)
④ 경력증명서
⑤ 석 · 박사학위논문
⑥ 자기소개서

Ⅳ. 제출기한 : 2004년 12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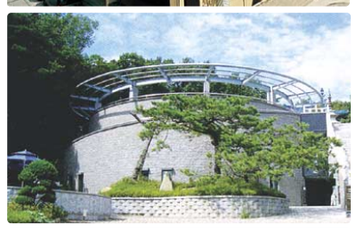
Ⅴ. 제 출 처 : **우)153-83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층 행정실
Tel (02)808-6583, 3321
Fax (02)808-6581

Ⅵ.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영어로 강의 가능한 분 우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모집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육부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 · 주지 : 전덕해)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됩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영각당 납골단 이용가격

단의 종류	위 수	이 용 가 격
개인단	1위	200만원~330만원
부부단	1위	380만원~550만원
가족단	12위	2,500만원
특별단	24위	4,000만원

※이용가격은 영구 보존 가격임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471-3322/(02)534-4444, Fax (031)471-3488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나야 성불할 수 있는데도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는 잠시 뜸을 들인 스님은 "단박에 없앨 수 없는 오욕락을 말끔히 거둬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한 생각' 에 달려 있어요. 우주 본체가 마음이고, 무변한 대자유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 중국 조사 스님의 법어 중에 '심여벽해능용물 인사청련불염진(心如碧海能容物 人似淸漣不染塵)' 이란 말이 있어요. '마음은 푸른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인품은 맑은 연꽃이 추한 곳에서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는 뜻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오욕락에 물들지 않는 거지. 그 이치를 알겠어?"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 여쭈었다.

"<화엄경>에 나온 말을 해 볼까. '믿음(信)은 공덕의 어머니이요, 일체의 좋은 뿌리를 기른다' 고 했어. 스님이든 재가자든 믿음은 마음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야. 화두공부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 믿음이 깊어야 화두를 잘 이어갈 수 있지. 화두를 들 때, 의심이 이 우주에 꽉 차야 화두를 타파할 수 있거든.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가지면 안 돼. 확실히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스님은 불자들이 가져야 할 공부 자세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쳐내라' 고 말이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달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말씀이지. 조사 어록에 또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이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물지만,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문다고 했어. 사람이 본질이거든. 그래서 불자들이 공부를 하려면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해. 지엽에서 헤매면 근본을 망각하게 돼요."

스님은 육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특히 경계했다. 공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고 중생들이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몸뚱아리도 하나의 옷이야. 우리 몸은 마음의 옷일 뿐이지. 옷이 낡고 때가

믿음은 마음공부의 시작이자 끝

시간 생명처럼 소중하게 써라

묻으면, 빨아 입어야 되고 더 낡으면 옷을 갈아입어야 해. 그런 옷에 왜 집착을 하지? 도를 깨친 역대 조사들은 몸 버리는 것을 옷 갈아입는 것으로 여겼어. 때문에 죽음이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물론 생로병사가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야. 생로병사에는 예외가 없어.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과제인 셈이지.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오래오래 살려는 욕심 때문에 죽음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사람들은 사는 데에만 열을 올리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죽음을 두렵게만 여기지. 하지만 준비를 해야 해. 누구든 언제 가든지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해. 옛 조사들은 죽음을 칼로 허공 베는 것으로 비유했잖아. 칼로 허공을 벤다고 아픔이 있겠어."

불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은 '마음 쓰는(用心)' 법에 대한 법문으로 이어졌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님은 전제했다.

"만약 오늘이라도 법이 없어지면 짐승같이 변할지 몰라. 사람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고,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면 짐승인 것이야. 짐승은 밥만 먹어도 배부른 줄 알고 족한데, 사람은 잔뜩 먹고 나도 욕심을 부리거든. 인간이면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것이 업이 돼. 욕심이 꽉 차서 자기 것인양 살게 되거든. 가져갈 것도 가져오는 것도 없이 업만 가지고 가는데….

사실 자기 것이 어디 있어? 부인도 자식도 자기 것이 되겠어. 각자 인연에 따라 사는 건데, 같이 가려고 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는 거지.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지은 업밖에 없어. 때문에 이를 인과응보라 했어요. 이것이 우주법칙이야.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 결과는 좋든 나쁘든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야.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시간을 생명' 처럼 여기라고 당부했다.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어. 다만 인간의 필요로 규정해 애용하고 있을 뿐이야. 편의에 따라 인간이 이리저리 끊어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시간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 같아. 주어진 시간은 늘 제한돼 있는 데도 수백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냉정하게 따지면 백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이야. 덧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생명을 헛되이 죽이는 것과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글=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해발 700m 20년 넘게 오르내려

혜정 스님은 혜정 스님을 뵙자마자, 실례를 무릅쓰고 '장딴지를 만져 봐도 되겠느냐' 고 물었다. 해발 7백 미터에 자리 잡은 문수사를 20년 넘게 오르내린 스님의 다리 근력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짐작대로 돌처럼 '딱딱' 했다.

"난 그 흔한 자가용도 없어. 가끔 시내에 볼 일 있어 나와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 좀 멀다 싶으면,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지."

그래도 산중에 사시니까 자동차가 필요할 텐데…. 돌아온 스님의 대답은 이랬다. 시주 받은 돈을 올바로 써야 시주자에게 복이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출가 48년 동안 한결같이 '수행자는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는 원칙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계셨다.

스님은 삼각산 문수사를 중창하는 뜻도 설명하셨다. 고려 예종 4년 탄현 대감국사가 세운 호국사찰인 문수사가 '나라 사랑' 을 일깨워주는 도량이 됐으면 하고, 태고 보우국사가 이곳 문수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출 · 재가자들도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창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의 문수사 중창 원력은 포교사 양성으로 옮겨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해주는 일이 한국불교가 살 길이라는 생각에서다. 때문에 스님은 매주 일요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강좌를 열고, 법문을 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또 사이버 포교를 위해 올해 말에는 문수사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이를 위해 틈틈이 컴퓨터도 배웠다고 하셨다.

혜정 스님은 1931년 충북에서 태어나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후,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마산 성주사 등에서 수행을 했다. 현재 조계종 국제포교사, 청담문화재단 이사, 도선사 선원 선덕으로 있다.



"사람을 무는 사자가 돼야지, 돌을 무는 개가 되면 안된다"는 혜정 스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출 것을 당부한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혜학 스님 (下)

혜학 스님은 법화경 법사다. 군법사로 있다보니 고민이 생겼다. 피가 펄펄 끓는 군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수도 없고, 가만히 법당에 앉아 참선만 하게 할 수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들이 법당에 오는 이유는 부처님이 좋아서 오기도 하지만 휴식이 필요해서 오기도 하고, 지독한 외로움을 군중 속에서 달래려고 오기도 한다. 그리고 남들 다 가는 그곳에 자기도 빠질 수 없어 오기도 하는데 법사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으로 재충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절실하게 다가가는 신념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이리저리 궁리 끝에 평소 수지하는 <법화경>



그림 · 문병성

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사인 덕암(德菴)스님의 영향도 컸다. 덕암 스님은 생전에 "나는 중으로서 해야할 염불, 간경, 참선, 범패, 금어 중에서 그림 그리는 금어를 빼놓고는 다 경지까지 가보았다. 그런데 요즘 중들은 기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야. 믿음이야말로 도의 근본이며, 모든 공덕의 어머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 하면서 <법화경>의 믿음과 <화엄경>의 믿음을 비교해 주시고는 했는데 혜학에게는 법화의 믿음이 와 닿았다.

동국대 학부에서 <법화경> 믿음에 대한 교설을 중심으로 졸업논문을 쓰기도 한 스님은 대학원에 등록하고 <법화경>을 연구과제로 삼아 정진했다.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출발점에서 법사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또 현재의 대승불교권에서 하고 있는 신행활동의 거의 모든 것이 <법화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고, 불타의 중생을 위한 역용은 오로지 일체중생의 성불 하나로 귀결된다고 하는 일승(一乘)사상을 연구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유학을 꿈꾸다가 군에서 전역한 뒤 1994년 동국대 자매교인 일본 대정대의 교환 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일본에 가서도 어려운 일은 많이 있었다. 마침 고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한국 돈의 일본 돈에 대한 환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졌다.

혜학은 먼저 대정대서 공부한 사형 혜일(慧日) 스님이 조성해 놓은 절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다지는 기도와 함께 교포들을 위해서 불공도 하고 법문도 해 주면서 유학생활을 꾸려나갔다. 공부하는 틈틈이 일본과 한국의 믿음에 관한 관념 그리고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사찰 순례도 많이 하였다.

혜학에게 제일 관심이 가는 사찰이 아무래도 <법화경>과 관련이 있는 사찰이라서 그런지 히에이산의 엔랴쿠지(比叡山 延曆寺)에 갔을 때의 충격이 컸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삼매수행이라든가, 6년씩 진행하는 12년간의 농산행(籠山行)을 다 마친 이는 일본스님들도 아주 드문데 우리나라의 법홍(法弘) 스님이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며 여불(如佛)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 등도 감동적이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일체 모든 중

정초기도 회향때 신도들에게 '법화경' 구절 인쇄해 나눠줘

생을 부처님으로도 보고, 그들을 부처님의 입장에서 친아들로도 보는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느끼면서 일일이 절하면서 하심과 동체자비를 느끼는 수행법이었다. 혜학 스님은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법화경>의 성립사에 관한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고,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이다.

혜학은 <법화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몇 가지 들이게 되었다. 첫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자신은 <법화경>에 의한 믿음과 활동체계를 갖추겠다는 신념 속에서 아침 예불이 끝나면 우선 <법화경>을 1시간 정도 독송한 뒤에 다른 경전을 보거나 연구서적을 보는 기초수행을 하고 있다. 자칫 참고서를 먼저 보고 교과서는 나중에 보는 얄팍한 믿음을 갖지 않겠다는 기초적인 훈련이기도 하다. 둘째, 모든 이들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존재라는 주의에 입각하여 누구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남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현실에서 펼치기 위해 망해사 안에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꾸려서 움직이고 있다.

셋째, 스님의 <법화경> 사랑은 정초기도 회향시에도 잘 나타난다. 대개 정초기도를 회향하면서 신도들은 몸에 무엇인가를 지니고 싶어하는데 망해사에서는 <법화경> 한 구절을 발췌해 인쇄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신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참된 선교방편(善巧方便)이라고 굳게 믿는 혜학 스님이 나는 좋다.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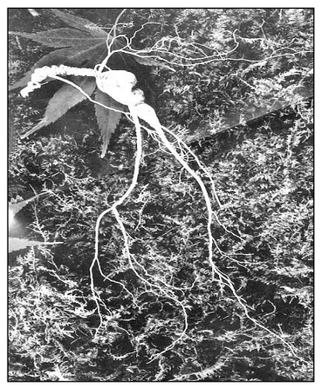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루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와~ 이건 쌍둥이자리 저건 큰곰자리네

"천문대로 별보러 가요"



▲ 겨울의 밤하늘은 맑고 깨끗해 별자리 관측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사진은 지난 2월 도피안사에서 열린 어린이 천문학교에서 별자리 관측을 하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겨울 별자리



천문대	프로그램		연락처
서울 테코시스템	단체대상 천문교육		(02)353-0791
양평 중미산 천문대	유치원	1박2일-과학실험, 천문공작놀이, 천문영상교육, 별자리 설명, 천체관찰, 숲생태체험, 태양관찰, 솟대만들기, 골든벨 당일(낮)-천문대 견학, 쌍안경 관찰, 도토리 팽이 및 도토리 묵 만들고 먹기 당일(밤)-별자리 판화 만들기, 천문 영상교육, 별자리 설명, 천체 관찰	(031)771-0306
	초등학생	1박2일-천문공장놀이, 천체관측법 교육, 천체관찰, 모둠별 천체 관측 실습 및 토의, 관측일지 작성, 숲 생태체험, 솟대 만들기, 태양관찰 당일(낮)-태양흑점 및 홍염 관찰, 자연체험학습 당일(밤)-천문 영상교육, 천체 관측법 교육, 별자리 설명, 천체 관찰	
	가족	당일-천문영상교육, 성운, 성단 및 행성 관찰 1박2일-천문영상교육, 천체관찰 숲 생태체험, 태양관찰	
	제 6회 겨울 천문캠프(2005년 1월 4~16일, 6차, 초등 1~6학년 대상) ATV체험, 전통놀이, 천문공작, 천문영상교육, 별자리, 천체관찰, 태양흑점 · 홍염관찰, 천체관측		
가평 코스모피아	개인 및 가족, 단체 대상. 당일 · 1박2일-동물견학, 천문강의 및 천체관측, 태양 흑점 관측		(031)585-0482
가평 자연과 별	개인관측소. 당일 · 1박2일-실내 별자리 공부, 성운성단 관측, 자유관측, 태양 관측 및 생태학습		(031)581-4001
일산 연세대 어린이천문대	병아리천문우주교실(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매주 월~금 오전 10시, 태양관측 및 스크린 천체여행 야간 천문우주교실(단체)-매주 월~금 오후 7시, 천체관측 아빠와 함께하는 천체여행1, 2(가족)-천체 및 우주의 이해 강의, 천체관측 아름다운 별(개인)-별 관측		(031)975-3245
여주청소년수련원 세종천문대	초중고 수련활동 대상, 1박2일 · 2박3일-래프팅, 천체관측, 양초공예, 태양흑점 관측		(031)886-4147
안성 천문대	당일-천문대 견학, 천체 탐험, 별자리 관찰, 태양계 여행 1박2일-천문대 견학, 천체 탐험, 별자리 관찰, 태양계 여행, 태양 흑점 관측, 천문 퀴즈 대회		(031)677-2245
군포 천문우주체험관	일반 개방		(031)390-0780
영월 별마로	개인 및 단체-오후 2시~오후 10시 관측 가능		(033)374-7460
횡성 우리별 천문대	당일-천문교육, 플라네타리움 천체체험, 별자리 및 태양계 관측, 육안으로 별자리 찾기 1박2일-당일 프로그램+캠프축제, 태양 흑점 관측, 천문 슬라이드 교육, 관찰일지 작성 2박3일-1박2일 프로그램+천문 애니메이션 상영, 자유관측		016-9380-4866
대전 시민천문대	주관측실-태양 홍염 관측, 달 · 이중성 · 성단 관측 보조관측실-태양 흑점, 달 · 이중성 · 성단 관측 천체투영관-오후 3 · 5 · 7 · 8시(토요일 별 음악회) 세미나실-우주다큐멘터리 상영		(042)863-8763
제천 별새꽃돌 자연탐사과학관	가족	수요 · 일요가족캠프-야생화 조류 탐사, 화석 관람, 밤하늘의 이해, 별자리 공부, 천체 관측 아빠와 함께 하는 우주 여행(토 오후 6시)-밤하늘의 이해, 별자리 공부, 천체 관측	(043)653-6534
	단체	현장체험 학습-식물생태학습원, 화석전시실 관람, 태양의 이해 강의, 태양 관측 1박2일 · 2박3일-자연 그리고 진실, 우주의 이해, 별자리 공부, 천체 관측, 야생화 탐사, 화석 전시실 관람, 태양 관측 하루탐사-야생화 탐사, 화석전시실, 밤하늘의 이해 강의, 별자리 교육, 천체 관측 야간천체탐사-화석전시실, 밤하늘의 이해 강의, 별자리 교육, 천체 관측 찾아가는 이동천문대-태양계 · 밤하늘의 이해 · 별자리 강의, 태양 홍염 · 별자리 · 행성 · 성운 · 성단 · 은하 관측	
	유치원 학원 · 학교	현장체험 학습, 1박2일 · 2박3일, 야간천체탐사, 찾아가는 이동천문대-단체와 동일	
청주 우암어린이회관	11월 매주 토 · 일 오후 10시까지 천문관 무료 개방. 이중성 · 성단 · 은하 · 월면 관측		(043)252-1323
김해 시민천문대	개인 및 단체-오후 2시~10시 관측 가능		(055)337-3785
예천 천문우주과학관	주말-별, 우주 강의, 별자리 찾기, 천체 관측 천체 관측돔과 슬라이딩 관측시설 갖춘 예천 천문우주과학공원(연말 완공예정)에서 다양한 관측 탐구 가능		(054)654-1710
부산 금련산 천문대	별자리 관측, 매해 금련산 은하축제 운영		(051)625-0709

4계절 가운데 별자리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겨울밤이 성큼 다가왔다. 이맘때 하늘이 가장 맑아 다양한 별 관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자리를 관측하며 신비한 우주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어 보자.

천체관측을 통해 어린이들은 천체 망원경을 직접 조작하고 별 행성 태양 등을 관측하는 등 탐구심을 높일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천체와 우주를 이해시키고 우주과학에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천체 관측의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민간 천문대를 비롯해 가족과 함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각종 천문대를 소개한다.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천문대는 주말이면 아빠와 천체여행 코너를 운영한다. 야간천문우주교실 병아리천문우주교실 등은 단체예약만 받지만 '아름다운 별' 코너는 개인관측자를 위해 개방하는 코너이다. 단 평일 오후 9시30분~11시까지만 운영한다.

경기도 군포시립 대야도서관에 건립된 천문우주체험관에는 대형 천체망원경 3대와 플라네타리움(별자리 투영기)이 설치돼 각종 별자리를 쉽게 관측할 수 있다. 10월 오픈한 천문우주체험관은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며 11월부터 일반에 개방됐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대전 시민천문대에서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천체 관측에 나선 관람객들을 위해 별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 음악회에 앞서 오후 6시에는 엄선한 주말 영화 상영도 한다. 이렇게 천문대에서는 별자리 관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영월 별마로, 김해 시민천문대, 중미산 천문대, 우리별 천문대, 자연과 별, 여주 세종천문대, 별새꽃돌 자연탐사 과학관, 안성 천문대, 부산 금련산 천문대, 예천 천문우주과학관 등에서 별자리 관측이 가능하다.

천문대에 가기 전 별자리와 천체 관측에 대한 사전지식을 챙겨보자. 국립중앙과학관(www.nsm.go.kr, 02-766-2161)의 천체관에서 운영하는 천체과학교실(11월 28일부터 격주)과 주말별자리 여행, 대전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042-601-7938)의 천체과학교실을 활용하면 좋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전시

시민소장 도자회화전

지장보살삼존도 등 295점 선보여



이번에 전시되는 보물 1287호 지장보살삼존도는 주존인 지장보살과 좌우 두 인물이 사선으로 서 있어 다른 고려불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 귀한 작품이다.

부산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예술품을 선보이는 '고려 · 조선 도자회화 명품전'이 11월 30일까지 부산 진화랑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고려불화 지장보살삼존도(보물 1287호)를 비롯한 고려불화 4점과 고려금자사경 두루마리, 고려 고분 출토 유물 11점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귀한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서화류 186점, 도자기 109점 등 모두 295점의 전시물 가운데에서 고송유수관 이인문의 8폭 산수병풍은 처음 공개되는 것. 청자진사채완은 영국의 박물관에 유사한 청자완 1점이 있을 뿐, 단 2점에 불과한 희귀품 다기이다.

이외에도 겸재 정선의 금강산내총도와 현재 심사정, 공재 윤두서,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혜원 신윤복, 추사 김정희, 오원 장승업, 심전 안중식 등 조선시대 대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된다. (051)633-1520

강지연 기자

신비롭고 예쁜 책들

국립중앙도서관 북아트 전시 30일까지



문자와 이미지를 통해 생각을 전달하는 북아트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책을 꾸며낸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김태은 씨의 '한국 사찰의 꽃 창살'.

사찰 법당문에 아로새겨진 꽃 창살이 책으로 들어왔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병수)이 11월 30일까지 개최하는 '아름다운 책-북아트의 세계'에 김태은 씨가 제작한 한국 사찰의 꽃 창살이 출품돼 그 신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북 아티스트 전시회에는 강애란의 '디지털 북 프로젝트', 권소리의 '조선인어백과', 손미정의 '바다로 간 이름', 성진화의 '잃어버린 것들', 김나래의 '런던에서의 추억', 홍보람의 'My Moment', 수잔 요하넷의 'Crevice/map' 등 국내외 북아트 작품 72점이 전시돼 아름다운 북아트의 세계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한다.

책과 미술이 결합된 북아트는 삽화에서 출발해 책의 형식을 취한 시각미술 작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북아트는 글자 없이 형상만으로, 반대로 문자만으로, 일시적인 퍼포먼스나 설치미술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02)590-0593

강지연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황향목 담채 연꽃 차걸이

목재 향 불상이나 부채살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황향목으로 연꽃을 조각해 만든 자동 차용 차걸이가 나와 인기다.

연두 분홍 보라 오렌지 노랑의 다섯 가지 색상의 상품이 있다. 판매가는 개당 8천원, 2개 한 세트에 1만5,천원, 5개 2세트에 3만 4천 원이다. (02)732-1520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TV 방영

9월 13일부터 한달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첫 단기출가학교가 열렸다. 5박 6일 사찰여름 수련회와 달리 30일 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참가한 이들도 중학생에서부터 40대 가정주부, 7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의 행자 교육 모습이 MBC 창사특집 다큐스페셜 '출가'를 통해 공개된다. 11월 21일 1부에 이어 28일 밤 10시 35분 2부가 방영된다.

2부는 한달 동안의 교육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출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되짚어 본다. 한달간 출장을 다녀온다며 가족 몰래 월정사에 들어온 광고 카피라이터 이민우(36) 씨, 대학생 두 딸을 집에 두고 참가한 주부 신현임(48)씨 등 52명의 행자들이 깐깐한 갈마(불가의 면접시험)를 거쳐 본격 수행에 들어가 오전 4시 예불부터 울력, 참선, 3천배 철야정진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면서 흘린 눈물과 땀,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여과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진이 내레이션 없이 현장 오디오와 인터뷰, 이외의 부족한 부분은 자막을 이용해 이야기를 이끌어 간 노력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MBC 다큐스페셜 '출가' 2부작

게시판

공부합시다

전통예술교육강좌 경기도국악당은 11월 15일부터 제2기 '전통예술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전통예술교육강좌'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사물 · 판소리 · 가야금 · 대금 · 단소 · 민요 · 국악가요 교실로 꾸며진다. 신청은 30일까지 경기도국악당 교육연구부. 수강료는 5만~8만원. (031)289-6432

간디학교 참가자 모집 대안학교인 간디학교(gandhischool.net)에서 계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 · 중생들이 간디학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절학교는 간디학교 교정에서 5박6일간 펼쳐진다. 기간은 △중등 1기 12월30일~내년 1월4일△중등 2기 내년 1월7~12일△초등1기 내년 1월16~21일△초등2기 내년 1월24~29일이다. 모집 인원은 초등과 중등이 각 60명, 45명이며 참가비는 23만원. (055)973-2191, 011-9441-4205

함께 해요

주말 선수련회 맑고향기롭게가 11월 27~28일 길상사에서 주말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02)741-4698

아동 성교육 몰운대종합복지관은 11월 26일 오후 4시 복지관 별관 사회체육실에서 부산지역 초등학교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역할극과 퀴즈를 통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051)264-9033

어르신 무료진료 금천노인복지관은 11월 25일 무료 중풍치매 세미나를 연다. 또한 11월 23일부터 오전10시~12시 복지관 1층 건강상담실에서 어르신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한방침구과(26일), 피부과 · 비뇨기과(30일) 등으로 진료한다. (02)804-4058

명상과 자기치유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은 12월 7~1월 25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구룡사에서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와 이완' 8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400-2911

어르신 변비 건강강좌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12월 15일까지 서울시내 8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변비 환자를 위한 무료강좌를 개최한다. '둘코락스와 함께하는 건강강좌'는 강서 도봉 동작 은평 서울 마포 영등포 노인복지관 등에서 열린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 등 전문의 8명이 강좌와 함께 변비 예방을 위한 체조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709-0092

노숙자 · 치매어르신 진료 선재마을 의료회가 노숙자, 치매어르신 등을 위해 11월 28일 청담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진료 서비스를 한다. (02)549-1709

창의력 노하우 강좌 부평구의 11월 여성 교양강좌로 사회심리컬럼니스트 최창호 박사가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창의력 노하우'를 강연한다. 강연은 24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032)509-6310

골다공증 무료검진 광진구는 12월 27일까지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가정의 여성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02)450-1355

성장예측 무료검진 (사)웰빙소사이어티는 5~15세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12월 17일까지 실제나이와 생리학적 뼈나이를 비교해 성장 후의 키를 예상하는 성장예측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희망자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www.wellness.or.kr, (02)587-9950

청소년 인권디카사진 공모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인권 디카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상내역은 대상 1명(30만원), 금상 2명(각 20만원), 은상 3명(각 10만원). 공모는 11월 30일까지이며 당선 시상은 12월 7일에 한다. www.eduko.org, (02)776-4818

즐겁게 떠나요

내소사 순례 불교문화유적답사회 옛돌불교문화는 11월 27일 오전 7시30분 꽃살문이 아름다운 부안 내소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에서는 내소사 앞까지 이어진 운치있는 전나무 숲길과 변산반도 채석강 금강하구 갈대밭 등을 돌아볼 예정. 회비 4만원. (02)924-3311

20면 상식 퍼즐 정답

하	마	비		고		
화		구	곡	양	장	
중			차		경	
생	불				호	신
	로		화			상
	초	근	목	피		필
		기		서	라	벌

신행수기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상〉

김해인 (서울 노원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는 병. 그 병을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생명을 구한 저의 외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989년 10월 하순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손자가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약하게 해서 간단한 감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며칠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은 지 닷새째 되는 날, 담당의사가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대로 병원입원을 시키고 1주일 정도가 지났으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점점 심해져서 의사선생 말이 "이곳은 병원 시설과 장비가 열악하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본원으로 가야하겠다"면서 소개서를 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알았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니 심상치 않은 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동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딸애는 신촌병원으로 옮긴 후에야 친정집으로 연락을 해서 외손자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아내는 수은 중독으로 전신이 아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터라 같이 갈 수가 없었지요. 저 혼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담당의사가 "심장에 물이 생겨 주사기로 물을 뽑아내고 투약을 했다"면서 경과를 말해주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외손자를 바라봤지만, 녀석은 새근새근 잘도 자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놀랐지만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있는 손자를 보며 차차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 · 문병성

외손자의 갑작스런 입원…관음기도 시작

아이의 외가인 우리 집 식구들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처럼 큰 병원으로 옮겨온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금강경〉 독송과 관음정근을 하고 낮에는 틈틈이 관음정근을 하는 한편 전화로 경과를 알아보곤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입원시킨 지 한 일주일쯤 되는 날 딸애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허파에서 물을 빼고 투약을 해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며칠 뒤부터는 효과가 없고 의사 선생님 말이 '자기들이 가진 의학지식으로는 더 치료방법이 없다' 고 한다면서 더 이상 입원실에는 둘 수 없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외손자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 앞에 다른 중환자 보호자 10여명과 함께 사위와 딸애는 눈알이 벌겋게 충혈이 된 채 쭈그리고 앉아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와 딸애에게 "사람의 목숨이란 천상천하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죽음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가지라"고 우선 마음의 안정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번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하면 아픈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곳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는 일반 입원실 · 응급실 · 중환자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반 입원실은 통원 처치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응급실은 교통사고 등으로 시각을 다투어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환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치료해서도 회복될 가망이 거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를 수용하는 입원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일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조차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은 입원이라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임시로 수용해 있는 수용소 같았고, 환자 가족들에게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커녕 슬픔에 잠기게 하는 괴로움의 연속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명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아내와 "외손자 하나 없는 셈치자" 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아기를 잃었을 때 딸이 받게 될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해 아내가 딸애에게 전화로 아이 하나 없는 셈하라고 했더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입장이 돼서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 말씀하십니까"고 하면서 전화에 대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처음 실감하였습니다. (계속)

릴레이 수행일기



류상영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회장

청년회 법회에서 교리 차곡차곡 배워
산사 찾아 다니며 '참나' 찾기 큰 경험

불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이십대 초반 무렵이었다. 산을 통해서였다. 흔히 말하길 '산에 가면 절이 있다'라고 한다.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괴로운 삶의 해방구를 느꼈고, 절에 가고자 배낭을 꾸릴 정도로 산을 찾는 방식이 바뀌어 갔다. 그렇지만 그냥 산사에 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법당 참배나 인근에서의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얻은 정신적인 안정감 정도였다.

언제부턴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냥 무턱대고 부처님께 빌면, 지금 처한 현실에서 돌파구가 만들어질까. 부처님은 이처럼 어렵기만 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원인을 무어라고 가르칠까. 남들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주변의 삶은 왜 이리 고달플까. 이러한 의문들이 부처님을 찾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부산의 중심지인 광복동 저자거리에 있는 대각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통해 이곳 청년회를 소개받게 됐다.

매주 여러 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서서히 불교에 빠져들었다. 때때론 환희심에 젖기도 했다. 경전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고, 사성제, 연기법, 업보설 등을 통해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나만의 일이 아님을 알았다. 여기 존재하고 모두의 문제임을, 더 나아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것도 깨달았다.

몇 년 간의 불교 공부에서 인생이 바뀌고 있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십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생활의 여건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불교가 한 인간의 사고를 바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불교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서 언제부턴가 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때부터 전국 명산에 있는 유수한 산사로 틈틈이 돌아다니게 됐다. 하지만 3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익히 들어 알만한 여러 선지식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다. 아마 스승을 바라보는 부족한 안목과 함께 머리 속에 가득 차있던 욕심이 출가의 꿈을 가로막은 장애였으리라.

서른여섯 살의 뒤늦은 결혼, 그 이듬해 얻은 늦둥이 딸, 가정이라는 곳은 출가와는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만드는 수행의 무대였다. 줄곧 활동해 온 불교청년회 인연으로 만난 도반 같은 아내와 벌써 효녀 노릇하는 딸은 오히려 부처님에게로 더욱 다가가게 만드는 간절한 삶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들은 영원히 망각 속에 묻어버리고픈 과거이건만 그 과거로 인해 체험되어진 삶이 '불에 달궈지는 쇠처럼' 오랜 생을 닦아왔던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어리석었던 탓으로 뒤늦게 깨달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필자는 불교로 인해 바뀐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나는 부처님을 만난 덕에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내면세계의 치열함과 표면적인 여유로움을 공존시키면서, 오래전부터 산을 통해 불교를 배웠다. 자연을 통해서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했으며 산길에서 발아래 밟히는 돌부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느끼면서 불보살의 자비를 경험하기도 했다.

나는 공부할때마다 항상 자신에게로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나를 살피는 일이며 나를 움직이고 제어하는 주관자를 살피는 일이다. 나의 주관자를 찾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보다 더욱 수승한 진리가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가야 하리라. 나무아미타불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⑥ 표현

감정에만 치우치면 '알맹이' 빠지게 돼

●문장과 표현

저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장된 억압, 분노, 패배, 눈물, 원망, 참회의 진실을 고해(告解)하듯 글로 써 내는 일만큼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정화(淨化)를 가져다주는 일도 드물다. 쏟아내는 일은 슬픔과 고통의 완화이며 정신의 통풍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기'를 쓰는 일은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죄' 사함 받듯 솔직하게 써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대체로 수기는 주관에 치우친 글이요, 서정적인 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에 치우칠 우려가 높다. 그런 글은 알맹이가 없기 쉽다. 사람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은 서정(抒情)이요, 서정적인 글이라고 하지만 정으로 글의 내용을 채우다 보면 천속한 글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정(情)은 절제되어야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귀한 것이 된다. 슬픔의 애상(哀傷)적인 미문은 그리 품위 있는 서정이 못 된다.

문장은 곧 그 사람이요, 문체(文體)란 바로 그 작가의 개성과 급수를 나타낸다. 실력이 없을 때 우리는 문장을 꾸미게 되고 재주를 앞세워 글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만다. 차라리 서툴러도 솔직하게 쓰는 편이 더 낫다.

첫째 문장은 간결해야 한다. 글은 짧고 뜻은 깊어야 함축이 있고 여운이 남는다. 둘째 문장은 평이해야 한다. '의현사명(義玄詞明)', 즉 속뜻은 깊어도 말은 알기 쉽다는 것이다. 아무리 심오한 내용이더라도 쉽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말자. 셋째 글은 정밀해야 한다. 서사나 묘사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넷째 솔직하게 써야 한다. 글에 수식이나 과장이나 변명이 필요없다. 체험된 진실을 거짓 없이 써야 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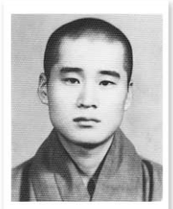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현대인의 성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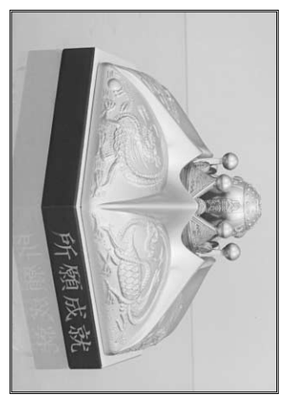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재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 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氣덩어리 복덩어리 항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던분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하시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발표한 다악 앨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2004 다악(茶樂) 페스티벌'

네 명 작곡가 '사군자' 주제로 창작곡 공연


한국 전통 창작 실내악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한국창작음악연구회 회원들.

다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주할 때 피어오르는 음악은 어떤 선율일까?

흔히 '찻자리 음악'이라고 풀이되는 다악(茶樂)은 차를 마시며 들을 만한 조용하고 선(禪)적인 음악이나 찻자리 풍경을 묘사한 음악을 일컫는다. 하지만 전통 국악을 선별해서 듣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정서에 맞는 다악을 창작, 발표해 온 단체가 있다. 바로 1982년 창단된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 · 추계예대 교육대학원장)다.

우리 고유의 음악언어에 뿌리를 둔 창작음악을 연구하기 위해 창단된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1998년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의 일환으로 창작 다악을 발표하고 이를 악보집과 앨범으로 발매함으로써 다악이란 장르 개척에 앞장서 왔다.

매년 창작 다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연을 마련하고 있는 연구회는 지난 11월 13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2004 다악 페스티벌'을 개최해 200여 차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다악 페스티벌'은 차와 만나는 정취를 음악에 담아냄으로써 찻자리에 국악의 향기는 전하는 무대. 98년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 다악(茶樂)'을 시작으로 99년 '그 푸른 날들의 찻잔-초의'에서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선사를 재조명했고, 2000년 '찻잔에 스민 사계(四季)' 2001년 '차마시기 좋은 때, 풍정(風情)' 등의 공연을 펼쳐왔다.

'사군자에 스민 다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네 명의 작곡가가 매화와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를 화두로 삼아 작곡한 음악이 첫선을 보였다. 박일훈(국민대) 교수의 '봄볕을 깨우는 매향' 백승우(경원대) 교수의 '깊은 계곡의 가인' 김정수(추계예대)의 '흰 서리 속에 피는 만향' 이상규(한양대) 교수의 '만파식의 세 한고절'이 초일향다회와 반야로차도문화원, 울산불교문화원의 다례시연과 함께 펼쳐졌다. 특히 고요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행다와 단소 대금 해금 양금 가야금 거문고 등으로 풀어낸 사군자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했다.

한국의 다악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공연을 준비 중인 김정수 회장은 "차는 몇 천 년을 우리 겨레와 함께 해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며 "차와 음악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작 다악을 발표하고 있다"고 연구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다악이란 단순한 차와 어울리는 음악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차에 내재된 정신을 담아내는 작업"이라는 박일훈 교수는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행위를 통해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차문화협회 천안지회 교도소 다도 봉사

어려운 시기에 접한 茶 인연 계속 이어지길…

삭막하기만할 것 같은 교도소의 높은 담을 넘어 소박한 찻자리가 꾸려졌다.

재소자, 시설 적응 교육 일환

(사)한국차문화협회 천안지회(회장 전재분)가 한 달에 한 번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송두식) 재소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다도교육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천안개방교도소는 가석방 예정자들의 사회적응훈련기관으로, 다도교육은 이들의 시설적응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설에 적응하지 못한 탓인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정신교육'에 지친 탓인지 강당에 모여 앉은 30여 명의 재소자들은 그리 표정이 밝지 않다. 자연히 봉사자로 참여한 다도 사범 6명의 표정도 조금씩 굳는다. 이 때 전재분 회장이 자연스레 마이크를 잡고 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

"여러분 다도라고 하면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 저리 복잡한가 생각하시죠? 하지만 차를 마시는 5분 동안 우리 민족의 천년의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썰렁했던 분위기 차 온기로 가득

전 회장이 차의 효능과 역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자 바로 봉사자들의 '선비차' 시연이 펼쳐진다. 처음 접하는 다도 시연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재소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는 찻자리가 펼쳐지자 서서히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봉사자 한 명과 5~6명의 재소자들이 마주 앉아 차를 우리고 나눠 마시기를 여러 차례. 썰렁하던 강당이 차의 온기로 금새 따뜻해진다. 중국식당을 운영했다는 김민수(38, 가명) 씨는 "티백 녹차는 마셔봤지만 다구로 차를 우려보기는 처음"이라며 "출소 후에 차를 계속 배워보고 싶다"고 말한다.

어느덧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다담(茶談) 시간이 끝나고, 재소자들은 아쉬움을 남기며 자리로 돌아간다. 그 와중에도 박영춘(47, 가명) 씨는 "저녁 먹은 후에 한 잔 마시고 싶다"며 남은 차를 봉지 째 얻어간다.

고민 듣고 나눈 보람된 시간

보람을 느끼기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 이영미 씨는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됐지만 이제는 차를 나누며 재소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94년 창립한 천안지회는 지난 4월부터 교도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번 다구와 차, 보온병, 방석을 비롯해 자비로 떡도 준비해 가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들은 기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전 회장은 "재소자들은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차를 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나는 차 한 잔이 재소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것이 차와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다. 천안=여수령 기자


천안개방교도 재소자들이 직접 차를 우려보고 있다.



삼국시대 ⑤

삼국 국력강화 시기…대외 교류 활발

이 시기는 삼국의 문화가 무르익을 때라 중국과의 교류가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과 도교에까지 퍼져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는 수당의 연속된 침입으로 연개소문이 집권하여 대외적인 방면에 국력을 쏟고 백제와 신라도 대외적 교류에 힘을 기울였다. 당 왕조의 건국으로 중국과의 왕래도 활발해지고 문물의 수입이 잦아졌으며 일본과의 왕래도 많았다. 특히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으로 건너가 법륭사의 금당벽화를 그렸고 백제의 기술자들이 사찰을 건립하는 등 불교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김춘추가 직접 일본에 다녀올 정도로 일본은 삼국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니 우리의 다풍(茶風)이 저들에게 전해졌다. 신라의 불교는 더욱 융성해 사찰, 불상 건립에 따라 차의 파종과 전파가 확대되는 시기였다.

① 백제는 전 해에 수덕사 금산사를 창건했고 고구려는 이문직에게 〈신집〉을 편찬케 했으며 신라는 원광법사가 수에서 돌아왔다.

② 담징은 채화에 능숙해 법륭사의 금당벽화를 그려 경주 석굴암과 중국의 운강석불과 함께 동양 삼대(三大) 미술품을 남겼다.

③ 원효가 그곳에 기거하니 사포성인(蛇包聖人)이 석간수(石澗水)로 차를 올렸다.

④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당에서 돌아온 대렴이 차를 지리산에 심은 것이 처음이 아니고, 차는 원래 선덕여왕 때도 있었다고 했다.

⑤ 이때까지는 선승들에 의해서 교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유학자들도 입당하는 많아졌고, 그들 사이에서도 차생활이 보편화됐다.

⑥ 자장율사가 당에서 돌아와 통도사에 차를 심었다.

⑦ 서적은 태종에게 '이(李)'로 사성을 받았으며 후에 〈신수본초(新修本草)〉를 남겼다.

⑧ 수의 문제가 머리가 아팠는데 차를 끓여 마셨더니 좋아져서 전국에 차 장려책을 썼다.

⑨ 최초로 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국 남방 40여 개 주 군 현이 차를 생산하고 그 무역의 양이 막대했으므로 나라에서 통괄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기원전 시대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599 수덕사, 금산사 창건	594 서적 ⑦	
600 〈신집(新集)〉 편찬 ①원광법사 수에서 돌아옴	600 문제의 차 장려책 ⑧	
도리(고구려)가 일본 원흥사 불상 주조	612 수양제 고구려 침공	602 백제 승려 관륵이 오다(달력, 천문, 지리)
602 승려 지명(智明)이 수에서 귀국(신라)	618 수의 멸망	604 17조의 법 제정
604 승려 담육(曇育)이 수에서 귀국(신라)	당의 건국	
610 담징이 일본으로 건너가다(고구려) ②		
620 백제와 신라가 당에 조공		
622 일본에 불상, 금탑을 보냄(신라)	624 균전제, 조용제 실시	
634 분황사 창건, 영묘사 건립(신라)	626 당태종 즉위	
635 원효방 ③		
@ 선덕여왕 때 차를 많이 마셨다 ④		
636 자장 율사의 입당	@ 현장 스님 인도로 가다	
640 삼국의 자제들이 입당하여 국학에서 배우기를 청하다 ⑤		
642 연개소문의 집권	644 고구려 친정(태종)	
643 통도사에 차를 심다 ⑥	646 다법(茶法) 제정 ⑨	
647 김춘추가 일본에 다녀오다		
648 김인문의 입당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여러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말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영화와 깊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룰(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 해 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밝은 마음으로써 지혜롭게 마음을 내라

오늘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냐구요? 부처님이 찰나에 나투시면서 풀 한 포기에도 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달라고 하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자동적으로 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이 성불을 했고 열반계를 마쳤다 해도 그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몸도 내 몸 아님 없이 나투시고, 어느 마음도 내 마음 아님 없이 나투시고, 어느 자리도 내 자리 아님 없이 나투시고,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다고 하신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어느 것이 될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아들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형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구요. 지금 금속이 아니 쓰이는 데 없고 전력도 아니 쓰이는 데가 없듯이 부처님 마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금속이나 전력과 같아서 어느 한 군데도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용도에 내가 썼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형이다 하고 이름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은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약사도 되고, 지신도 되고, 신중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은 것은 모르는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며, 방편으로 모셔 놓은 그 자체를 실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조성이 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 분만 모셔 놔도 족합니다. 공부하는 데는 한 분을 모셔야 마음을 한데 모아서 혼란스럽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방생인데, 예전에 물이 오르고 다시 내릴 때에 지렁이, 미꾸라지 또는 남생이들이 그냥 산에 떨어지거나 길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물 바깥으로 떨어진 생명들을 위해서 그릇에다 담아 가지고 물에다 놓아 주었는데 그것이 유래가 돼서 방생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이 시점에서 가둥…. 그러나 중간쯤 가서 죽고, 중간도 못 가서 죽고 이럽니다. 방생을 한다면서 그 무슨 심술궂은 놀부 짓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기를 우정 잡아 가지고 놓아 주는 방생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천도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조상은 육(肉)의 조상이나, 법의 조상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자기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적든 크든 사랑하는 마음, 조건없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은 다 한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자리가 아니야!"라고 한다면 한자리가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운명적이고 묘하고 광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각 하나가 구덩이에 빠트리고, 있어서 자기가 차린 것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차려 놓은 것이 얼만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조상들이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공 전체가 내 것 아님이 없이 떡 하나로써 해 놓는다면 전체 돌아가는 그 광대무변한 법을 조상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집니다.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것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 의리, 도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역력하게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마음에서 정성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너는 마음에도 없는 것 했느니 말았느니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해 가면서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나마도.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길러 준 은혜, 낳아 준 은혜를 생각해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 향을 올려라 이겁니다. 밝은 마음으로써 지혜롭게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향입니다. 마음을 내어 떡 공양을 올려서 모두가 부처님 한자리로 올려질 때에 통신이 되어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다 내 것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명이 저절로 벗겨진다 이 소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들도 얽히고설키고 묶여 있던 무명이 저절로 벗겨져서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업식, 인과로 인해서 죽어서도 이 몸 속에 들은 중생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어느 사이에 공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묶였던 무명이 무너지면서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탁을 치고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많이 차려 놓는다고 해서 영령들이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살아오던 습 때문에, 그 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떠나질 못하고 아는 집으로 돌며 반찬이나 국냄새를 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손들을 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에서 제사 지낼 때에도 향 초불을 차려 놓는데 불은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고, 초는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발전적인 마음을 내는 게 향입니다. 마음의 향! 그런데다가 떡 공양으로 제사를 올리면서 '일체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그대로입니다. 제사는 부모님이 승천을 했다고 해도 안 지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천도재를 지냈는데 제사는 왜 지내?"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부모한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에도 감사한 은혜가 있고 국민의 은혜, 일체 만물의 은혜, 하다못해 돌의 은혜, 식물의 은혜…. 모두 은혜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은혜를 포함해서 한마음으로 둥글리는 마음으로써 참다운 생각을 한 번 한다면 삼만 번 절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마음으로써 발전을 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물리가 터지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러합니다. 스님네들은 부처님의 대리로서, 여러분이 볼 때는 방편으로는 부처님의 대리 역할이지만 진실로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치를 그대로 받아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재들을 하는데 예수재를 얼른 쉽게 말하면 이다음에 목돈을 쓰기 위해서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치한 돈을 은행원들이 통장에다가 넣어 주면 됐지, 그 돈을 쪼개서 음식을 만들고 닷새 엿새 이레까지 온통 야단들을 해 봤자 오히려 그 예치한 사람들 손해란 말입니다. 예치를 한 돈에서 부쉈으니까요. 오히려 예금을 찾아갈 때에 예금한 돈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줄어도 아주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인제는 이렇게 해 줬으니깐 내 것이다.' 이러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러니 공덕이 되겠습니까? 요다음 나올 때에 예금통장은 커녕 아무것도 가져 나올 게 없어져요. 돈이 내 절에 들어온 거니까 마음대로 해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 쓸 데다가 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덕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해 주는 사람과 해 달라는 사람과 같이 맞아야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상부에까지 연락이 갑니다.

즉 자재천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리과에까지 하달이 되는데 경리과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 때 이렇게 했는데 나갈 때는 이 통장을 찾아 가지고 나간다는 기록까지도 다 기록이 돼야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 우리가 알고 우주간 법계에 다 전달이 돼서 알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돈대로 물건 사지, 내가 물건 사고 싶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철칙입니다. 그러니 예수재는 형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란 말입니다.

다섯번째는 초파일 등입니다. 많은 사찰에 가보면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큰 등,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작은 등,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합니다만, 인간의 생명은 다 똑같듯이 이것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등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달아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떠한 에고나 용도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할 뿐이지, 왜 얼마 얼마 정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님네들은 남들이 얼마만큼 아프고 어떠한 용도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본인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병고에 시달린다, 내가 취직을 못하고 놀아서 가정이 살기가 막막하다 등등…. 여러 가지로 다가왔을 때에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짓이 없이, 자기가 치울 쓰레기가 몇 차일 때 형편이 되면 내고 치울 쓰레기가 몇 차라 할지라도 어려워서 낼 수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해서 등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정성들여서 말이에요. 그러니 등은 똑같아야 하고 정성은 정성대로 여러분의 차원대로 지극하게 하시는 게 바로 사월 초파일날 등입니다.

마음의 밝음! 마음의 등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서 온통 나무가 쓰러지고 불이 다 꺼져도 마음의 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등을 켜십시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대로 행하시면 이 시대에서 아주 빠지지 않는 삶을 누릴 거고, 빠지지 않는 자유인일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부처님 설법입니다. 스님네들도 알아 둬야 할 일이고 또 스님네들을 따라가는 분들도 알아 둬야 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의 용어를 방편으로 쓰시고 말씀하셨는데 한문으로 다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님네들은 반드시 그것을 끌어내려서 뜻으로 풀이해야지 글자풀이만 해서도 아니 되고 글자풀이를 해서 말만 해 줘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또 한문으로 돼 있으니 남이 알아들을수도 없고 감응도 되지 않게끔 그냥 읊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단 있다면, 뜻으로 풀어 요리를 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맛있게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쌍방을 둘로 보지 않는 설법을, 그대로 어느 사찰에서나 근본 도리를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로부터지 누구로부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 몸뚱이 속의 자기 중생들이 먼저 깨어나야 자기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는 독불공을 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절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정성을 드리러 오면 개개인에게 독불공을 드려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 향 물 떠 놓고 사시마지 때에 동참으로 공양 한 그릇 올리면, 늦게 왔든지 일찍 왔든지 자기의 소원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님네들이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밥을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빨리 돌아가는데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체 생명 어느 것 하나 佛 아닌 게 없어

☞29면에서 계속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스님네들이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공양을 올리면서 사시마지 때 통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원대로 그 생각을 주인공에다 맡기면서 관하는 마음자세가 돼야 되겠죠. 우주간 법계, 일체 제불에게 모두가 전달이 돼서 한 찰나에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스님네께 독불공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고 조른다면 그건 너무나 뒤떨어진 의식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이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저금통장 얘길 했지만 여러분이 초나 향이나 쌀이나 보시금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러분이 하고 간다면 한 푼도 에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정 스님네에게 독불공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 염불을 해 주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있어야 하니까 자기네한테 공덕이 갈 것이 없어지는 거죠. 쌀 한 되 가져왔다 하면 반 되는 스님네한테로 가고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깊이 하셔서 스님네가 여러분에게 내주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마음이 한마음으로 찰나찰나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어찌 더러운 물이 새 물로 안되겠는가 말입니다.

업이 본래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를 가려면 날짜를 봐서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잠재해 있을 뿐입니다. 남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보고 듣고 '손이 있는 날 가서 안 된다는데….' 하고, 삼재가 들었으면 '사람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에고가 닥친다는데….' 하는 그 관습이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모두 잠재해 있으니까 이사를 갈래도 걱정, 삼재가 든다고 걱정, 또 보기는 왜 보는지. 보고선 그냥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약한 데에 들어오는 거죠. 싸우는데 약한 사람이 지는 거지, 강한 사람이 집니까. 약한 사람에게 칼이 들어오지, 강한 사람에게 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약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속에 든 의식들도 다 약하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세균이 들어오고, 영계성이 들어오고 이겨는 내 판이구나 하면서 그냥 남의 집을 막 뺏는 거죠. 이 점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두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다.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내 발로 내가 짚고 일어나야 된다. 누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부적이나 관상입니다. 이 부적 유래를 본다면, 예전엔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도 지금처럼 많았던 게 아니라 마을이 있으면 한 십 리 나가야 또 마을이 있고 이럴 땝니다. 그러던 시절에 스님들이, 산 부처님들이죠. 길을 가시다가 보면 마을에 필연적으로 사태가 나서 다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르니깐 방편으로 종이에 써 가지고 이것을 붙이고 '이 집을 어느 날, 어느 시에 피신을 해라' 이렇게 일러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을 믿게 됐죠. 스님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죠. 스님의 말을 안 들으면, 즉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 데 합쳐지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 데 합쳐지게 한 것이죠. 마음과 마음을 한 데 불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편을 쓴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장사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도깨비장난이요, 귀신짓이요 진정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소행입니다. 그리고 관상이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상을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관상도 좋아질 거고, 수상도 좋아질 거고, 족상도 좋아질 겁니다. 심상 하나만 좋으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상 하나가 좋으면 얼굴 자체도 웃게끔 되고 심상을 잘못 쓰면 손장난도 나쁘게 나가죠. 걸음걸이도 나쁘게 나갑니다. 나쁜 일 하려니까 막 돌아가죠.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자리의 작용이니까 믿고 맡기며 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족상이 나쁜 거고, 수상도 나쁜 거고, 관상도 나쁜 거죠. 올바르게 생각을 잘 해서 심상 하나만 좋아진다면 관상도 수상도 족상도 다 좋습니다. 이래서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족상이니 수상이니 관상이니 볼 게 아니라 심상 하나만 진짜로 잘 보고 잘 쓴다면 세세생생에 공덕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겁니다. 모든 게 생각해 보면 허탕한 짓들을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보면 병이고 안 보면 약이에요. 모르거든 아예 보지 말아요. 차라리 모르면 편안하게 마음을 둠으로써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이구, 올해는 뭐가 또 언짢지는 않을까?' 하고선 온통 관상도 보고, 부적도 사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이 세 가지라면 언짢은 건 일곱 가지나 돼요. 누가 언짢고. 누가 좋고 이러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다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주고 나오는 건 또 좋아요. 와서까지도 뇌리에 알쏭달쏭하게 잠재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아이구,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구,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하고 끄달리니 인생을 살아나가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올바로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참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느냐 이 소립니다. 에고나 질병이나 망상이 애당초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잠재해 있는 그 관습 때문에 '아이구,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이래?' '에이그, 그래도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에고가 생기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마음이 업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빨리 돌아가는데 업보 불을 자리가 어디 있고, 마음이 쉴 자리가 어디 있고,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이 정맥, 동맥이 똑딱똑딱 막 뛰고 돌아가듯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어디에 불을 자리가 있느냐는 소립니다. 다만 여러분이 살아나오는 관습으로 인해서 잠재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또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일어나는 그 자체를 망상이다 업보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자꾸 나와야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와야 목석이 아니고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더러 망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생중생들이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니, 무슨 망상이니 하고 퇴박을 하니까 '에이, 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 봐라!' 이러곤 그냥 망상으로 밀어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엘 다니는데 극진히 정성스럽게 하는데도 "이 도둑놈, 너는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만날 지청구를 주면 정말 도둑놈이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불교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체 생명 어느 것 하나 '불' 아닌 게 없으며 말로 전달, 뜻으로 전달, 통신으로 통신, 마음과 마음이 전달하며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단어가 너무나 실감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현적이고 아주 타당한 이름이죠. 잘못된 거라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탄압을 받아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으면 어려우니까 여기도 모셔 놓고 저기도 모셔 놓고, 방편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이 시대에서는 개선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고쳐 가면서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그 자리의 작용이니까 믿고 맡기며 관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세요.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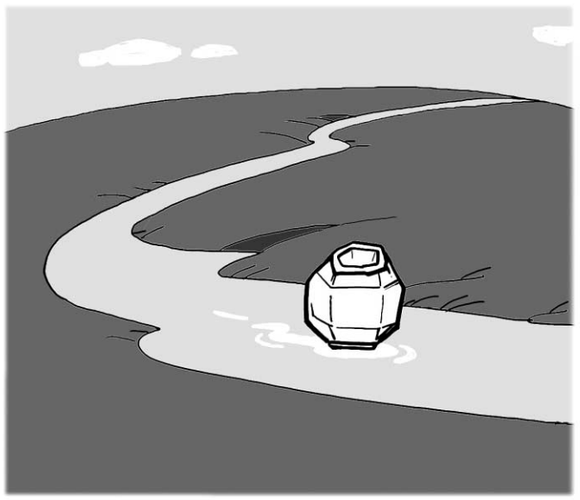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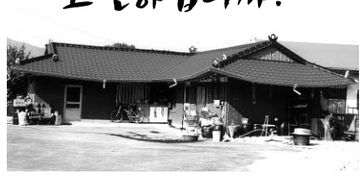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②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만다라 미술심리치료 아시나요!

자기 바라보며 내적 균형 찾기



만다라 미술심리치료는 노인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사진제공:원광대 예술심리치료학과>





왼쪽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김선화 씨가 만다라 심리치료를 시작할 무렵의 그림. 오른쪽은 5개월 후 만다라 치료 마지막 무렵에 김씨가 그린 그림으로 감정이 회복됐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초 미술심리치료사 이명희(44)씨를 찾은 미혼여성 김선화(36·가명)씨는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도려낸 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치료사는 자아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다라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했다.

첫날, 동그란 원이 그려진 종이 안에 김씨는 온통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동공 없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뻥 뚫린 심장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이 치료사가 왜 붉은색을 쓰는지 묻자 김 씨는 "붉은색을 마구 칠하다 보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5개월 간 만다라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김 씨는 점차 부드럽고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게 됐다. 치료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김 씨는 갈색을 쓰기 시작했다. 이 치료사는 만다라를 그릴 때 갈색을 사용하면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 이라며 "감정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5개월간의 만다라 심리치료과정을 마치고 자신감을 회복한 김 씨는 이제 완전히 후유증을 털어냈다. 치료를 시작할 때만해도 특별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김 씨지만 이제는 유화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욕을 갖고 미술교육 과정에 등록하기도 했다.

정신병적 증세에 식물이나 음악을 이용해 치료하는 기법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미술치료 중에서도 특히 '만다라'를 이용하는 미술치료 영역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이다. 원래는 1960년대 스위스 정신과 의사 구스타프 융이 자신의 무의식을 발견하는데 썼던 치료로, 국내에는 약 10여 년 전에 소개돼 현재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만다라 미술치료는 편안히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원 안에 다양한 형태의 무늬를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것이다. 치료사는 상담자가 원 안에 어떤 색과 도구를 사용하여 어디서부터 색을 채워나가는지 등을 관찰하여 상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정신적 치료를 돕게 된다. 만다라 심리치료는 자존감을 확립하고 개성을 찾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담과 약물치료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의 정신적인 영역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런 이유로 의학계 뿐 아니라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도 폭넓게 만다라 심리치료를 활용하고 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억압된 부분들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풀리기 때문에 주로 자폐증이나 우울증에 걸린 특수아동 치료에 활용된다. 승가원 삼전복지관 미술치료 담당자 이혜미 씨는 "원 안에 그림을 그려 넣는 활동이 장애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며 심리적 이완상태를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심적 박탈감 · 우울증 탈피 자아회복에 도움
노인 치매 · 자폐증 아동 등에 폭 넓게 활용
검증 안된 치료사 난립, 국가 공인제도 절실

만다라 미술치료는 뇌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뇌졸중 환자나 치매노인의 치료에 쓰이기도 한다. 상담치료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뇌 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만다라 미술치료는 치료를 넘어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으로도 쓰인다. 특히 일반 성인들도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고 자아를 확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만다라 그림이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그려가다 보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잠재돼 있는 자신의 심리를 볼 수 있다"고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김진숙 교수는 말한다.

최근에는 걷기 명상과 만다라 미술치료를 접목한 '만다라 걷기치료(레버런스) 명상'도 소개되고 있다.

열린마음 아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보 소장은 "만다라는 자신을 파악하고 내적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든 어떤 연령의 사람에게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다라 미술치료도 한계가 있다. 국가가 자격을 심사하는 서구와는 달리 국내에는 각종 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파들이 난립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사가 늘어나고 있다. 원광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정동훈 교수는 "하루빨리 국가 공인제도나 자격시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신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인증된 치료사를 소개받을 것을, 스스로 찾고자 할 때는 각종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안목을 높일 것을 권했다.

만다라 미술심리치료는 미술심리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약 18회에서 25회 정도에 걸쳐 진행되며 상담자의 차도 상태에 따라 65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회당 3~5만원 선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만다라 심리치료 받을 수 있는 곳

원광대 예술심리치료학과 (063) 850 – 6338 www.artstherapy.or.kr
한국미술치료연구센터 (02) 476 – 9725 www.katc.org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02) 3481 – 5393 www.keapa.or.kr
카운피아 (02) 792 – 6637 www.counpia.com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053) 782 – 0422 www.jyj-arttherapy.or.kr
열린마음 아동상담센터 (031) 272 – 6819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31)

전기 화학적 균형 이뤄 건강 유지

아유르베딕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들 iii

몸에 산성이 강하면 오래 못 산다. 따라서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분노나 스트레스는 조직이나 기관들을 지치게 해 산성을 증가시킨다. 이때는 약초와 양념들로 혼합된 오일을 발라주면 생명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오일들은 피타 도샤의 도움으로 몸속에 스며들어 피부의 탈수 방지는 물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피부의 수분은 우주 환경의 전기 자장과 적합한 반응을 일으켜 그 자장을 유지케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마사지를 통해 전기 화학적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마음 진정 편안한 잠 유도

전신과 함께 머리를 마사지해 주면 숙면에 효과적이다. 특히 발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지압해 주면 방황하는 마음이 진정되면서 편안하게 된다. 불면증 환자나 수면 장애자는 자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 몸과 발에는 코코넛유나 참기름, 머리는 호박씨 기름이 좋다.

윤기 나는 피부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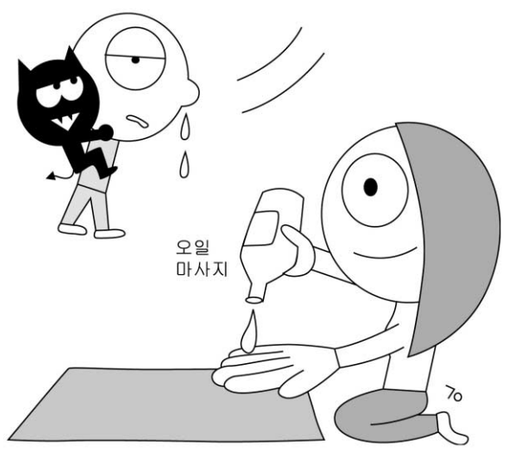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친 사람들은 마사지를 통해 부드럽고 윤기 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정신적 피로나, 자잘한 근심걱정, 냉난방 시설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현대인들은 피부가 더욱 건조하기 쉽다. 아몬드유에 맥아유를 섞어 마사지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긴다.

질병으로 부터 저항력 강화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의 압력으로 몸을 문지르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는 항체의 생산을 자극하고 우리 몸의 필수 조건인 7가지 조직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강화된 힘은 관대함과 인내심을 주어 슬픔과 고뇌, 역경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탈출하게 해 준다. 증가된 항체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오일은 신경계를 튼튼히 해 준다.

바람 · 점액에 특효

<슈스르타 삼히타>에 보면 악화된 바람(바타)이나 점액에 의해 생긴 병에는 오일 마사지가 특효라고 나와 있다. 특히 참기름 마사지가 효과적인데 이 외 올리브유나 겨자유, 아몬드유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점액질환, 즉 폐의 울혈, 폐렴, 호흡 곤란 때에는 등록유나 유칼립투스유, 겨자유, 아몬드유로 가슴과 늑간을 마사지마하면 숨쉬기가 편해지고 폐의 울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람과 점액이 함께 악화되었을 때에는 겨자유에 마늘 즙을 섞은 마사지가 효과적이다. 또한 바타와 카파가 악화되어 생긴 호흡 곤란에는 아몬드유에 라벤다 기름을 섞어 마사지한 다음 끓는 물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 그 김을 들여마시면 호흡하기가 쉬워진다. ■ 포천 중문의대



제41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11월 27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교육 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신준모 군·최현자 씨에 지원금

생명나눔실천본부 10월 환자돕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9일 조계사에서 신준모(왼쪽)군과 최현자(오른쪽)씨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11월 9일 조계사 종무실에서 신준모(7세, 심실중격결손증)군과 최현자(22세, 급성골수성 백혈병)씨에게 환자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0월의 환자로 지정한 신준모군에게 전달된 환자지원금은 불이원에서 보내준 3백만원을 비롯 불자들의 성금 6백94만1100원이다. 또 10월 여성환자로 지정된 최현자씨에게 전달된 4백3만3135원은 10월 16일 조계사창건주간 행사시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이다.

현재 신준모군은 3차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최현자씨는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중이다. **김원우 기자**

"대표 보시 행사로 만들 것"

봉선사, 김장김치 나눔 행사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 최재성 의원 · 이광길 남양주시장(왼쪽 두번째 부터)이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는 11월 13일 경내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철안 스님을 비롯한 봉선사 대중 스님들과 이광길 남양주시장, 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 갑), 이학송 광동중학교 교장, 봉선사 신도 등 50여명은 이날 2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 김장김치는 남양주시와 구리시 거주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된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이 행사를 정례화해 봉선사의 대표적인 보시 행사로 만들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포교단을 구성해 봉사를 통한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증심사·문빈정사 음식 판매 수익금

소아백혈병 어린이에 전달

광주 무등산 내에 자리한 증심사(주지 진화)와 문빈정사(주지 석장)가 등산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해 모은 성금 800만원을 소아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화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월 16일 화순 전남대 병원 원장실에서 '4차 생명나눔 투병지원기금 지원식'을 갖고 증심사와 문빈정사가 모금한 성금을 김태훈(11.골육종)군과 박시국(16.재생불량성빈혈)군에게 전달했다.

이날 소아암 환우들에게 직접 치료기금을 전달한 진화 스님은 "무섭다는 암을 의연하게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신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매년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투병지원기금 지원식에 이어 진화 스님은 소아암 병동을 찾아 소아암 환우들에게 겨울용 목도리 30여개를 나눠줬다.

이번 성금은 증심사와 문빈정사가 신도들과 함께 무등산을 찾은 등반객을 대상으로 호박죽과 국수를 판매해 모았다.

이준엽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1차 결산



서울 경기 12개 종립학교
72명에 장학금 전달

서울 경기지역 12개 불교 종립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72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된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김광삼)가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10월 31일까지 모금된 성금 2700만원으로 마련된 이 행사는 전국교법사단(단장 김형중)이 후원

이어 강화월드 대강당에서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의 불교교리강연, 이성훈 실장(선재이벤트)의 진행으로 마음열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8일에는 장학금 전달식과 초지진 역사체험 일정으로 회향된다.

본사 나눔의 손잡기는 1차로 서울경기지역 12개 불교 종립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교법사 · 학교장 추천 불우 학생 대상
11월 27~28일, 강화 전등사서 산사체험

한다. 12개 종립학교 72명의 장학생은 각 종립학교 교법사(심학교사)와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제 1회 종립학교 학생 장학금 전달식은 11월 27~28일 강화도 전등사와 강화월드에서 산사체험을 겸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산사체험 및 장학금 전달식은 27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입재식, 궁인창 전등사 종무실장의 사찰 안내, 전등사 주지 계성스님의 법문, 발우공양 및 저녁예불 체험순으로 열린다.

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2차 장학금 전달은 내년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을 생활화할 때"라며 "한 해동안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성금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 1회 현대불교 나눔 장학생 명단

〈동대부중〉	송기안, 김진수, 진해욱, 전인표, 송문규, 김건욱	〈광동중〉	민윤기, 염현은, 신희성, 김유라, 정수지, 김병진
〈동대부고〉	이아람, 김현용, 양이필, 오성, 김대현, 진종민	〈광동고〉	박근식, 김종현, 이승윤, 김효섭, 오준호, 문대균
〈명성여중〉	안다희, 남현정, 이마음, 손현희, 정다운, 성순현	〈광동여고〉	서민영, 민선현, 한주희, 장은주, 이차임, 이보미
〈명성여고〉	이수연, 김나래, 이용선, 김혜승, 이다희, 노지연	〈청담중〉	유은지, 김가영, 이수인, 우수진, 차미라, 박설미
〈진선여중〉	오세빈, 이유진, 손수진, 박형빈, 윤다혜, 윤소영	〈청담정보고〉	김재웅, 유광준, 임병수, 김택진, 김희근, 이혜영
〈진선여고〉	조정은, 손효영, 김태희, 조민경, 정다운, 이현지	〈영석고〉	유용훈, 김현준, 강현서, 권중구, 이정운, 김영복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 060-700-1080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02)737-888,1(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나눔의 성금

원주 단청나라 -5만8천원
대구 손문철- 6만원
서울 윤선애- 1만원
총 누적금액 27,845,660원

▌알립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1차로 11월말 서울경기지역 12개 종립학교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금 접수에 많은 동참바라며,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도 수거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